

한동대학교

진로가이드북

HANDONG GLOB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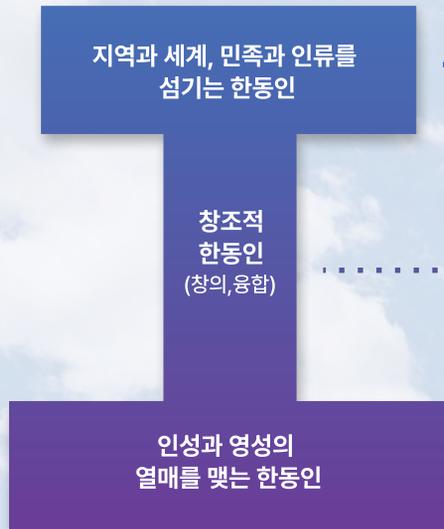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ERSITY

(375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
입학상담 054-260-1084~6 팩스 054-260-1809 이메일 admissions@handong.edu
입학홈페이지 <https://admissions.handong.edu>

“
**고자형 인재가
 세상을 바꿉니다**
 ”

글로벌 역량을 갖춘 '工'자형 인재



**한동대학교의
 3대 비전**

Three Vision of Handong University

**Genuine
 Christian**

Arise & Shine!
 (사 60:1)

한동대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Global

To the ends of the earth!
 (행 1:8)

한동대학교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무대는 한반도를 뛰어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다양한 민족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배우며, 배운 것을 주기 위해
 지구촌 어디든지 나아갑니다.

**Student
 First**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요 17:18)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잘 배우고, 배워서
 남주는 것. 한동의 학생은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동에서는 인성,
 영성, 지성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국제화 교육

지역과 세계, 민족과 인류를 섬기는 한동인

100%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 운영
(GM, UIL, 글로벌융합, IT 전공)

모든 전공과정에서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실무영어 9학점
이수 의무화

세계 최초의 세계시민교육
특화기구 설립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

졸업생 토의 성적

평균 **842** 점 이상!
(2023.2월 졸업생 기준)

미국변호사

545명 배출
(HILS 졸업생 대비 72.6%)

모의 UN회의, 국제 모의재판

16년간 연속 수상

전문성 교육

창조적 한동인(창의, 융합)

학생 희망에 의한
전공선택 및 변경

복합전공 교육
Multi Player

팀티칭 및 토론식
수업방식 운영

SW교육 7학점
이수 의무화

창업관련대회, 공모전

8년간 연속 수상

국내외 로스쿨 진학자

167명 (졸업생 대비 16.3%)

K-NSSE 학부교육 실태조사 (2022년)



인성 및 기초교육

인성과 영성의 열매를 맺는 한동인

정직과 성실 교육
(Honor Code)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봉사활동

공동체 리더십 훈련
6학기 이수 의무화

팀제도 및 RC제도
(Residential college)

K-CESA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 (2022년)



K-NSSE 학부교육 실태조사 (2022년)



01 기독 신앙에 기초한 교육철학

기독교학교에 비기독교인이 다닐 때 힘들지는 않을까? >>>>> QR Scan >>>>>



배워서 남 주자!

나의 유익을 뛰어넘는 목표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전공 봉사,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한동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228 개 기관



1,312 명

전공·사회봉사 참여 (2022년)

정직은 한동의 자존심, Handong Honor Code!



무감독 양심시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자!

한동인들은 정직과 성실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시험을 감독 없이 진행합니다.

한동만나

가계곤란 학우들이 100원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나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는 한동 아너 코드(Handong Honor Code)로 운영됩니다.



Learn to G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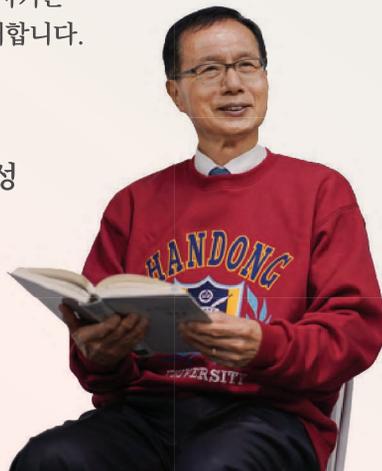
“

'배워서 남 주자'를 실천하고,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교는 한동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동을 총장으로 섬기며 Student First!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

한동대학교 총장 **최도성**



'최도성 총장'이 말하는 한동이란?



03 한동의 특별한 교육과정

자율전공 입학 및 복수전공 - 자유로운 전공선택

자율전공으로 입학하여 2학년이 되면 성적과 관계없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전공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와 이공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복수전공 할 수 있습니다.

학생설계융합전공 - 원하는 전공이 없다면 스스로 만든다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공의 이름과 지도교수님을 정하고,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까지 직접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학생설계융합전공이 개설되어 있음

Why not Change the World?

사랑의 가족, 팀제도 및 담임교수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 전공, 성별에 관계없이 30여명의 학생들이 교수님 한 분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사랑과 섬김을 주고 받습니다.

연구년 등을 제외한
전교원 참여!

110 팀 (2022년)

교수 - 학생
상담 수

총 **7,053** 건

교수 1명당 연평균 **64** 건 (2022년)

새내기 섬김이의 내리사랑!

새내기 섬김이(새섬)는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선배들이며, 후배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 팀에서는 새섬을 자원한 재학생들이 새내기들을 섬기고, 그 새내기가 다시 새섬이 되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적의 팀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Re-Fruiting

태풍의 여파로 발생한 사과를 구매하여 수제 과일청을 만든 후, 재학생들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포함시청에 기부하였습니다.

돌아온 기적의
10만원 프로젝트!



02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인성교육

복수전공 및 학부간 연계전공 비율
(2023.2월 기준)

복수전공 비율

82.4%

학부간 연계전공 비율

52.3%

문이과 교차전공 비율
(최근 3년간)

고교과정 인문계열 → 한동대 자연계열 선택

38.9%

14.2%

고교과정 자연계열 → 한동대 인문계열 선택

TEP

(Teacher Education Program)

전공과 교육을 연결하여 기독교사를 양성하는 특화 트랙으로, 졸업시 미국 ACSI(국제기독교학교연맹)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안학교 및 해외 선교지 학교 등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만의 특별한 전공 :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전산전자공학부·AI융합전공·ICT융합전공 등)

- 2022년 제10회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 2022년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경진대회 12건 수상, 창업지원사업 18건 선정
- 매년 전국규모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5건 이상 수상(2022년 8건 수상)
- 삼성전자, LG전자, NC소프트, DELL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 취업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대학

(2022년)

Handong News

국내 유일의 한동 미국식 로스쿨,
미국변호사 500명 이상 배출!



원문보기

(중략) 한동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체 등에서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한동 출신들의 뛰어난 실력을 뽐낼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에 위치한 유일한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 로스쿨은 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미국의 로스쿨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

의대가 없는데, 졸업생 300명 이상이 의사인 학교?!

"비수도권에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에서 300여명이 넘는 의사를 양성해 낸 특이한 이력을 뽐내는 대학이 있다. 이같은 성과가 포항지역의 의대 유치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원문보기

무려 128년, 5대째 한국젠.
'유퀴즈' 뒤집은 특별귀화자 데이비드 린튼 교수



(출처: 중앙일보)



원문보기

혁신대학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All Pass'
-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정, 6년간 약 240억 지원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선정
- 9년 연속 경상권 교육기부 지역센터 선정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국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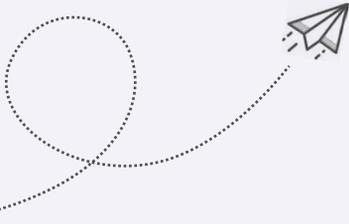
- 한동대-유엔한국협회, 상호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제 14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우승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미국변호사 시험 23명 합격(누적 545명)
- 한동대의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UN공보국 뉴스에 소개
- 한동대, 2022 유네스코 유니트윈 공적개발원조 컨퍼런스 개최
- 한동대 생명과학부, 하버드대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업분야

- 한동대 SW중심대학 창업팀, ClutG-Star 리그 최우수·우수 수상
- 한동대 SW중심대학 창업팀, G-Star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한동대 BIB 게임콘텐츠 창업팀, 각종 대회 잇단 입상
- 한동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주)미드바르, 소셜벤처 개도국 진출 지원 데모데이스터 1위 차지
- 한동대, 창업 지원사업 잇따라 선정, 14개 사업 총 11억 지원
- 한동대, SW중심대학 4개 창업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선정
- 한동대, SW중심대학 5개 창업팀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 최종 선정

학부별 수상

- 한동대 학생팀, 직접 작사·작곡한 'Every Color in Africa'로 외교부 장관상 수상
- 한동대, 헬스케어 AI 해커톤 경진대회 대상
- 한동대 '그림 남매'팀, 2022 전국 대학생 광고 대회 은상 수상
- 한동대 오션셀몬팀, SW산업보호대상 수상
- 한동대, 2022 스펙트럼 챌린지 대회 최우수상
- 한동대 재학생 김채은, 'THE CEO 공모전'서 최우수상 수상
- 한동대, 'SW중심대학 모형차 자율주행 경진대회' 우수상(대상) 수상
- 한동대, 미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서 포스터 논문상 수상
- 한동대, 2022 전국대학상담학과 협의회 논문·작품 발표대회 최우수상·장려상 동시 수상
- 한동대, E-보건종합학술대회 대상 수상



한동의 글로벌 공동체

한동은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글로벌 공동체입니다. 한동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전공 영어 강의 비율 (2022년)

39.6%

외국인 교원 비율 (2022년)

16.3%

외국인 재학생 (2022.10.1 기준)

50개국
250명

해외출신 한국학생 (2023학년도)

35개국
에서 입학

불합격 없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본교와의 MOU협정 대학

66개국, 268개 대학! (2023.2월 기준)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프랑스, 덴마크, 체코,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러시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이스라엘, 몽골 등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 아시아&아프리카 최초
UN NGO 컨퍼런스 한동대 주관
- 국내대학 최초
UN 공보국 NGO 기관 등록
- 국내대학 최초
UNESCO UNITWIN 프로그램 주관 대학

재학생
총원률
(2022년)

1위

전국 4년제 일반대 기준

5년 연속
신입생
총원률

100%

신입생
장학금 수혜율
(2022학년도)

99.8%



신입생
중도
탈락율
(2022년)

2.6%

*전국 4년제 일반대 평균 9%

한동인이 미래의 한동인에게

From

To

2022년
(주)카카오 엔지니어로
입사

kakao



이찬효 전산전자공학부 17학번

| 자기소개 및 about (주)카카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카오에서 회사 전반적인 인프라를 담당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효찬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희 회사 서비스가 장애 없이 24시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과 사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고, 저는 회사에서 한동에서 얻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동에서의 배움이 카카오 입사를 준비하는데 미친 영향

처음 한동대에 입학하고, 어떤 공부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직업은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컴퓨터"를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고 싶은 전공을 자유롭게 미리 경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동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이 집에서 먼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경험들이 전공 공부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RC제도를 통해 팀 사람들과 기숙사에서 야식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가치관, 신앙, 학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님들의 좋은 가르침과 서로 응원하고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친구들 덕분에 한동에서의 학업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구실에 들어가 최신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학부생 조교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공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탄탄하게 쌓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예비 한동인들에게 한마디!

여러분도 한동대학교에서 전문적인 전공 지식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으시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귀한 꿈을 멋지게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2022년도 외교관선발후보 시험 합격



박건우 국제어문학부 16학번

| 자기소개 및 about 외교관 선발후보 시험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합격한 박건우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년 과정의 국립외교원 연수과정을 마친 후 2023년 12월 외교관으로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외교원에서 국가별 외교전략, 국제법, 제2외국어 등 외교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임용이 되면 타국과의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업무 및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영사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한동에서의 배움이

외교관 선발후보 시험을 준비하는데 미친 영향

먼저 '배워서 남 주자'라는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3년의 수험생활 동안 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서 타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3년간 공부하다보니 합격과 더불어 소중한 인연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오직 공동체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매주 화요일 말씀(하기) 암송과 불금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시간과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홀로 고시촌에 있으면서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그 덕분에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 예비 한동인들에게 한마디!

한동대학교는 참 특별합니다. 실력을 기르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흥해음, 한동대학교에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한국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꿈꾸는 자들에 의해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한마디에 가슴이 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동대학교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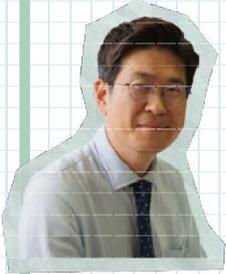
WITH GOD, WITH YOU, WITH HANDONG



세상을 바꾸는 인재들의 멘토

Why not change the world!

값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



생명과학부 이정민 교수님

-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졸업
- Harvard University 줄기세포 연구 참여
- ToolGen 유전자 교정기법 연구소장 역임
- 세계 최초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선형성 희귀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저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치료제가 없거나 고가인 난치성 질병을 대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연구실의 학부생들은 줄기세포와 유전자가위를 이용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오랜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걸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결과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생명과학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 성실, 관대함입니다. 한동은 이러한 자질과 생명과학 지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한동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동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전공특강



국내 최초의 딥러닝 연구자

전산전자공학부 김인중 교수님

- 세계 최초 AI기반 T-커머스 방송편성 시스템 실용화
- 국내대학 최초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 (WICWIU) 공개
- IR52 경영실상 수상
- 세계최초 모바일 한글 인식기 개발
- SW산업발전연구자 국무총리상 수상



인공지능(AI)은 지금까지의 기술적 장벽을 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SW)는 이미 광범위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어 머지않아 AI와 SW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AI와 SW를 공부하면 상상을 현실로 바꿀 기회가 많아지고 창의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으로써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중심대학인 동시에 SW와 AI가 강한 대학입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교내외 다수 수상 및 높은 취업률이 한동의 특화된 SW, AI 교육을 증명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AI와 SW를 배워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SW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 속에서 세상이 꼭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가르치는 선한 청지기

현대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입니다. 경영의 개념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청ziger로 임명하셨습니다. 청ziger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맡기신 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맡기신 것을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장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집, 교회, 직장, 나라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영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한동에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기 위해, 성경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동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배워 하나님의 선한 청ziger가 되어 이 세상을 바꾸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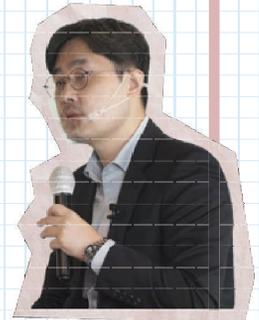
경영경제학부 장근배 교수님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미국 시카고 대학교 MBA
- Bobcat Global 재무총괄위원(CFO)
- eBay 아시아태평양 담당 Financial Controller 및 한국 CFO
- Big 4 회계법인(Deloitte&Touche) 감사본부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언론정보문화학부 주재원 교수님

- 런던 정경대(LSE) 언론학 박사
- 한국언론정보학회 연구이사
- KBS 라디오 '활기찬 아침 시민광장' 진행
- EBS 자문위원 역임
- KBS <방송문화연구>, MBC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편집위원 역임



미디어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인터넷 강의에 참여

하며,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유튜브를 시

청하는 일상을 살아가며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틴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2차대전 당시 일본천황의 항복 선언을 육성으로 전했던 라디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전 세계에 증계한 TV,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실시간 소통을 현실화한 SNS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언론정보 전공은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아이디어로 채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전공조합이 가능한 한동대만의 학사시스템을 통해 IT분야와의 융합연구를 해나가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창의적인 미래를 꿈꾸는 한동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태복음 6:33

HANDONG GLOBAL UNIVERSITY

CONTENTS

진로 탐색

10 글로벌리더십학부

13 인문사회계열

14 경영경제학부

- 14 경영학 전공
- 20 경제학 전공

28 국제어문학부

- 28 국제지역학 전공
- 34 영어 전공

40 법학부

- 40 한국법 전공
- 46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52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 52 상담심리학 전공
- 58 사회복지학 전공

64 커뮤니케이션학부

- 64 언론정보학 전공
- 70 공연영상학 전공

75 이공계열

76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 76 건설공학 전공
- 82 도시환경공학 전공

88 기계제어공학부

- 88 기계공학 전공
- 95 전자제어공학 전공

102 생명과학부

- 102 생명과학 전공

108 전산전자공학부

- 108 컴퓨터공학 전공
- 116 전자공학 전공

124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 124 제품디자인 전공
- 129 시각디자인 전공

136 ICT 창업학부

- 136 ICT융합 전공
- 142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 전공
- 146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153 창의융합·AI융합교육원

154 창의융합교육원

- 154 학생설계융합 전공
- 156 글로벌융합전공
- 158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전공
-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전공
- 162 수학통계전공
- 167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172 GPS프로그램
- 177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181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184 AI융합교육원

- 184 AI융합전공
- 187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글로벌 리더십 학부

Global Leadership School



"예수님을 닮은 글로벌 리더"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전원 무전공, 무학과(부)로 입학하여 글로벌리더십학부에 소속됩니다. 즉, 글로벌리더십학부는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만이 속한 학부입니다. 글로벌리더십학부에 소속된 1년 동안 학생들은 국제화, 지식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기초 인문 및 수학·과학 교육, 신앙 및 인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1년간의 교양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생 개인은 국제화된 미래사회의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닦으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는 전공탐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글로벌리더십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2학년 진학 시 성적과 인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적성에 맞으며, 자신이 원하는 전공·학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A

글로벌리더십학부, 이것이 궁금하다!

Q. 글로벌리더십학부는 전공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1년 동안 무엇을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초교양 & 전공탐색

한동대학교는 실무형 인재 양성,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기초학문(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글쓰기를 포함한 실무영어 및 중국어, ICT융합기초(컴퓨터 프로그래밍)를 필수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찾기 위하여 법학입문, 경제학입문, ICT융합입문 등 각 전공의 개론(입문) 과목을 수강하면서 전공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Q.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하더라도 2학년 전공 선택 시 성적에 따라 원하는 학부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아닙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교양기초 과정을 마친 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내기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고,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한동대의 교육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각 학부에서는 신입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학부를 선택하는 학생수에 따라 학부의 크기가 자체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고등학교 때 문과였던 학생입니다. 이과에 속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한동대학교에는 고등학교 때 선택했던 계열과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을 무엇이든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즉, 문과에 속했던 학생이 이과 계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이과에 속했던 학생이 문과계열의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과 학생의 이과 계열 선택비율은 36.6%, 이과학생의 인문계열 선택비율은 14.8%로 많은 학생이 다른 계열의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Q. 복수전공 제도가 궁금합니다.

A. 87% 복수전공! 나머지는 심화전공!

한동대학교는 복수전공 제도를 토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87%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두 가지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한 가지 전공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심화전공'을 선택하여 하나의 전공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심화전공을 제공하는 전공에 한함). 한 가지 이상의 전공을 공부하는 복수전공 제도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p>GMC</p>	<p>한동글로벌사명원(GMI) 산하의 학생선교학회로, 교내외 선교지원과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배움과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p>
-------------------	--



※ 재학생 이야기 ※



김은호 (23)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 학부 대표 23학번 김은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매우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술, 국제학,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법학... 너무나도 관심사가 넓어 한 가지 진로를 확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차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선 원하는 과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다행히 한동대학교는 무전공 입학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대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1년 동안 글로벌리더십학부에 소속되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더십학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은 성년의 날 & 스승의 날 이벤트, 중간고사 & 기말고사 파이팅, GLS 학부 MT, 가을 축제 교복대여사업 및 학부합창대회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근본, 중간고사 & 기말고사 파이팅 사업에선 시험기간 지친 학우님들에게 맛있는 간식과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나눠주곤 합니다.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에는 그에 걸 맞는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는데요, 2023년에는 성인이 된 날을 축하하며 포토존을 만들고 장미꽃 인형을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GLS 학부 MT에선 하루 종일 학부 행사 소개, 레크리에이션 등 점수에 따라서 상품도 주고, 학부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매년 11월쯤, 한동대학교에선 가을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때 미리 신청을 해서 교복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와서 너무 좋았던 부분은 팀제도인데요, 한동대학교에선 같은 기숙사 소속으로 약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1년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한주에 한 번 팀 모임도 하고 포항 근처로 놀러가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진로를 고민함에 있어서 이미 전공을 선택하신 선배님들에게 궁금했던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한동대학교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예비 한동인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인문사회 계열

경영경제학부

경영학 전공

경제학 전공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영어 전공

법학부

한국법 전공

US & International Law 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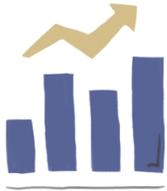
공연영상학 전공

경영경제학부

경영학 전공 / 경제학 전공



"Seize the day,
God's way"



우리는 모두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과 국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는 직장까지 모두가 조직입니다. 경영은 이러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그 구성원을 풍요롭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는 가장 뛰어난 경영자인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재무회계, 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생산관리, 인사관리 등의 분야를 공부합니다. 나아가 실무적인 수업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과제, 팀 활동 등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영은 특히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활발한 전공으로서 전산, 기계, 생명, 공연, 예술, 법, 심리, 사회복지 등 다른 모든 전공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경영학 전공은 자신의 비전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 (Finance)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금융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재무 상황을 과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웁니다.

* 관련 과목: 회계원리, 재무관리론, 투자론, 금융공학입문, 재무분석과 가치평가 등

회계 (Accounting) 기업이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에서 돈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 관련 과목: 세법 및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고급회계, 회계감사 등

마케팅/전략 (Marketing/Strategy) 고객의 관점에서 제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 관련 과목: 마케팅관리론, 마케팅조사론, 소비자행동론, 글로벌마케팅전략, 디지털마케팅 등

MIS/OM 기업이나 조직의 가치 창출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 과정입니다.

* 관련 과목: 경영정보시스템, 경영과학, 생산관리론, 경영IT실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대표 강의



회계원리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까지 회계의 순환과정을 공부하며 회계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명강의입니다.

마케팅 관리론 Marketing is everything!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 같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은 마케팅임을 배울 수 있는 명강의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평온한 일상 속에 내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기획하여 실제로 해결까지 실습하는 수업! 경영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생생한 체험형 수업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Global Management (GM) GM은 100% 영어로 진행되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글로벌 경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글로벌 경영실습 (G-BEX)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기업 조사 및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의 다수 국가, 중국, 이스라엘 등에 소재한 다수의 기업 및 국제 기구나 조직을 방문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해, 국제 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중요성 및 책임감을 이해하게 됩니다.

학회 소개

ACTs	본 학회 ACTs는 회계사(CPA)시험 준비반으로 한국회계사 시험 준비와 미국회계사 시험 준비를 돕는 교내 유일의 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지정석을 제공해주고, 자발적인 출석체크와 모의고사, 스터디 등을 통하여 수험생활을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정보공유와 합격생의 네트워킹을 도모하여 향후 회계 재무 금융 분야 진출에 도움을 줍니다.
Colorz	Colorz는 '미래 크리스천 마케팅 리더들의 모임'(Future Christian Marketing Leader's Network)이며, Christian, Marketing, Network 세 가치를 비전으로 삼는 평생 동역자의 모임입니다. 컬러즈에서 자신의 사고를 창의적으로 다듬는다면 각 분야에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되실 것이라 자부합니다.
IMC	한동대학 유일 ERP와 BI를 주제로 공부하는 경영, 전산학회 IMC(IT Management Consulting)입니다. 저희 학회는 IT기술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시키고 급변하는 IT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회원의 대부분이 경영학, 컴퓨터공학 및 ICT연계 전공자이며 실제로 두 전공을 같이 융합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슈들을 연구, 공유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며 공모전과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분야로 진출하신 졸업생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NFGS	NFGS (Nehemiah Finance for Good Society) 는 Finance, Accounting 지식을 배우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한동재무학회입니다. 2013년에 처음 학회를 시작하여, 재무에 대한 전반적 지식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valuation case와 study material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실제 기업재무에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매 학회 모임마다 성현모 교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재무를 배우고 또한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과 워크샵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DIVE	다이브는 'Data In Value'의 약자로, 경영과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현재, 경영경제학부생들 또한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필수 역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기획이나 기술경영, 산업공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을 통해 데이터 관련 필수 역량을 기르고 있고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경로를 실전으로 경험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지기투자학회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분석과 가치투자를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측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웁니다. 청지기 사모펀드를 통해 분석한 기업에 투자해 보며 실전투자 경험 역시 쌓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기업/산업 리서치, 오픈세션, 리서치대회 참가, 펀드운용, 기업탐방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연말 학회 선후배가 모이는 S의밤 행사를 비롯해 원활한 선후배간 소통으로 학회들 간의 두터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Me'Card (Management and Economics' Career Research and Development) 매년 가을학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영경제학부의 졸업생 20 여명을 초청해 경영경제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배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비전을 수립하고 진로를 계획합니다.

&GIVE(Global Impact with Vision and Expertise) 한동인은 '배워서 남주자'는 슬로건을 마음에 품고 공부합니다. 경영경제학부의 &GIVE는 국제개발도상국을 위해 필요한 경영경제 전공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학기에 1-2회 캠프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디지털마케팅, Media Commerce, 핀테크, 부동산 경제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비전에 부합하는 주제의 캠프에 참여해 지식을 쌓고, 이것들을 국제개발에 어떻게 나누어줄 수 있을 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전공 공부를 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증권분석사, 공정관리기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

국제 전문자격증 AICPA (미국공인회계사), CMA (미국관리회계사), CISA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FA (공인재무 분석사) 등

※ 졸업 후 진로 ※

경영을 전공하면 주로 기업으로 진출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MBA(경영학석사) 학위를 통해서 경영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정부기관 행정고시, 9급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경영지원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LG CNS, POSCO, 현대 · 기아자동차 등

금융 신한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사회기업 및 NGO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밀알복지재단, 더 브릿지, 히즈빈스, 아노키 등

졸업생 취업



공기업/ 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정부청사 관리행정,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일반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NHN(네이버), 대우인터내셔널, LG전자, LG화학, POSCO, KT, 한화, 한국타이어,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HTNS관세법인, 현대세무회계컨설팅,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Lee&Kent Law Office, 한국오라클, 안철수연구소, 대양상선, 금호석유화학, 현대중공업, 금호화학, AC Nilson, 마이크로소프트 등

금융기관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롯데캐피탈, 삼성카드, 신한맥쿼리금융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아시아인베스트먼트, 브이아이피투자자문, 삼성증권, SK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등

무역/유통 롯데쇼핑, GS리테일, 신세계, 씨제이오쇼핑, 이마트, 하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테스코, FOREVER21, 그루폰코리아, 씨제이올리브영, 대양상선, 현대로지엠, 이랜드 등

광고 제일기획, 나스미디어, 키스톤마케팅컴퍼니, Zenith Optimedia, 매케인에릭슨, 마크로메트릭스, 윈더맨인터내셔널,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Washington University MBA, Purdue University MBA, Columbia University, Pittsburgh University, Wisconsin University, Carnegie Mellon 등

※ 졸업생 이야기 ※



이현범 (11) - 한영회계법인

경영학은 기업이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학문입니다. 기업 운영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조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속에 잘 녹아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속에 잘 녹아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조직 속에 속해보는 기회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한동대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학회, 팀 모임 등을 통하여 협업의 정신과 책임감을 얻을 수 있고, 조직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조직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길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사회가 다양화되어가는 만큼 전산 등 다양한 과목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길 추천 드립니다.



곽한나(12)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학생 때는 취업에 필요한 것이 누구나 감탄할 정도의 스펙, 다양한 대외활동, 학문적 탁월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시절에는, 특출 나게 나를 표현할 만한 스펙이 없음에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하지만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를 한 이후에 저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이 깔려있는 조직이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혼자 튀기보다는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를 뽑고 싶어 합니다. 입사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저의 채용 과정을 돌아보면 한동에서 배운 '같이 하는 방법'이 채용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4인 1실 기숙사를 쓰며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친구들과 맞춰가려던 노력들, 경영학 조별과제를 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원들과 협력하던 시간들 모두 '관계'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경험들이, '나는 누구와도 잘 맞춰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취업 면접에 갈 때마다 스스로가 조직 친화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고, 3군데의 회사에 동시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는 삶 속에서 소통과 배려를 어느 곳보다 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찾기 힘든 귀한 능력입니다. 한동의 모든 제도 속에 이 한동 특유의 전인교육이 숨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 안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상희(21)

“Seize the Day, God’s Way! 도전하라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의 슬로건입니다. 저는 이 슬로건처럼 한동에서 비전을 찾아가며 다양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때, 저에게 맞는 전공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전공 기초 수업도 듣고, 진로 상담도 받아보고, 선배와 교수님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분야를 찾게 되었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경제학부로 전공을 선택한 후에는 마케팅, 회계, 재무, MIS 등 양질의 수업을 통해 전공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또한, 학회 활동을 통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나 데이터 시각화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며 실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더불어 학회에서 같은 비전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며 항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진로 프로그램 ME’CARD를 통해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과 교류하며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제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가꿔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동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며, 여러분만의 비전을 가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경제 학부

경영학 전공 / 경제학 전공



"Seize the day,
God's way"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에 마주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욕망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대부분이 사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적용 분야는 시장분석, 자산시장, 금융시스템, 경기침체, 경제성장, 노동시장, 세금, 공정경쟁, 경제법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과학성이 높은 학문인 만큼,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수리적인 사고로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에서는 차가운 머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미시 분야 중심의 심화전공

가계,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트랙으로 게임이론, 산업조직론, 금융경제, 재정학, 고급미시경제학, 정보통신경제학 등의 심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거시, 계량 분야 중심의 심화전공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트랙으로 국제금융, 경제발전, 계량경제 등의 심화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대학원 진학

선형대수, 실해석학, 미분방정식 등 수학적 기초를 탄탄히 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경제학 과목들을 수강하기를 권합니다. 수학과 경제학의 기본기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등 공기업 입사 준비

경제수학, 통계학의 바탕 위에 미·거시 경제학의 기초를 탄탄히 한 후, 최대한 많은 경제 과목들을 수강하길 권합니다. 4학년 1학기까지 주요 과목을 수강한 후, 마지막 학기는 해당 기업 시험을 꼼꼼히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준비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등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시험 과목 중 범위가 방대하고 공부하기 까다로운 학문으로 손꼽히며,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제학 수업을 통해 배우는 여러 과목들은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 강의



경제학 입문

경제에 대한 주요 개념을 익히고, 생소했던 경제학이 얼마나 삶과 관련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강의입니다.

미시경제학

실생활에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를 경제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한정된 재화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게임 및 정보이론

자신의 선택 뿐 아니라, 다른 주체의 선택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계량경제학

현실에 나타나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이론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국제금융시장 견학

한국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경제학 전공의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방문 하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진행함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뛰어난 선배들과의 교류&함께하는 공부

열심히 공부하여 경제학도로서 전문성을 키우려는 열정만 있다면, 학회에 지원하여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경제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여러 주요 기관에 진출한 선배들과 교류하고, 뛰어난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선배 및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

고등학교 때 경제와 관련된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임원단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관련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멘티)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배(멘토)를 매칭시켜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학부는 실력 있는 TA 보강을 통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시스템

전공내용을 보다 깊게 공부하고 싶거나,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조언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1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전공 진입과 함께 지도교수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학회 소개

<p>정치경제학회</p>	<p>밝은 분위기에서 폭넓은 경제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학회입니다. 공기업 취업,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으며, 진로가 명확치 않더라도 학회 활동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소모임, 스터디, 공모전,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2주간의 캠프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경제학 관련 공부를 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은 모든 학생을 초청합니다.</p>
<p>금융경제연구학회</p>	<p>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각종 금융이슈 및 정책을 거시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거시경제학 스터디를 통해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학기 중에는 한국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함께 탐구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싶으시거나, 금융기관 및 관련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학생을 초청합니다.</p>



수상 내역 

연도	주관	대회명	수상
2016	교육부	2016 산학협력 엑스포 창인 (창의 인재) 발굴 오디션	최우수상
2017	보령머드박물관	2017 보령시 머드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2021	한국경제신문사	제19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	대상
2021	한국경제신문사	제19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	우수상
2021	한국은행	한국은행 통화경시대회	동상
2021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 기술 아이디어	장려상
2022	한국은행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	지역예선 수상
2022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2022년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 프로젝트 경진대회	우수상
2022	신한	빅데이터 해커톤	우수상, 장려상
2023	한국정보기술학회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은상

※ 졸업 후 진로 ※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크게 취업을 하는 경우와 진학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 있는 경제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여 경제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 기업체의 기획부서 또는 컨설턴트 회사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도는 기업과 기업의 경제 환경 및 시장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주로 기획부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기관 진출

- 경제이론 및 분석 분야: 학계, 국책 및 민간연구소
- 국제경제 및 통상 분야: 국제무역, 국제기구
- 경제정책 분야: 중앙 및 지방정부, 한국은행 등 공기업
- 재무 및 금융 분야: 금융계, 기업 재무전문가

사기업 진출

- 산업 및 기업경제 분야: 일반기업, 애널리스트
 - 정보기술 분야: 정보기술산업, 벤처기업
- 그 외 경영, 경제, 세무 등의 상경계열은 모든 사기업에 진출 가능

졸업생 취업

공기업/ 정부기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SH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녹색성장연구소,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공무원 등

일반기업

하베스터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랜드, 삼성에버랜드, 케이티, SK텔레콤, LG화학, JYP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 유니타스브랜드, 한화, 금호석유화학 등

금융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브이아이피투자자문, 글로벌아시아인베스트먼트,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맥쿼리금융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NGO

기아대책, 좋은씨앗,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서울대학교 경제대학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제대학원, 한동국제법률대학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Washington University, University of Westminster, LeTourneau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유정빈(18) - 국방부 7급 공무원

한동에서 가르치는 “배워서 남주자”

정신은 제가 사회에 나와 일을 하는 지

금이 순간까지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좋은 가르침입니다. 저는 현재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살이라는 남들에 비해 조금은 이른 나이에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한동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며 지식을 쌓아나갔던 과정, 교수님들께 지혜를 구하고 고민의 해답을 얻는 과정,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응원해주는 경험’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과 한동에서의 추억들이 쌓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하며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구체화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대학의 시절을 치열히 달려왔고, 그 결과 저는 이곳에서 또 한 번 “배워서 남주자” 정신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갖고 대학을 가시나요? 어느 곳에서든 부디 그 꿈과 비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전 “나는 내가 속한 이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대학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엄태규(11) - 뉴욕주립대 버팔로 경제학 박사과정

대학입시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기도

잠시, 한동은 저에게 ‘비전’이란 물음을

던졌습니다. 장래희망의 그 것과는 달리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은 컸지만, 한동은 그 물음과 함께 길잡이 역할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애매하게만 느껴졌던 ‘비전’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전문인 사역자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전문성’, ‘사역자’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통해, 교내외 강의와 활동을 통해 고민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 팔로워로 여러 상황을 겪으며 노하우를 배웁니다. 연구원에서 잠깐 일할 때 같은 층 연구원들과 같이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하며 지내는 것을 선임연구원분들이 보시고 이전에는 희귀한 풍경이었는데 연구원에 생기가 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의 공동체 교육, 통합이다. 경제 전공자들의 모임 ‘한동경제’에서는 학부생과 석/박사과정생이 어우러져 매년 초 연구발표를 하고 진로에 대한 문답을 나눕니다.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학회에서 학기/방학 중 심화학습을 하면서, 또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 교수님들이 주신 멘토링 덕분에 커져갔습니다. 손 붙잡고 해주신 교수님의 기도, 교정을 거닐며 받은 따뜻한 격려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경제를 포함해 대학원 과정이 없는 전공들은, 학부생 수업 조교를 할 수 있는 기회, 교수님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양영어수업과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역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 나가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던져진 질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오규석(16)

한동대학교는 저에게 꿈을 찾게 해준 귀한 학교입니다. 저는 경영학, 경제학이라

는 두개의 전공을 선택하여 경영경제학부생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계획이 없어 불안함으로 주어진 것을 열심히만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학기 정희택 교수님의 거시경제학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고, 경제학적 관점으로 현실 경제를 바라보며 경제라는 학문에 크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시경제학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 있는 학문인데, 경기침체나 과열로 인한 시장실패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정책을 통해 처방하는 정부의 역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거시경제를 공부하며 정부의 정책이 현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생각하며, 저도 경제학이라는 전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금융이라는 영역에서 금융에 취약한 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꿈을 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의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는 한동의 슬로건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진 이유는 슬로건의 거창함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세상을 생각하며, 모두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하고,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경영과 경제라는 전공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제 꿈을 이루는 그 날이 기대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 하실 모든 분들이 한동에서 꿈을 찾으시길 소망하며, 그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노대영(18)

저는 20살 때 타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한동대학교에 왔습니다. 처음

한동대학교에 왔을 때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한동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형, 누나, 교수님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어떤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품어줄 학교입니다.

2학년 때 경제학과를 선택하고 느낀 것은 정말 모든 교수님들이 학업과 진로 지도에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상담을 찾아갈 때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타 대학을 다녀본 저에게는 정말로 낯설면서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경제학을 더 깊고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정치경제학회라는 학회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동의 슬로건 중의 하나인 '배워서 남 주자'는 학부 때부터 시작입니다. 한동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을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알려주는 편입니다.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한동대학교에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비전과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으며 서로 도와가며 공부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좋은 교수님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동대학교에 오시길 바라며, 한동대학교에 오실 여러분을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요한복음 4:24

HANDONG GLOBAL UNIVERSITY

국제어문 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 영어 전공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



국제지역학은 민족국가가 형성된 근대부터 21세기 세계화 시대까지 국제 질서뿐 아니라 국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 및 지역 간의 관계를 정치, 사회, 경제적 안목을 통해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또한 정치사상, 정치이론, 비교정치학,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 국제개발협력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학을 개괄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국제정치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웁니다.

국제지역학 전공은 전공 입문 과목인 정치학개론을 시작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세계 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론적 접근을 배우는 국제관계학 트랙이며, 두 번째는 하나의 지역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국제지역학 트랙입니다. 이 두 트랙을 통해 각 정치현상마다 드러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국제관계학 트랙

처음 수강하게 되는 국제관계학입문 수업에서는 국제정치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이론적 배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정치적 특성을 비교하며 여러 가지 정치적 개념을 배우는 비교정치학으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공 공부를 시작하면 미국대외정책론이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경제, 국제 이데올로기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국제지역학 트랙

지리적, 정치적으로 구분된 지역을 두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도구 삼아 중국, 일본, 유럽, 중동 사회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강의



정치학개론 (전공 입문 수업)

수강생들로 하여금 정치적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추고 현실 정치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과목입니다.

국제관계학입문 (전공 입문 수업)

현대 국제관계 형성의 원인과 전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중요한 국제정치 이론을 입문의 형태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지역학입문

학제적 접근으로 국제정치와 시장경제, 사회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배우며, 동시에 각 지역의 특색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비교정치학개론

두 이상의 국가들에 나타나는 정치현상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연구하며 다양한 정치 행위자 및 정치제도 등을 배움으로써 정치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중국사회의 이해

현대 중국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친 전반적인 개괄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력을 배양하고, 중국사회를 다각적 시각을 갖고 이해하도록 돕는 개론 과목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전문가 선배들과의 만남!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전공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진출한 선배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현장실습에 참여한 후배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배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국제기구, 기업, NGO 등에서 일하거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선배들 역시 매 학기 전공세내기 캠프 등에 방문하여 후배들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는 말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동인을 ‘남’으로 규정하지 않아 우리는 한 식구임을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따뜻한 교수님!

학생들을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와 조언은 지식을 넘어 지혜로 다가옵니다. 국제지역학 전공의 교수님들은 각 교수님마다의 특징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에 따라 배우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뜻을 품은 동역자와의 만남!

동료 학생들과 함께 각종 국제 관련 대회에 참가하고 아웃리치를 떠남으로써 같은 소망과 비전을 품는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기쁨입니다. 이런 협력과 배움을 통해 국제지역학 학생들은 매해 모의유엔대회(MUN) 및 각종 국제 관련 대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 관련 대회에서의 수상!

2006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07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우수상
2008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세계협상대회 우승(London)
2009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KOICA단장상) 및 장려상
2010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우수상, 명예상
2011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12	• 대학 간 모의재판 승리(한동대vs한양대) • 국제환경법 모의재판 한국대표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우수상 및 장려상
2013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준우승(한동국제법률대학원 우승) • 모의유엔대회(MUN) 우수상 및 장려상
2014	• 모의유엔대회(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대상(법무부장관상) 및 최우수서면상
2015	• 유엔인권이사회 모의대회 외교부 장관상(1등상)
2016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최우수 변론서상
2017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
2018	• 모의유엔대회(MUN) 장려상
2019	• 모의유엔대회(MUN) 최우수상, 장려상



학회 소개

한동국제정치학회	국제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학회로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제관계의 역사와 흐름을 공부합니다. 본 학회는 지성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자신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수민족지역연구학회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분쟁 상황을 깨닫고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성경적인 비전을 가진 단체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전공새내기 캠프

국제지역학 전공을 지망하는 1학년 학생과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 헤매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지역학 전공의 교수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맛보기 강의를 진행해주시며 재학생 선배, 졸업생 선배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현장실습 (Global Training Research, GTR)

미국 또는 유럽의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각 기구에서 일하는 한동대 동문 및 전문가들을 만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GTR 현장 방문 전에는 국제기구 세미나 (Global English Society, GES)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실습 참여자들이 각 국가를 대변하여 토론하고 여러 국제기구를 조사하면서 각 기구의 설립 의의를 찾아가는 사전 준비 활동입니다. 참여 학생은 국제기구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며, 실질적인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국제기구나 제3세계를 돕는 NGO, 정부 또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으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UN, OECD, UNESCO, The World Bank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학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대학이나 국내의 국제학 관련 대학원, 국제정책대학원(KDI),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국제기구 UN, OECD, UNESCO, UNAI, UN미래포럼 등

NGO 기아대책,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이랜드복지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팀 앤텀인터네셔널, 세이브엔케이, ODA WATCH 등

공사/공기업/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교육개발원, 한-아세안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협력개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관광공사, 연금관리공단 등

일반기업 삼성, LG, 현대, 포스코, CJ,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바이텍코리아, 성주인터넷 서널, 이룸 등

외국계·다국적 기업 한국IBM, 코카콜라,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지멘스 코리아, Li&Fung-홍콩, 원기업-카타르, Daido Steel-일본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University,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Graduate School 등

그 외 국제정책대학원(KDI), 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 한동국제지역대학원 등



✧ 졸업생 이야기 ✧



노현주(07) - KOTRA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에서 국제관계학과 영어통번역학을 공부하고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한국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 선택의 계기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넓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 한동 '글로벌' 대학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는 다소 막연하고도 순진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수님들의 전공 수업과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경험하면서 4년 동안 참 재미있게 공부하면서도 나만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졸업 후 계획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전공 수업들은 단순히 주입식 수업이 아닌 토론·논문 발표·팀워크가 어우러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회 활동과 UN모의대회 등을 통해 아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연계전공과 팀 제도, I-house, 영어예배 등을 활용하여 평소 관심이 있었던 국제경제 분야의 수업을 청강하기도 하며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타 대학과 확실히 구별되는 한동대학교만의 특성과 국제어문학부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Generalist이자 Specialist로서 나만의 강점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KOTRA는 83개국 123개의 해외 무역관에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한동에서 배우고 훈련했던 지식과 경험들이 일상 업무뿐 아니라 중요한 해외 지원 업무 때 쓰이는 것을 문득 느끼며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Global Bridge Builder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넓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국제어문학부에서 재미있게 준비하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희(16)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학과 교육학을

함께 배우는 글로벌교육협력전공에서 교육개발협력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국제어문학부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학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 한동의 선배님들과 같이 개발도상국을 돕고 싶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국제어문학부 졸업생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국제기구, NGO,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비전은 '배워서 남주자'는 한동의 슬로건과 국제어문학부에서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재학 중에는 학문적, 신앙적으로 탁월하신 교수님들께 전체적인 국제 관계와 지역적인 상황과 특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국제 사회를 통찰하게 되어 국제 관계의 불균형, 교육문제, 빈곤의 문제 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저의 학문적인 지식을 기르고 사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국제어문학부의 국제현장실습(Global Training Research, GTR)과 개발협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국제현장실습(GTR)에서는 UN, UNESCO, OECD, WTO 등 국제기구들을 방문하여 현지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기구의 역할과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를 통해 참여한 캄보디아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 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NGO들이 개발협력을 위한 활동을 하였지만 교육을 통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교육 개발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한동의 선배들처럼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으신 후배님들이 국제어문학부에 오셔서 전문성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Global Bridge Builder가 되길 소망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윤창 (21)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진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세계적 이슈, 그 중에서도 남-북 통일과 동북아 지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더 키워 나갈지 고민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대학교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가 한동대학교 그리고 국제어문학부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수업 내에서 많은 외국인 학생과 함께 팀플을 하고 타 학부에 비해 많은 영어강의는 영어라는 기본 소양을 탄탄하게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UN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것을 학교에서 굉장히 잘 지원해준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국제어문학부의 매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진입니다. 학생입장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교수님, 외교부에 몸담고 한국유럽학회장을 지내신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전공에는 국제지역학 모듈, 국제관계학 모듈, 동북아시아 지역 모듈, 국제개발협력 모듈 이렇게 총 4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각 모듈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학문적 접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 나가 현장을 체험하는 GTR(Global Training and Research) 프로그램이 국제어문학부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졸업생 특강과 진로 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학부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역시 많이 만들고자 학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구촌’을 넘어 ‘지구집’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일이고, 이제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한 나라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고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 이슈의 특징은 단순 정치·외교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고 다학제적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우리 학교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지역학 전공을 공부 하다 보면 중국, 그 중에서도 중국경제처럼 어떤 지역과 한 분야를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전공과 함께 하기에 국제 전공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어문학부에서는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을 위해 함께 다리를 놓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제어문 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 영어 전공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



언어학, 영문학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배양하여 영어 전공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통번역, TESOL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Perspectives (관점), Basic Competence (기본역량), Foundation (토대), Application (응용)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영어 전공 과정에서 영역별로 소정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통합적인 영어 전공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언어학

언어 구사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무의식적 문법체계의 지식을 내포하며 그 작동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 언어학입니다. 언어학은 언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언어의 본질과 습득, 언어가 사회와 문화와 갖는 상관관계, 언어와 인지 등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언어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간 언어에 내재하는 언어의 작동 원리 (principles and rules)의 체계를 이해하게 되며 외국어의 학습과 교육에 관한 여러 주요 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영문학

영문학에서는 문학의 기본 요소와 장르별 특성 및 역사적 맥락을 공부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은 후 토론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서양) 문학사를 관통하는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삶과 문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찰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학 이론을 고찰하여 기독교 시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적 소양을 기릅니다. 강의실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문학 이론을 습득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통·번역 분야

통·번역 분야에서는 앞서 배운 언어학과 영문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사용하여 이론을 넘어선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둡니다. 통역의 경우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에 대해 성찰, 토론, 연설, 발표 등을 훈련함으로써 스피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소통역할을 기르게 됩니다. 나아가 통역 내의 암기훈련, 내용기록, 순차통역 등의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번역의 경우 다양한 번역이론과 전략을 이해하고 장르에 국한 받지 않는 여러 텍스트를 직접 번역하는 훈련을 통하여 번역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TESOL 분야

TESOL에서는 영어구사력을 기반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을 연마하고 언어의 원리와 활용

을 탐구하는 언어학적 지식 및 교육 철학에 대한 지식을 넓힙니다. 언어학적 분석을 토대로 언어습득과 외국어 학습에 관한 다양한 원리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사회 속에서의 언어 사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나아가 영어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교수법과 접근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재로만 공부하는 TESOL을 넘어서 수업을 계획하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익히게 되고 강의실 내·외의 현장에서 실제 교사로서 체험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언어학

Intro to Linguistics, Syntactic Analysis of Modern English,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 Sentences and their Uses,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 Sound Patterns, Form and Meaning in the English Language

영문학

Understanding Literature: Reading, Reacting, Writing, Themes in Fiction, Themes in Poetry, Themes in Drama, Studies in Literary Thoughts

통번역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Interpretation in the Global Context, Translation in the Global Context, Literature and Translation

TESOL

Introduction to TESOL, TESOL Methodology, Special Topics in TESOL,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nd Korean

한동인의 전공 자랑



당신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다면 갖추어야 할 공간이 되는 소양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인문적 깊이와 너비를 지닌 이해, 타자와 소통하는 마음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어문학부의 영어 전공은 바로 그 인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마음과 말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영성과 지성, 인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형 인재를 지향하는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인문적 소양과 영어 구사력 강화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려 깊고 창의적인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복수전공 제도에 따라 영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공을 연계하든 전공하는 학생들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영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공과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전공은 어떤 전공보다도 폭넓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영어 전공 교과과정이 시대에 발맞추어 전공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영어 전공 교과과정을 통하여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키는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길러내어 인문적인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 영역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회 소개

한동번역학회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차이점, 문화적 이질감 등을 최소화 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회입니다. 한영 번역, 영한 번역을 통해 Bilingual적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정예로만 모집하여 학회 사람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학교 생활을 할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학회	언어학 수업의 심화과정을 공부하며, 언어 체계 및 언어와 관련된 역사, 문화 등을 함께 알아가는 학회로 전반적인 언어 교양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학기마다 두 권 가량의 책을 정해 학회원들이 함께 읽고 발표 및 토론을 하며 생각을 나누고 자체적으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Salus	영문학 작품을 영어로 읽는 학회로 함께 모여 읽고 생각을 나누어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하는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통해 넓은 세상과 삶의 가치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런 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동교육학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동인으로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문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사랑, 겸손, 봉사를 계승하는 한동 최초의 교육학회입니다.
한동통역학회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회원들의 통역 능력을 향상시키며 교내·외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여 통역 봉사를 통해 학회원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Global Life(글로벌 라이프) 매년 겨울 방학에 국제어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열기도 하며 졸업생의 특강을 듣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모여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의 정체성을 새로이 새기며 굳게 다지는 자리입니다.

학술축제 매년 가을학기에 국제어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로, 전공별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개인별 및 팀별로 페이퍼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페이퍼는 학부 교수님들의 평가를 거쳐 심사되며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Global Training and Research(국제탐방실습) 국제어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의 주요 지역을 2~3주간 탐방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영어 전공을 마친 졸업생의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영어 전공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폭넓은 사고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어 굳이 특정 분야로만 진로를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업 후 영어 구사를 요구하는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NGO/사회적기업

월드비전, 유니세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세이브엔케이, 팀앤티 인터내셔널, 굿피플, G&M 글로벌 문화재단, 향기내는 사람들 등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WATCH, 국제엠네스티, 한-아시안센터, 정부기관 등

학교기관

한동대학교, 한동국제학교, 꿈의학교, 명지초등학교, 구학초등학교, 육민관중학교, 인하대학교, 동서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기업/금융/재단/언론 등

POSCO, LG전자, 코오롱, 영국전자, 싱가포르항공,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Nam June Paik Art Center, 극동방송, 미래한국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동국제법률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동대학교국제개발 대학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장로회신학 대학원, 총신대학교신학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University, Vanderbilt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Northern Iowa, University of Sussex,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eTourneau University,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Graduate School,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등

※ 졸업생 이야기 ※



**이은혜(00)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한동대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외국 여행 한번 기본적 없고, 외국인과는 영어로 대화 한마디 섞어본 적 없었던, 그야말로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영어 듣기, 말하기가 잘 안 돼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외국인이랑 대화 몇 마디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 할만큼 영어 초짜였어요. 그랬던 제가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지금은 미국의 대학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다문화 교수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는 영어 소통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저의 영어 소통에 대한 관심이 대학 시절 급격히, 그리고 한동대 졸업 이후로도 꾸준히 자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한동대에서 경험했던 '배워서 남주기' 교육이었습니다. 선배, 친구들을 따라 포항 지역 보육원 아동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과외를 해주고, 여름 방학 때는 어설픈 콩글리쉬로 해외 선교지에 다니며 영어를 가르치는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원어민같은 영어 발음, 유창한 말하기 실력보다, 타문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진심을 전달해 보려는 용기가 소통과 관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발음에 대한 콤플렉스도 사라졌고, 콤플렉스와 비교 의식이 사라지니 더 다양한 국내 및 해외의 봉사활동과 교육의 기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택한 길을 꾸준히 걷는 데에는 실력보다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학점 관리나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교육 상품이나 전략보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이웃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동의 '배움과 섬김을 연결하는 공부'를 추천합니다.



손정은(12) - 월드비전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어문학부 졸업생 손정은입니다.

저는 지금 르완다 루치로라는 콩고 국경 지역에서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로 파견된 저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동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에는 늘 정답이 없지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모으는 힘은 여러 국제 이슈들을 두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토론했던 국제·어문수업들을 통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답을 외우기 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나누는 수업이 한동의 자랑이자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지혜'도 한동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지혜는 한동에서 마주치고 함께 공부했던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준 선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우미를 하며 만났던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지금 제가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동에서의 시간은 제 삶 곳곳에 녹아져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취업보다 더 큰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는 한동대학교를 많은 신입생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효진(17)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소중한 인재가 되고자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을 하나로 이을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영어 전공을 선택하여, 저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영어 전공을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어 전공을 선택한 것에 있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영어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어 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공 새내기들에게 <Vision and Vocation> 수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 예배로 시작하는 이 수업은 나의 소명과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소그룹 시간을 통해 소명과 비전, 혹은 고민들을 교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 전공은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전공이 아닙니다. 영어 전공을 통해 우리는 언어 그 이상의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소통의 도구이자 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저는 언어학, 영문학, 통번역 그리고 TESOL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어와 언어를 공부하며, 저의 비전을 확립하고, 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언어 교육을 통해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의 가치와 함께함의 가치를 전하는 교사, 이효진입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동대학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영어와 언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망설임 없이 영어 전공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만의 비전과 꿈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원소진(19)

영어 전공은 저에게 전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라는 분야로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영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자란 토종 한국인으로서, 특히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동대학교에서 영어 전공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1학년 때 언어학 개론을 수강하며 세심하게 가르쳐주시는 교수님과 영어에 열정이 있는 다른 학우들의 모습을 통해 확신을 얻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영어 교육, 언어학, 영문학, 통·번역의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으며,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작문, 스피킹, 문법 등의 수업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들은 전공 지식뿐 아니라 Christian perspective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또한 'Vision & Vocation' 수업에서는 영어 전공 교수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예배, 전공 수업에 대한 설명, 재학생 선배 특강, 졸업생 선배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교수님 한 분과 학생들이 한 조를 이루어 나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는 국제어문학부 임원단에 소속되어 문서 번역, 영어 전공 학부생들의 고민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영어 전공 토크쇼 기획, Vision & Vocation 재학생 특강에 참여하였으며 지역 내 고등학생 영어 과외 등 알차게 전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있고 Global bridge builders for Christ로 함께 동역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영어 전공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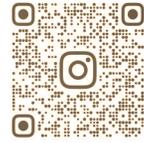
법학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한국법 전공 /

US&International Law 전공



법학부는 '한국법'과 'UIL (미국법·국제법)'의 두 전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성과 목표에 따라 알맞은 전공 조합을 통해 법률적 소양을 길러 국내·외에서 법률가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한국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 즉 공익과 사익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입니다. 공법은 헌법, 형법, 행정법, 사회법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사법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물권법, 채권각론, 경제법, 자주적 분쟁해결 등이 포함됩니다.

2학년	민법총칙, 헌법1, 형법1, 헌법2, 형법2, 물권법, 특허법과 기술창업
3학년	법사회학, 채권총론, 기업법1, 사회법, 행정법, 공법소송, 소송법1, 통일법제론1, 채권각론, 소송법2, 경제법, 법과 과학기술
4학년	기독교법사상, 자주적 분쟁해결, 법철학, 법과 정치, 친족 상속법, 기독교적 분쟁해결론, 행정학1, 행정학2, 지방자치, 형사정책과 경찰
심화	개별연구, Capstone Project, 법학특론

대표 강의



민법총칙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법은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입니다. 민법 기초과목을 통해 출생, 성년, 각종 계약 체결이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 및 다양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법사회학

법사회학은 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역사적인 법사회학자들 (에밀 뒤르켐,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엘리네크 등)의 이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작용, 법의 생성 과정, 법 의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명강의입니다.

자주적 분쟁해결

자주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법원의 소송 외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강의시간에 특정 사례를 직접 조정하고 중재하는 실습을 통해 보다 더 생생하게 ADR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통일법제론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도 없던 법 과목으로 한동대학교가 첫 시행한 강의입니다. 이후 서울대 학부에도 강의를 개설되면서 통일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독일의 통일 과정,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방식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방향



한국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한국법의 기초되는 법 과목을 모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1학년 때 법학입문 과목을 듣고, 헌법, 형법,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소송법 등의 과목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법철학, 법사회학, 공법소송, 기독교법사상, 법학교전강독 과목 등을, 민법의 한 분야인 ADR (자주적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주적 분쟁해결과 기독교적 분쟁해결 과목을, 사회의 각 분야에 어떻게 법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은 기업법, 행정법, 경제법, 통일법제론, 행정구제법 등의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법학부에는 각 과목마다 이론과 봐야할 판례들이 많이 있고, 공부할 분량이 많은 학부로 유명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답안 작성 방법을 잘 습득하여 공부한다면 충분히 모두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법학부의 자랑은 교수님!

한동대 법학부에서는 매우 탁월하신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 하십니다. 법학부의 교수님들께서는 제자들의 지적 발달과 더불어 인성과 관계 성장 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시간 할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오피스 문은 열려 있어서 학생들은 과목에 대한 문의 이외에도 자신의 비전이나 개인적인 상담을 위한 방문에 주저하지 않고, 교수님께서도 그런 학생들을 반겨주십니다.

선배에게 배우는 법학!

법학부는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스터디 매니저가 되어 후배들을 위해 각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법 이론에 대한 해석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동료들 만나 친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법을 넘어 미국법과 국제법까지!

한동대학교의 법학부는 한국법과 UIL (미국법 및 국제법)의 두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국법과 미국법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 두 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법적 사고를 기르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회 소개

한동아시아인권법학회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회입니다. 인권의 실상과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굳히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통일법학회	<p>통일법학회는 법률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토론을 하는 학회입니다. 통일은 단순한 지역의 통합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체계 변화를 필요로 하기에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북한지역 인권문제, 남북교류협력, 탈북민 정책, 해외 통일 관련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이 통일 정책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현재 통일 분야 관련 교내의 공모전에도 실력 향상 및 입상을 목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모든 한동인을 저희 통일법학회는 기다립니다.</p>
경제법학회	<p>우리 인류 역사에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찾는 일은 언제나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동산을 떠나 인간이 마주한 것은 자연, 주변인, 그리고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경쟁과 생존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바로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법학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경제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 위에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제법을 통해 '경쟁 제한'이나 '부당공동행위', '재벌(경제력 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사안을 탐구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p>
다면: 한동 법여성학회	<p>성매매연구학회가 모태가 되는 법여성학회 다면은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법, 젠더, 노동, 구조적 억압 등 여성이 마주하는 다양한 면을 고민하며 공부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여전히 여성 소외적입니다. 완전한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반인 여성의 관점에서 법을 재조명, 재정립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법과 여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다면은 답을 찾기 힘든 곳에서 기꺼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며,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자 합니다.</p>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학부장 교수님과의 여행

법학부는 졸업여행과는 또 다르게 교수님과 함께 국내의 역사적인 관광지를 1박 2일 다녀오는 여행을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토대로 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 시간입니다.

법학부의 날

법학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선후배, 동기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법학부의 날'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BBQ 파티로 교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학부 MT

법학부 MT에는 다른 학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수님들이 참석하시지만, 특별히 매년 교수님들께서 아끼는 책을 추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뜻과 추억이 담긴 책 선물 이벤트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과 배움의 시간이 되어왔습니다.

진로지도캠프

법학부는 매년 법학부 진로 및 법학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법학부 전공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지도캠프를 실시합니다. 법학부 졸업생들로부터 공부 방법 및 진로 방향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강연의 장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고시, 5급·7급·9급 공무원 시험 외에도 언론 기관,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업체, 사회단체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졸업생 취업



법률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소명, 지방법원 검사 등

법률 관련 기관

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회, 특허법원, 특허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국회의원 보좌관 등

금융권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생명보험, 한국증권거래소 등

기업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LG이노텍, 인천공항공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KT, CJ제일제당, 경동도시가스, 롯데쇼핑 등

졸업생 진학



법학전문대학원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37명 국내 로스쿨 진학

일반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등



※ 졸업생 이야기 ※



**배준성(02) - 법무법인 JN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Speak up for thos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Proverb 31:8)

제가 기억하는 한동대학교 법학부는 탁월한 전공지식의 습득은 물론 짧은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3년의 법학부 생활 동안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이었는데, 졸업한지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가르침이 마음 속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이 새로운 구호 아래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김문경(03) - 국회의원 비서관

저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스포츠에이전트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라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법학부를 선택하였고, 졸업 후 FIFA Player's Agent 자격증을 취득할 때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내내 그 선택의 탁월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인 고민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기에 의원실에서 체육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전반적인 감사업무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초를 연구하고 울타리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은 어려운 것’이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성(05)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억 하나. 로스쿨에서 인터넷 강의에 이르기까지 법학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학지식만이 아닌 하나님님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한동의 법학부가 유일합니다. 법률가를 꿈꾸던 처음의 다짐들이 흔들릴 때마다 한동에서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새로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기억 둘. 한동의 법학부는 한동대학교 내에서도 규모가 작은 학부에 속합니다. 그러나 작은 만큼 서로 간의 정은 끈끈합니다. 졸업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를 만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한동의 법학부에 초대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재아 (19)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틀가가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한동에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전공과 신앙이 공존하는 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운 지금까지의 저의 모든 한동 생활을 되돌아보면, 바른길로 이끌어 주신 교수님의 사랑과 '배워서 남 주는 삶'을 실천하는 법학부 선배들의 도움,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 모든 사랑들이 저를 학부 대표로 섬기게 이끌었고 제가 받은 사랑을 잘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법학부는 법이 있어도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과는 한국법과 UIL로 나뉘어 있으며 법학부는 한 손에는 법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 뻗어 나가며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법 과목이 몇 개 있습니다. 기독교 법사상, 기독교적 분쟁 해결 등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수업은 한동대학교만의 특별한 수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학부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인 '법학부 BBQ'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학부생끼리 서로 알아갈 수 있으며 특별히 교수님께 진로, 학업, 신앙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털어 놓으며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학부 BBQ' 이외에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생들이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유용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 과목 중에서 민법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민법은 1000조가 넘어가기에 배울 것과 외울 내용이 넘쳐나지만, 양이 많은 만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많은 사례들과 그것들을 배우면서 얻는 성취감에 매력을 느낍니다. 또한 분쟁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ADR에 관한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일상에 적용하며 좀 더 지혜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법조인으로 일하는 저를 통해 이 세상이 살아가게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창조 세계를 보며 감탄하게 하고 싶습니다.

법학부는 공부할 양이 많으며 다들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과 법학의 공존을 배워 자신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을 준비를 한동대학교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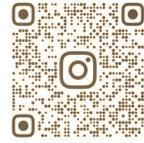
법학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한국법 전공 /

US&International Law 전공



UIL (US and International Law) 전공은 한국 최고의 미국법 / 국제법 학사학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과목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한국법이 속한 조문 중심의 체계와 함께 법의 두 축에서 있는 논리와 판결 중심의 체계에 속한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조약, 국제기구 등 국제법에 대한 전공지식을 제공합니다. 미국법 분야에서는 미국 내 헌법, 계약법 및 형법이나 소송절차 등 기본법, 그리고 법을 다루는 데 기본이 되는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법철학 등의 수업들을 듣게 되고, 국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기 위한 지식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UIL 전공 내의 과목들은 크게 미국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법은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적용을 다루고, 국제법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질서와 국제공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이를 따르는 조약이나 국제기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이 두 가지 대분류 안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목은 Survey of American Law(미국법 개론)과 Public International Law(국제법 개론)입니다.

1학년	Survey of American Law(미국법 개론)
2학년	Legal Research and Writing, Legal Argumentation, International Child Law and Development
3학년	US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US Constitutional Law, US Contracts, US Criminal Law and Procedure, US Torts,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c International Law, Advanced International Law Seminar, American Legal Theory
4학년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Korean Law&Legal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Law, Legal Negotiation, Justice: Readings in Moral& Political Philosophy, Constitutional Dem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w&Development, Comparative Legal Systems, Law and Contemporary Issues, Special Topics in UIL, Lawyers in Society

대표 강의



UIL에는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수강해야 UIL을 전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전공의 꽃'들이 있습니다.

1·2학년 과정에서는 미국법의 전반을 공부할 수 있는 개론 수업 'Survey of American Law'가 있고, 국제법에 대한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 있는 'Public International Law'도 있습니다.

3학년 과정에서는 미국헌법 과목인 'US Constitutional Law'와 법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Great Legal Minds: the Men and Their Life Stories in the Law (미국법의 중요인물 탐구)'를 대표적인 강의로 뽑을 수 있습니다.

4학년 과정에 도달하면 'Constitutional Dem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비교헌정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깊게 탐구할 수 있고, 'Legal Negotiation'을 통해 협상 전문가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Justice: Reading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와 같은 과목들을 수강하며 사상 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UIL의 무대는 전 세계!

UIL 전공은 100%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일취월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UIL 전공 학생들의 무대는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물론,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들 모두 흥미와 열정만 있다면 UIL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과 미국, 세계를 무대로 하는 멋진 선배님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의 향연!

조문과 이론, 학설 중심으로 공부가 진행되는 한국법 체계와 달리 UIL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판례 또는 유사한 사례, 이성적 사고에 따른 합리적 판단, 그리고 논리의 힘이 중심이 됩니다. 미국법과 국제법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넓은 시야와 단단한 이성과 논리 체계, 그리고 명쾌한 판단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훈련은 훗날 사회의 정의를 꿈꾸고 약자를 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야를 만나도 본질을 꿰뚫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지성을 갖춘 UIL의 학생들은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학회 소개

Law and Advocacy(LnA) 모의재판학회

Law and Advocacy (LnA) 는 국제법을 공부하고, 각종 모의재판 대회에 출전하는 학회입니다. 저희는 매주 있는 정기 모임에서 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이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국제 모의재판 대회에 참가하여 각자가 좀 더 관심 있는 국제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Stetson (국제환경법), IHL (국제 인도법), WTO (국제무역법), Asia Cup (중재법) 등 다양한 종류의 국제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팀워크와 미래의 국제/미국변호사로서 필요한 실력을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w and Advocacy is an academic society where we study international law and participate in various moot court competitions. During our meetings, we focus on learning about legal theories and applying them to enhance practicality. Based on our learning experience, we participate in diverse international moot court competitions to focus on a specific legal field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more interested in. By participating in different kinds of moot court competitions such as Stetson, IHL, WTO, Asia Cup and etc., we not only build good team work, but also amplify skills that are essential for becoming future international/U.S. lawyers.

학회 소개

LWB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다른 국가의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미래 법률가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HIPS	HIPS(Handong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는 교내 유일의 지식재산 관련 학회로서, 교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및 역량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특별히, 구성원들의 이론적 지식 뿐만 아닌 실무적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엔 특허청이 주관하는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를 참가하고 미국 특허 업무 경험과 상표 출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내 지식재산 특강 주회를 통하여 학교와 필드 간의 인터랙션을 통한 IP기반 한동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본 학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법학부의 날(UIL Sizzle Day)

법학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선후배, 동기간의 정을 돈독하게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법학부의 날'을 통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의재판, 토론대회, 모의유엔대회 등 각종 대회 석권!

UIL 학생들은 WTO모의재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국제 모의재판대회에서는 국제법과 미국법을 영어로 공부하여 언어적 능력과 법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UIL 학생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어왔습니다

2006	• 모의유엔대회 (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07	• 모의유엔대회 (MUN) 최우수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우수상
2008	• 모의유엔대회 (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세계협상대회 우승(London)
2009	• 모의유엔대회 (MUN) 최우수상(KOICA단장상) 및 장려상
2010	• 모의유엔대회 (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우수상, 명예상
2011	• 모의유엔대회 (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2012	• 대학 간 모의재판 승리 (한동대vs한양대) • 국제환경법 모의재판 한국대표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우수상 및 장려상
2013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준우승(한동국제법률대학원 우승) • 모의유엔대회 (MUN) 우수상 및 장려상
2014	• 모의유엔대회 (MUN)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 및 최우수상 •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대상(법무부장관상) 및 최우수서면상
2015	• 유엔인권이사회 모의대회 외교부 장관상(1등상)

2016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최우수변론서상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 대학 (원)생 공정거래 논문경진대회 우승
2017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 스탯스 국제 환경 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동상 및 최우수 구술변론상, 우수 구술변론상
2018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및 최우수 검찰 변론서상
2019	• WTO국제대회 우수상(대회위원운영장상) 및 최우수 변론인상 • Asia Cup 국제대회 한국 대표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상, 최우수 변론인상 및 최우수변론서상 • 스탯스 국제 환경 모의재판 대회 우수상 및 우수변론인상
2020	• WTO 국제대회 우수상(대회위원운영장상) 및 우수 변론인상 • 해외직접투자중재대회 (Foreign Direct Investment Moot) 글로벌 라운드(Global Round) 진출 및 한국 최우수 성적
2023	• 21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장려상 수상

※ 졸업 후 진로 ※

UIL을 전공한 학생들의 진로는 경제학, 국제학 대학원 진학은 물론 로스쿨을 거쳐 미국변호사 또는 한국변호사가 되거나 기업과 NGO를 포함한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등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전공 내에서 익힌 미국법 그 자체를 이용하여 미국 로스쿨 또는 한동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ILS)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고,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특성상 UIL을 경영이나, 국제어문, IT와 복수전공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회계과정을 이수하여 상당수의 AICPA(미국회계사)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같은 NGO로 진출하거나 법학을 기반으로 OECD, UN, The World Bank 등 국제 인권, 경제기구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자신문사, 특허법인, 일반기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한동국제법률대학원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ILS)

미국변호사를 배출하는 법률대학원으로서 2016년까지 337명의 미국변호사를 배출하였고, 71%의 미국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졸업생 취업



UN 본부사무국 법무실, 법무법인 율촌, 대학교 법학교수, 삼성전자 법무팀,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 미래에셋, 대한항공, 공기업, 특허사무소, UNESCO, 주 시카고 총영사관, 인천공항공사, 한동공익법센터, 핸드스튜디오 등

졸업생 진학



해외 대학원

Georgetown Law School (조지타운대학교 법률대학원),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한동국제법률대학원), George Washington Law School (조지워싱턴대학교 법률대학원), London School of Economics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등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 졸업생 이야기 ✧



김하나(99) - Open Hands Legal Services in NY

뉴욕 크리스천 무료 법률서비스 기관

Open Hands Legal Services 소속 미국변호사 김하나입니다. 저는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미국&국제법을 가르친다는 한동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뉴욕에서 JD 공부를 하고 미국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동에서는 정직을 배우고 연습하였고, 로스쿨 지원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고 실천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절름발이 변호사가 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뉴욕에 입성하였습니다. 뉴욕에 와서는 로스쿨 생활 내내 기독교 법률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그런 기관을 만나길 기도했고 2009년에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유엔에서 경험을 쌓게 하신 후 뉴욕에 처음 문을 연 기독교 법률 센터의 소속 변호사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국의 작은 섬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정에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한동대에서 받은 교육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한동대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곳입니다. 나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품게 되는 학교, 그 이상의 교육 기관입니다.



신다혜(12) -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Juris Doctorate 과정

저에게 UIL 학부의 다채로운 수업들이 현재 로스쿨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UIL 의 여러 수업 중 평소에도 관심있었던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수업이 현재 로스쿨에서 선택 관심분야와 세부 진로를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수업을 통해 얻은 기본 법률 지식도 로스쿨에서 관련 분야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수업의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해외활동참가 기회로 스위스의 세계지적재산권 본부(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국가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여름방학동안 무료로 수업과 연수에 참여해던 것이 큰 경험과 배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야 했는데, 특허청에서 근무하시는 면접관님들께서 한동대생들은 영어실력이 항상 우수하다고 칭찬하시면서 학교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학부에 있는 동안 계셨던 우수한 UIL 교수님들로부터 인성과 지식 더 나아가 신앙까지 겸비한 인재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깨달음과 배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바라보며 함께했던 학부의 교수님들의 모습이 제가 꿈꾸던 변호사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큰 밑바탕이 되었고, 현재 로스쿨에 와서도 그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한동대 법학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늘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하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신입생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최정운(19)

1학년 때는 법학부 전공기초에서 경험한 ‘열린 토론의 장’이 좋아서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와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법학부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히 법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법이 가진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적인 부분을 쌓았고, Law and Advocacy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제무역에 관심을 가져, 방학 동안 ‘WTO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공부하면서 법 지식과 법리 구성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된 부분은, ‘법이 가진 힘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이었습니다. 법을 몰라서 손해 보기도 하고, 반대로 법을 잘 알아서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토론의 장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법학 공부이지만, 지금은 법학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동대에서 열심히 법학을 공부했을 뿐인데 학문과 가치 모두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남은 대학 생활이 기대됩니다. 졸업 이후에도 저는 이 배움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명환(18)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18학번 오명환입니다. 2019년도 2학년, 저는 전공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사회에 나가 잘 살고 어떤 학과가 미래에도 필요하며, 어떤 사라질 학과를 피해야 내가 잘 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공들이 나열된 핸드북을 동기들과 숙소에 앉아 펼쳐 놓았는데, 언급하였던 고민과는 별개로.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법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미국법과 한국법을 전공하여 비행기를 타고 오전에는 미국에서, 오후에는 한국에서 법정에서 멋있게 변론하는 미국 변호사를 잠시 상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 저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을 보고, “내가 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지만, “저분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앞섰습니다. 곧 이어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 저는 “나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법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사회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법학부는 Handong Bub Column, 모의재판, UNITWIN-입법캠프, 각종 인권·경제·여성·통일학회 등 단순 법 기술자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을 교수님들로부터, 동기들로부터, 학부 프로젝트와 수업으로부터 배우고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멋진 법률가의 탄생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상담심리 사회복지 학부

상담심리학 전공 / 사회복지학 전공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 성폭행, 자살, 집단 따돌림, 중독 등 안타까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은 상황입니다. 앞서 나열했던 이슈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이렇듯 심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전공에서는 아동청소년상담, 노인상담, 진로상담 등의 상담 트랙과 발달심리, 성격심리, 학습심리 등의 심리트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상담과 심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상담 트랙

아동청소년상담, 노인상담,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상담의 공통적인 이론과 기술을 배우게 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상담실습, 심리평가, 고급현장실습 등의 과목을 통해 이론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리 트랙

발달심리, 성격심리, 학습심리, 사회심리, 인지심리, 광고 및 소비자심리, 중독심리, 생리심리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나아가 요즘 기업체에서 각광받고 있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심리사회통계학 등은 복수전공을 택하고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다른 전공과 융합하기 좋은 분야입니다.



대표 강의



심리학개론

상담심리 전공의 가장 기초되는 과목으로서 전공선택 전에 주로 들으며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과목입니다. 인간행동에 대한 기초와 감각과 지각, 학습, 기억, 사고, 발달과 같은 다양한 인간 활동을 탐구하며 연구방법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합니다.

상담실습

상담심리전공 고학년들이 듣는 과목으로서 공감, 경청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담의 기본 기술들을 익히고 동료간의 상담실습이나 교실 밖의 실제 상담사례를 통하여 실습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습득해온 상담기술들을 훈련하는 과목입니다. 그외에 상담가로서의 윤리등 상담과 관련된 주 이슈들을 배우는 가운데 상담가로서의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며 정체감의 기초를 쌓는 과목입니다.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심리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과목들을 배우기 전에 수강하는 전공기초과목으로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다양한 주요 상담이론들을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독특하게 제시하는 인간관과 인간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상담기법 등을 익히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담의 이론적 기초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통합적인 상담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심리평가

상담과 심리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의 역사, 종류, 활용법, 보고서 작성 등을 배우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심리검사 활용능력을 훈련하는 과목입니다. 본과목에서 배우는 심리검사 중에는 지능검사, 객관적 성격검사, 주관적 성격검사 등이 있으며 심리검사와 연관된 윤리 및 검사결과를 기초로한 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연구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도 실전에서 적용해 볼 수 없다면, 배움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 전공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교수님들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석사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학회 활동

예술심리치료학회, 한동임상심리학회, 중독재활연구학회, 코칭네이버스, 사회 및 산업조직심리학회 등 모든 학회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Open Seminar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학부생 전체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수님과 학생 간의 관계와 사랑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사제 관계는 돈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교수님들께

서는 각자 한동대학교에 사람을 세우기 위한 소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오피스 아워(Office Hour)를 통해 학업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고,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언제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특징입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시고, 학생들은 교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학부입니다.

학회 소개

예술심리치료학회 (FAMM)	Film (영화), Art (미술), Music (음악), Movement (동작) 네 가지 예술치료 분과를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학생들은 모여서 기존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예술심리치료 분과에 대한 확장적인 스터디를 합니다. 또한 외부의 다양한 기관에 예술심리치료 봉사활동을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임상심리학회	한동임상심리학회는 미래의 Christian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어떠한 소양과 역량을 길러나가야 할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임상심리에 관련된 논문 리딩과 스터디를 하며 국내 및 해외 임상심리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는 매주 발제자가 준비한 주제로 진행되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자기성장의 기회를 갖고,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통해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 신앙공동체를 진행하여 이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기반이 다져진 임상가가 되기 위한 양육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해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보는 기회를 가지며 임상심리 및 상담 대학원에 진학 중인 선배들과 학문적, 신앙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칭네이버스	코칭(Coaching)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학회입니다. 함께 코칭을 배우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포항 지역 아이들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중독재활학회	중독재활학회는 중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독된 개인 및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회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독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고 관련 기관 방문과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통계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하여 연구 및 자료조사에 필요한 역량을 기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게재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산업조직심리학회	사회및산업조직심리학회는 매 학기 한 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이해주 교수님과 함께 학기당 1개의 영어 학술논문게재를 목표로 공부합니다. 인사선발 현장에 관한 연구, 의무교육상황 시 교육유형(오프라인 vs 온라인)에 따른 지루함 상태 차이, 지루함과 종교활동 및 자기통제활동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실험연구를 진행합니다. 매 주 깊이 있는 학회모임을 통해 학술적인 성취를 이루고, PRS와 삶 나눔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추계학술대회

상담대학원의 행사로,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해결중심단기치료, 코칭 등 다양한 주제의 오픈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졸업생 특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에 2회 이상 열립니다.

Field Trip(기관 방문)

학기 중 정신병원, 도박치료센터, 건강강정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우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례발표회

교수님들이 슈퍼바이저가 되셔서 학생들의 상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세미나이며, 발표자는 자신의 상담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한 회기의 상담 내용을 전부 타이핑하여 그것을 위주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한 학기에 4회 정도 진행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상담심리학 전공' 학생들은 전공을 살린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졸업 후 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상담심리학 전공 학부생이 상담기관이나 치료사(음악치료, 미술치료, 특수치료 등)로 곧장 취업하는 것은 어렵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깊이 한 후 석사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석사의 경우 대개 2~3년 동안 공부하게 되며,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3년 이상 소요됩니다. 대학원을 마친 후에는 전문상담사로 취업을 하거나, 연구원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상담관련기관

학교상담교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 Center(학생위기상담 서비스), 보호관찰관,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등

기업

기업 상담실(포스코, 삼성전자 등), LG유플러스 인사담당, CJ 브랜드마케팅, 삼성전자 HR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Boston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yracus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Graduate School 등



※ 졸업생 이야기 ※



**목정후 (12) - 세브란스병원 정신
건강의학과**

저는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을 하고 있는 목정후입니다. 병원에서는 조현병, 기분장애 등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만나 치료를 지원하고 심리평가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졸업생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가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만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는 각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각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는 각자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제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교수님들 및 친구들과 이러한 고민을 나누며 소망을 키웠던 기억은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수 (09)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Ph.D. 과정**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학부,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미주리대학교에서 Health and Rehabilitation Science 박사 프로그램 유학 중입니다.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이라는 슬로건을 가슴 속에 간직한 채, 다양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약은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공부하는 중독 분야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영향력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로 인한 고통의 깊이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연구하고, 밝혀낸 바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초체력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갖고 닦았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저희 학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박상하 (16)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는 지식 그 이상의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는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우리나라 권위자이신 교수님들 밑에서 학문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분야가 다양하시기에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찾아 나서기도 매우 좋습니다. 배움은 강의실을 넘어, 해가 지고서도 계속됩니다. 교수님들마다 지도하시는 다양한 학회를 통해 연구를 하기도, 논문을 작성하기도, 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타 학교 학부생으로서는 누리기 힘든 분명한 학업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학부 특성상 먼저 자신에 대해 잘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요즘 자신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메타인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곧 타인에 대한 통찰과 사랑으로도 이어집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게 될 뿐더러, 그 아픔의 현장에 직접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우리를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통로로 사용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함께할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대접해주시고, 선배들이 후배들의 간식을 챙겨주며, 학부내에서의 만남은 곧 신앙의 교제로 이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이로 이어집니다. 팀플에서 만난 사이에서 함께 일하게 되고, 서로의 경조사를 함께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은 학부가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가진 모두가 이곳에서의 배움을 열망하며, 정진하기 바랍니다.



상담심리 사회복지 학부



상담심리학 전공 / 사회복지학 전공

"주님 사랑!
사람 사랑!"



가난의 대물림, 빈익빈 부익부, 남녀차별, 임금 불평등, 사회의 양극화, 노사 간의 갈등,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모두 다루는 전문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도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키워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지정 17과목(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신청에 의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육부 지정 17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3항의 규정)하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가 사회복지사 공무원 공채나 복지시설 또는 기관의 전문가 임용 시, 사회복지 대학원 진학 시 및 해외 유학 시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사회복지실천론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철학 및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 가치 및 윤리를 살펴보고, 실천 과정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회문제론

다양한 사회문제와 그 사회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사회문제 분석과 이론적인 관점을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사회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리적, 실천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수행 과정, 정책 비용, 정책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책 대안 제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과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문제 확인, 설계, 실행,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생생한 사회복지 현장 경험!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지역사회복지론 등 많은 수업들에서 강의와 동시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비 사회복지 사로서 직접 내담자를 만나볼 수도 있고, 현장에 계신 여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보는 것을 굉장히 독려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졸업하기 전에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회를 통한 깊이 있는 전공 공부!

한동대 사회복지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갑니다. 특별히 학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특별한 꿈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함께 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조사분석학회, 정신보건학회 등의 학회에서 전문적인 학습과 조사 실습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학회 소개

<p>사회조사분석학회 (RESEARCH)</p>	<p>한동대학교와 포항시 기관에서 의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사회 현상을 조사, 분석, 해석을 하고, 자료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SPSS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 데이터를 입력하는 법 등을 전반적으로 배워가는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p>
<p>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RISING)</p>	<p>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회복관점을 가지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부터의 회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학회입니다.</p>
<p>트라우마회복학회 (TRUST)</p>	<p>트라우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연구동향, 치료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매 학기 말 함께 공부할 학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p> <p>[주요 활동] - Trauma 스터디 - 관련 논문 및 책 스터디 - 통일 프로젝트 진행</p>
<p>한동가족학회</p>	<p>한동 가족학회는 가족 스터디를 통해 가족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련 연구활동 및 실천활동을 진행하여 교내와 포항 지역의 건강한 가족관계 구축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p>
<p>카리스</p>	<p>카리스는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관련 스터디 및 토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병원 자원봉사, 소아암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회원 간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관심 분야에서 함께 이론적 지식과 나아가 임상 실천에서의 실무적 자질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p>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Field Trip (사회복지기관 방문 프로그램)

사회복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 사회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졸업 후 진로 ※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넓습니다. 특히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각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상담, 치료, 사회조사, 정책심의, 프로그램 평가 등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개인 개업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 할 수 있고, 전문대학의 사회복지 교과목 과정의 강사 또는 현장실습 슈퍼바이저가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공직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관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 전문적 기술 개발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회복지기관 및 NGO 기관 정보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이랜드복지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밀알복지재단, 한국컴패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

졸업생 취업



사회복지기관

산재장애인연합회, 전주하늘나무복지원, 태화 샘솟는 집, 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좋은 이웃 마을 노인복지센터,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홀트일산복지타운, 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재단,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수지노인복지회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번동 코이노니아,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경북노인보호복지재단, 정신보건사회복지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 용인정신병원 등), 의료사회사업 인턴(신촌세브란스 병원, 부산백병원)

NGO기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기아대책, 가나안 농군학교 등

기업/사회재단

재단법인 두레원, 이랜드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밀알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온누리복지재단, 지구촌 복지재단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 사회복지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Boston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yracus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Graduate School 등

※ 졸업생 이야기 ※



장세일(12)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사회의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제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사회복지와 상담심리학이 가장 적합한 전공이라고 느껴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공부하며 사회복지의 전문지식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가장 변화했던 부분은 제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사회복지와 상담심리학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직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수록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전문성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전공 지식을 배우면서 동시에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 그리고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여러분들이 품은 꿈을 펼쳐나가기길 응원합니다:)



서엘리(12)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현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업하여 심리, 사회, 정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저에게 상담심리와 사회복지 수업은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돕는 사람’이라는 스스로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에 대한 편견이 깨어졌고,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 자살을 생각하며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환자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환자들이 저를 통해 건강한 모습과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사명감을 깨닫게 됩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좋은 교수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함형진 (20)

한동대학교의 '배워서 남주자' 정신은 제가 추구하는 배움에 적합한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전문성 있는 도움을 주시고자 하셨고, 이를 위해서 늘 배움을 가까이하셨습니다. 저도 온기가 담긴 도움을 주고 싶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는 한동대학교라고 믿으며 이곳에서 성인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와 상담심리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인간미 넘치는 학문'을 통해서 저에게 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수업 시간 외에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경험과 조언은 저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학회를 통해 다양한 서적과 정보를 공부하면서 많은 동역자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로 '배워서 남주자'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데, 직접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지성 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영성 교육을 경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더욱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상대방의 삶을 살아보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육을 통해서 어디서나 도움을 주는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는 지혜와 감동이 많습니다. 함께 한동대학교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만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세린 (17)

저는 한동대학교의 독특함에 이끌려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도 이 안

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체험하려고 하면서 제 나름의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갔다면 제가 절대 체험해보지 못했을 경험들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여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동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학교입니다.

저는 저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슬로건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 사랑! 사람 사랑!' 인데요. 저는 원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슬로건을 본 후, 그저 나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마음가짐을 배우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사회복지라는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저희에게 학문을 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며 다독여주시기도 하고 때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옆에 있는 동기들은 자신의 학업과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가기 위해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과 동기들을 통해 학부와 학교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와 같이 서로를 아끼며 '배워서 남 주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한동에 와서 제가 느낀 감정과 깨달음들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정보학 전공 / 공연영상학 전공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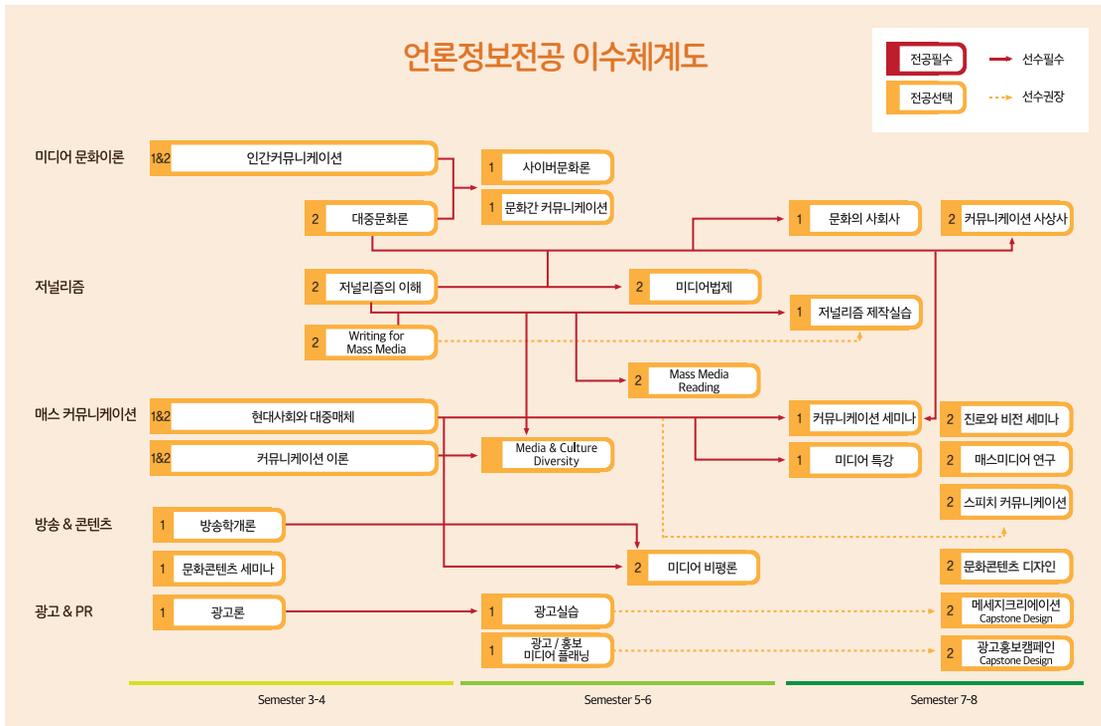


언론정보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관계 형성과 정보 전달, 나아가 사회 전반의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저널리즘, 광고·홍보, 방송, 문화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전개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모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정보학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학문적 논의를 학제간의 융합을 통해 고찰하여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을 진단하고, 미래의 미디어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해 모색할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 신문, 방송, 언론
- 광고, 홍보, 문화기획



대표 강의



광고홍보캠페인

실제 외부업체를 과목 클라이언트로 초청하여 한 학기 동안 해당 업체의 광고/홍보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한동대의 대표 프로젝트 과목입니다. ‘광고홍보캠페인’에서 그간 한국니베아 ‘데오도란트’, 기아 ‘모닝’, SK 와이번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 숙명여자대학교, 포항 스틸러스, 보리피자 ‘팜스발리’, LG Optimus 핸드폰, 핸드업 ‘더치커피워터’, FC서울, 포항시 도시브랜딩,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경상북도관광공사 등의 통합브랜딩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널리즘 제작실습

신문, 잡지, 방송용 기사문과 스크립트 구성, 작성, 편집 등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대중문화론

대중과 문화의 의미를 진지하게 접근한 영국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전통에 따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대중문화의 의미, 역사, 산업 등에 대해 기호학, 구조주의, 담론 이론, 정치경제학 등의 다양한 사회이론을 통해 학습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깊은 성찰과 뜨거운 토론!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 전공은 학생들에게 미디어, 문화, 예술 등의 윤리 문제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즉각적인 성과나 물질적 성공에 집중하기보다 문화콘텐츠가 가지는 근본적인 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물음을 던지는 교수님들께 배운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함께 뜨겁게 토론할 수 있는 선·후배,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커뮤니케이션학부는 20년의 짧은 역사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학계, 언론계, 일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님(커뮤니케이션학부), 김창욱 교수님(GLS 학부)과 미국 굴지 대학의 교수를 다수 배출해냈으며, KBS 공용조 기자, 최세진 기자, 장성길 기자, 이형일 PD, 박인석 PD, 심인보 아나운서, JTBC 이희정 기자, 이지혜 기자, 국민일보 황인호 기자, YTN 이은지PD, 연합뉴스 홍지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민지혜 기자, SBS 정재원 PD, kakao뉴스팀 임광욱 등 언론계 일꾼을 배출했고 JYP, SM 등 기획사와 삼성, 현대, LG, SK, 농협, 네이버, 카카오페이, 제일기획, HS AD, 루이까뜨즈, 언론중재위원회 등 일반기업에 진출한 동문을 배출하였습니다.

학회 소개

언로너스(Alone? Us!)

'혼자'가 아닌 '함께' 언론 관련 공기업, 미디어 관련 기업의 시험 및 입사를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کم케 MT

커뮤니케이션학부의 학부 MT는 자타공인! 한동대에서 가장 뜨겁고 재미있는 MT입니다. 학부생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밤새도록 각자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کمON WEEK

가을학기마다 열리는 '커뮤니케이션학부 주간' 행사로 1학년 새내기들이 학부 선택에 앞서 커뮤니케이션학부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선배들이 기획하는 축제입니다. 선배특강, 진로상담 뿐만 아니라 공연영상학과와 공연이나 영화제를 열어 한동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졸업생들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TV, 라디오 등 영상매체 분야와 신문, 잡지, 출판 등 인쇄매체 분야의 기자, 편집진, 프로듀서, 아나운서, 제작자 그리고 뉴미디어 분야의 프로듀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와 홍보 계통의 대행사들과 일반 기업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며, 각종 NGO와 정당 등에서 홍보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졸업생들 가운데, 국내외의 대학에서 교수로 활약하는 동문들이 늘고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언론계의 방송사 및 신문사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MBC, KBS, SBS, JTBC, CBS, CTS, CGNTV, 극동방송, 뉴스1, JTN 미디어 등

광고 기획사 및 제작사

제일기획, McCann Worldgroup Korea, MPR Vision, 미디컴, 원더월드 스튜디오, 공드오션 커뮤니케이션즈, 이노레드, 플라잉트리기획 등

NGO기관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탈북여성연대 등

기업 및 정부기관

LG전자, 삼성전자, 국민연금공단, 국회사무처, 현대카드, 현대건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히타치케미컬, 티웨이항공, 지멘스, Kakao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해외 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Univ. of Alabama, Univ. of Missouri Univ. of Massachusetts 등

※ 졸업생 이야기 ※



김노현(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가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다양한 미디어 중 방송 내용과 인

터넷 내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다니며 관련 직종 중 콘텐츠 제작보다 미디어 경영과 법제에 관심을 가져 관련 부문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심의(審議)는 '심사하고 토의함'을 뜻합니다. 특히 콘텐츠 심의는 항상 표현의 자유, 다양성,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등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학부 커리큘럼을 통해 텍스트 읽기와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글과 영상 콘텐츠를 만들며 콘텐츠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비평과 법제처럼 우리 사회 문제와 밀접히 엮인 미디어 콘텐츠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통찰력도 길렀습니다.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슬로건인 '맑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 무엇이 좋은 콘텐츠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부 교육은 단순한 전공 지식 이상으로 심의 실무와 밀접히 엮여있고 지금도 제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대외협력 부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실무를 익히고 있습니다. 재학생 시절 신문사, 학회, 팀장 등 학생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기억들이 사람을 대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음을 느낍니다. 학부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동에서의 가장 큰 수확은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자 한 의지였습니다. 한동에 오실 후배님들도 단순한 학문적 목표를 넘어, 이곳에서 저마다의 한동인의 생각을 경험하고 본인만의 것으로 승화하기를 바랍니다.



정재원(11) - SBS 시사교양본부 PD

저는 SBS에서 시사교양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창작'하는 인간이 되고 싶었고 나름 그 언저리에서 일하게 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동대에서 보낸 4년이 저의 지적, 인적 토대를 단단히 다져 준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대학교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인 '무전공 입학'을 저만큼 한껏 누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저의 본래 전공은 언론정보학과 경제학이지만, 원체 남 사는데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 전공 외에도 법학, 컴퓨터공학 등 타 전공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배웠던 것들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이슈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에 보탬이 되고 있고, 또 당시 만났던 타 전공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기획과 취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한동 '대학교'에서 '대학'이라는 큰 학문의 존재를 어렵풋이나마 느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열심히 풀었던 수능 문제집 너머, 더 깊고 넓고 오래된 사유의 세계가 있다는 것! 작은 규모의 수업에서 언론학부 교수님들과 맺을 수 있었던 인격적 관계, '맑은 콘텐츠'라는 순수한 가치, 친구들과 함께 책 읽고 토론했던 시간을 통해 저는 더 큰 세계를 만났고, 또 성장했습니다.

업자들조차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한동대에서 이야기하는 '맑은 콘텐츠'나 '정직' 같은 가치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촌스럽다는 것은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클래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클래식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한동대학교에서 넓고 깊은 사유의 기쁨을 누리시고, 현장에서 저와 동료 언론인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임하늘 (20)

‘소통’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었던 어린 시절의 저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하여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학부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학부는 제게 기대하던 그 이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언론정보 전공 학생들은 저널리즘, 홍보,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교수님들께 진정으로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우리는 왜 세상을 지금까지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 나아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원론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 토의하며 내가 지금껏 당연히 ‘진리’라 생각했던 나의 사고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색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학부생들과 생각을 나누며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의 힘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언론정보를 공부한다는 건 세계 있어 ‘세상을 일관되게 바라보던 나의 시각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 가운데 도출된 배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학부생을 넘어서 세상의 여러 면을 알아가며 수용할 때 소통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는 듯합니다. 세상은 이제 미디어와 뿔레야 뿔 수 없습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수많은 분란과 갈등은 우리 세대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자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년간 학부생들과 세상의 이면에 대해 토의하고 탐구했던 배움의 장은,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 안에 자리하여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전심으로 관찰하고 미디어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할길 기대하는 여러분을 커뮤니케이션학부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혜진 (18)

저는 한동에 오기 전부터 ‘정직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언론인’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입시를 하면서 한동대학교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접하게 되었고, 미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비전을 품으며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비전은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언론정보학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정보 전공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에 대해 다루면서 여러 학자의 학문적 이론 지식은 물론이고,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힘 역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전공 공부를 하며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언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동이 말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실천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나요? 언론정보학 전공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는 맑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 아래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친구들과 공부하며 맑은 콘텐츠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변화시킬 여러분 모두를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언론정보학 전공으로 초대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정보학 전공 / 공연영상학 전공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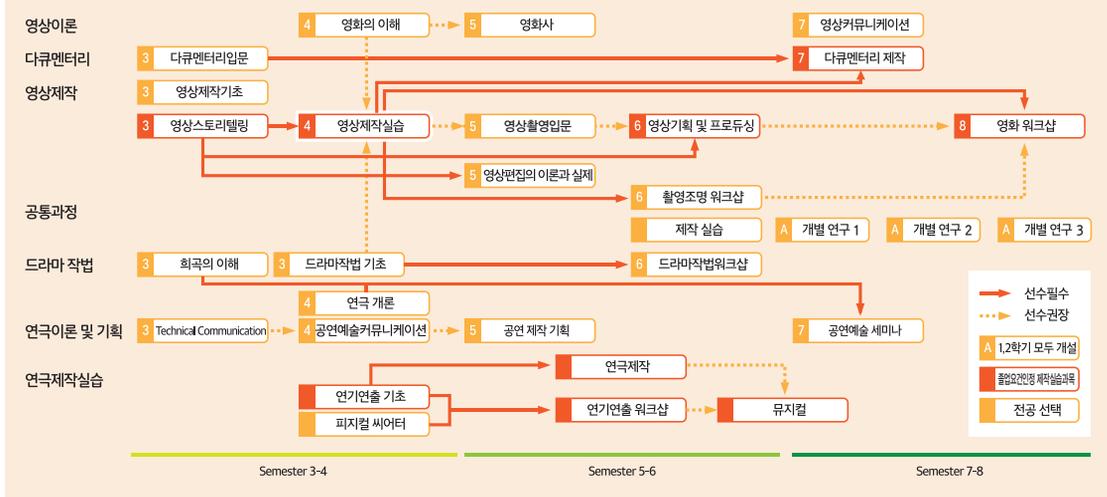
한동대 공연영상전공에서는 공연과 영상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세상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무대 위에서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영상을 단순히 찍고 만드는 기술 뿐만이 아니라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공연영상전공에서의 작업은 다양한 재능과 성향들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구상 해야 하고, 그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을 구체화하는 사람, 작품을 무대 위 혹은 카메라 속에 어떻게 담아내고 다듬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관객에게 어떻게 선보일지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협동과 헌신으로 한 편의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에 공연영상전공은 혼자서 빛나는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사람들과 자신의 꿈과 생각을 소통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더 어울리는 전공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공연영상전공은 공연 트랙과 영상 트랙의 과목들이 분리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두 트랙의 과목들을 이수하다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과 감성이라는 공통점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4학년 때 작업하는 졸업 작품을 위해서는 공연과 영상 중 자신이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2학년 때 기초과목을 두루두루 들어보고 자신에게 더 맞는 분야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공연 트랙은 공연을 위한 극본을 쓰고 기획을 하며 연극과 뮤지컬을 직접 연출하고 출연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영상 트랙에서는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와 다큐를 찍고 편집을 하여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공연영상전공 이수체계도(제작실습과목 4과목 이상 수강필수)



대표 강의



공연수업

(연기연출기초, 연기연출 워크샵, 뮤지컬, 연극제작)

드라마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극작의 차원, 공연 기획의 차원, 무대 연기의 차원, 무대 극 제작의 차원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 공연 사례를 학습합니다.

영상트랙 수업

(영상스토리텔링, 영상제작실습, 영상기획 및 프로듀싱, 다큐제작, 영화워크샵, 촬영조명워크샵, 영상편집의 이론과 실제)

영상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워 구체적인 작품제작을 위해 기획을 하고, 영상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보는 영상 트랙의 전공실습 수업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경험을 통해 실전을 배우다!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의 공연영상학 과정은 타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영화학과, 연극학과, 방송학과 등으로 나뉘어 있는 수업들을 공연영상학 전공을 통해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모든 제작 수업에서는 배우, 기획, 연출 스텝 등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자신의 적성을 살린 진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각 연극, 뮤지컬 수업에서는 공연을 직접 만들어 내며, 젊은 연극제 등 전국의 우수 공연제에도 참석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영상 제작 수업의 경우 영화, 다큐멘터리를 기본으로 심화 영상 제작 수업 등을 통해 영상제작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꿈을 향해 공부하십시오. 다행히 우리대학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 이과였던 문과였던, 좌뇌가 발달하였거나 우뇌가 발달하였거나를 상관하지 말고 하고 싶은 전공공부를 시작하세요. 언론정보 문화학, 특히 공연영상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시작하면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공부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연영상전공, 강두필 교수 인터뷰 中)

학회 소개

<p>CHERK (영화제작학회)</p>	<p>영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영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다양한 이론 공부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학회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영화 제작을 완성하는 것이 학회의 주요 목적이며 제작한 영화를 영화제 등에서 상영하기도 합니다.</p>
<p>KHAZON (영상학회)</p>	<p>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회원들이 영상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에 있어 어떤 가치관을 콘텐츠에 담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회이기도 합니다.</p>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연극 또는 뮤지컬 교내 공연 학기 말이 되면 공연실습 수업에서 한 학기동안 연출로 배우로, 스텝으로 하나 된 학생들이 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를 펼칩니다.

HDFF한동영화제 한동영화제에서는 매년 봄 지난 일년동안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 작품들 중 우수작들을 선정하여 상영하는 영상트랙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젊은연극제 참여 5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는 연극제로서 한동대학교도 매년 참여해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공연학과 학생들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방학중 대규모 단편영화 프로젝트 워크샵 매년 여름/겨울방학에 이뤄지는 단편영화 실무워크샵으로, 수업 때 이뤄지는 통상의 학생 프로덕션보다 보다 더 큰 규모로 다양하고 많은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영화제작과정의 흐름과 익히게 됩니다. 고학번의 학생들이 각 분야(연출/제작/촬영/조명/음향 등)의 책임을 맡아 저학번의 학생들과 실무작업을 하며 교육도 겸하는 워크샵입니다



※ 졸업 후 진로 ※

공연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방송사, 공연 제작, 기획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으로는 PD, 아나운서, 배우, 작가, 광고기획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한동의 졸업생들은 공연 제작, 기획사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나 PMC와 같은 극단에서 연출과 기획 또는 배우나 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고 분야에서는 졸업생들이 유수의 광고 기획사, 제일기획, HS AD 등 대행사에서 일하고, 방송사, 프로덕션 등 일선에서 감독과 PD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방송사

KBS, MBC, SBS, 에스비에스홀딩스, JTN 미디어 등

공연/영상/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 로드픽처스, CJ E&M, PBC프로덕션, 극단미추, 나인후르츠미디어, 드림빌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한국연극협회, 한국세라프, 미디컴, 규장문화사, 제일기획, 원더월드 스튜디오 등

※ 졸업생 이야기 ※



임예은(14) - CGNTV

안녕하세요!

저는 CGNTV에서 브랜딩과 콘텐츠

츠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홍보 업무는 좁게는 프로그램 홍보부터 넓게는 CSR까지, 업무의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PD, 디자인팀, 촬영팀, 외주업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항상 열려있었던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들의 오피스에서 지혜를 구하며 고민했던 시간,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공연과 영화를 제작했던 경험은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지혜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의 배움의 시간들과 다양한 경험들이 얼마나 값지고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과 영상을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커리큘럼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면 홍보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공연과 영상 두 가지를 모두 배웠기에 이를 잘 활용해 오히려 행사들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맑은 콘텐츠'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더욱 실감하는 중입니다.

후배들과 함께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변화시킬 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준형(11) - CBS 씨리얼

유튜브 채널 씨리얼은 청년들이 알

아야 할 뉴스를 청년의 눈높이로,

책임감을 느끼고 영상 콘텐츠로 만드는 채널입니다.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21년 현재 저희 팀은 4명의 제작자와 1명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팀으로는 한없이 작은 규모로 일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에 한 명의 피디가 많은 것을 담당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혼자서 영상의 기획, 섭외, 촬영, 편집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거운 일처럼 보이지만, 한동대학교 안에서 영화를 찍으며 배웠던 촬영 현장의 경험은 입사하자마자 바로 피디로서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총 5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타 대학 영화과 학생들이 개인 연출 작품을 많으면 2편 정도 찍지만 한동대 안에서는 지원 사업 등 여러 기회가 있었기에 다작의 제 이름을 건 영화를 연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동대의 전공 선택의 자율성 덕분에 입시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디자인을 복수로 전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뉴미디어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지금, 영상 제작 더불어 전공자 수준의 디자인 실력은 남들과 확실히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부족한 부분은 있을진 모르지만, 한동대학교는 세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송명주 (21)

고등학교 시절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한동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에 입학하여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 기자라는 저의 꿈을 입시를 위해 만들어냈던 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매시간을 고민하던 때에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슬로건인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고 제가 전공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공수업을 통해 미디어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직접 제작해보며 세상을 향한 저의 고민과 생각을 녹여내고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언론, 광고, 문화,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미디어는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 맑은 콘텐츠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한발자국씩 내딛는다면 분명 맑은 콘텐츠를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입학 당시에는 굉장히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문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과 비전을 품은 대학교 선배, 동기, 후배들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거창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던 저 물음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맑은 콘텐츠로 세상의 변화에 함께 힘써주실 여러분을 커뮤니케이션학부로 초대합니다.



고나리 (16)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모두가 서두르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과 연결되

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계속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보니 내신을 위해 외우던 문학작품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읽던 전공 새내기 4월이 가장 생생합니다.

무지로 무장하고 외면했던 사실 앞에 고개 들고 제대로 서게 만든 눈빛들을 기억합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갈 때부터 다시 강의실을 나서는 지금껏 유효기간 없는 지식을 알려준 인생의 선배이자 참 선생님들,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준 학부 친구들의 얼굴이 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준 듯 합니다.

전과없이 8학기를 공연영상학과에서 영상 작업을 하면서 매번 작품을 만들지만 한 두페이지의 설명으로는 항상 그 과정을 다 담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꿈꿔왔던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그 과정 속에서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은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삶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공부를 했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타인의 이야기로 치부되며 내 삶의 배경음악 정도로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책을 통해,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읽고 들으면서 제 한 생으로 다 살아보지 못할 삶을 경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앞에 더해 태도까지 포함하는 지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고민을 해나가며 성장할 커뮤니케이션학부를 꿈꾸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공계열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 전공

도시환경공학 전공

기계제어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전자제어공학 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시각디자인 전공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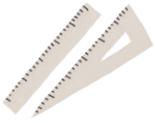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공간환경 시스템 공학부

건설공학 전공 / 도시환경공학 전공



"이웃을 위한
공간 환경설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크게 두 전공인 '건설공학'과 '도시환경공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공학은 건축과 토목으로 도시환경공학은 도시와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부적인 개별분야가 아닌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인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설계, 구조지반, 수공학 등을 공부하여 기본소양과 실무 능력을 겸비합니다. 나아가 공간의 역사 등 전공과 관련된 인문학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 또한 전공학습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축은 인류역사의 시작부터 미래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활동이며, 인간의 다양한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면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철학적 사고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목은 생태환경 관련 의 과목들과 환경공학, 구조공학, 지반공학, 유체공학 등의 기본 공학들을 공부하고 도로·철도, 공항, 항만·해안, 교량, 터널, 댐, 하천 등의 토목인프라 건설을 위한 과목들을 배웁니다. 더불어 종합공학설계, 세미나, 인턴십 등을 통하여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공학현상에 대한 직관과 종합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건축

건축은 U Theory와 같이 건물을 설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사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외형에서부터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과 내부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외형을 결정하는 방법 등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설계 스튜디오마다 접근해 나가는 방법 등을 달리하여 다양한 설계의 방향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특화과정: 전공의 최소 학점인정 기준인 33학점 이상을 건축특화과정의 교과목에서 취득하고, 그 중 건축설계과목의 필수 24학점(건축설계1, 건축설계2, 건축설계3, 건축설계4, 건축설계5, 단지계획및설계실습)을 이상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건축특화과정은 건축 심화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수하는 경우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건축관련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건축특화과정>의 전공표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토목

토목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본적인 토목 지식을 폭넓게 배우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탕이 된 커리큘럼으로 토질공학, 해양공학, 구조공학 등 토목 분야의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MATLAB, MIDAS 등 실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루게 됩니다.

대표 강의



건축설계1

건축가는 삶에서 느낀 바를 공간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보고 느낀 것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적절성을 검증한 후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구조역학

구조역학은 건축물의 물리적인 움직임과 구조적인 분석의 기본원리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건축계획총론

건축물은 학교, 병원, 오피스, 도서관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각기 그 성질에 따라서 필요한 포맷이 있는데 건축계획총론은 이러한 포맷들을 배우고 익히는 강의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전공 공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학부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중점 또한 그 가치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한 동대학교에서는 건축과 토목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가치를 가르칩니다.

Change the World의 비전을 실천하는 한동대 동문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한동대 동문들이 세상을 바꾸자는 비전을 품고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 나아가 건설회사인 NIBC그룹, 한동E&C 주식회사, NIBI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특히 NIBC 그룹은 한동대 재학시절 NIBC (Not I But Christ)라는 성경공부 단체에 소속하여 말씀을 통독하고 교육과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워 나간 동문들이 의기투합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정직한 경영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 하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을 하고 있으며, 수익으로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는 유치원을 세우는 등 교육 사업도 함께하며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서 칭찬받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동대 동문, 베트남·태국·캄보디아에 보금자리와 교육의 희망을 심다!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Psalm 133:1)



학회 소개

한동건축학회 (HIA)	<p>순수 건축을 공부하는 한동대 유일의 건축학회입니다. HIA는 Handong Institute of Architecture의 약자로 건축에 관심이 많고 색다르게 여러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부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로 건축에 관련한 심화 연구, 토론, 전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공모전 및 실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함으로써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들과 끊임없는 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에 관한 고민 상담, 경험을 통한 조언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p>
아쿠아젠	<p>토목공학학회 아쿠아젠은 자연과학의 기초 이론을 토대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등의 분야를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러한 토목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기초를 공부하고, 수치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툴인 '매트랩' 등을 교과 이외의 학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과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신 선배님들과 교류하며 조언을 듣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p>
SEEBIM	<p>BIM학술 동아리 SEEBIM은 토목, 건축, 도시라는 전공 분류에 상관 없이 모든 분야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기반해서 지능형 공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기본 교육을 통해 BIM을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AEC산업의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발표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BIM 공모전에 나가서 본인의 연구 성과를 적용시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p>
COHA	<p>COHA(Cornerstone of Handong Architecture)는 건축의 기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설립된 건축학회입니다. 건축의 컨셉과 표현기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모델 제작, 스케치, 가상 표현(2D&3D Drawing)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표현방식을 연습해보고, Design Concept Study와 Case Study를 통하여 다양한 건축가들의 건축언어와 표현 기법들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들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매 학기 새로운 프로젝트와 건축의 기본에 관한 공부를 하고, 매주 학회원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건축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p>
HANGRI	<p>HANGRI(Handong + Agriculture)는 n차 산업이 도래하더라도 항상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한동대학교에서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食)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고 "Why Not Change The World?" & "배워서 남 주자"를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HANGRI는 농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농업 전반의 기술을 습득하여 장차 이 분야의 진출은 물론이고 세계로 시야를 넓혀 가 난하고 햇빛은 개발도상국, 북한 등 국가와 지역들을 도와주자는 비전을 가지고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하는 농업학회입니다. 마지막으로, HANGRI는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농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경험한 후, 현재 농업 트렌드의 강점과 약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농업 분야에서의 발전에 기여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졸업생 선배님들과 학부 교수님, 외부 기업 등의 교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p>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졸업설계 전시회

주로 졸업 전 마지막 설계 수업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교내 뿐 아니라 포항, 서울 등의 지역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만원의 사랑 프로젝트

졸업생들이 소정의 금액을 모아서 재학생들이 뜻있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사입니다. 학회 지원금이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스톤

학생들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동안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고 내용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수학캠프

주로 토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선배들과 교수님께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행사입니다. 보통 겨울방학에 팀을 짜서 진행하게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졸업생의 진로는 크게 대학원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미국과 유럽 상위 대학원에 진학 중이고 건축과 토목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현장에 있는 졸업생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적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정부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공기업 LH공사, SH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사기업 건설회사,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회사

졸업생 취업



건축 관련 기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건설, 서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PARK, NIBC, 건보엔지니어링, LK엔지니어링, 태조엔지니어링, 유앤디엔지니어링, 포항아스콘, 문화건축사무소, ENO건축설계사무소, 솔빛건축사사무소, DSK엔지니어링, Mott MacDonald 등

연구소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촌개발공사, 수자원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학교 건축학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학교 도시 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동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UCLA),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Manchester 등

※ 졸업생 이야기 ※



정의홍(00) - ㈜모라비안앤코

저는 모라비안앤코라는 브랜드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로컬 브랜딩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공간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전략화 하는 총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브랜딩과 다른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대생인 제가 이처럼 여러 분야의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동대 안에서 다양한 전공의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도시와 건축을 함께 통합적으로 함께 배울 수 있는 학부의 특성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적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영역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전략화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한동대 안의 여러가지 활동들(동아리 활동, 팀 활동, 공모전 도전)을 통해 다른 전공(경영, 디자인 등)의 친구들과 활동 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건축, 도시, 조경, 시각디자인,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여러 영역의 경험과 지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재들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동의 문화와 제도들이 이러한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합니다.



황지일(12) - 한국도로공사

우리는 작게는 방 안에서부터 크게는 건물, 거리 나아가 도시와 같이 모든 여러 형태의 공간안에 각각의 구성원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는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함께 살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설계한 대로 타당하게 실현시켜 보고, 이것이 구조, 재료 및 환경 등 공학적으로 타당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을 넘어 도로, 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한 도시를 계획하여 구성원들이 만족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학문을 배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업은 어느것 하나 혼자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팀과제와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배워가고 여러 공모전 같은 곳에서 경쟁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조직속에 우리가 원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부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 졸업생들은 대기업, 스타트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으며 더 심도있는 학문을 배우고자 대학원 진학을 하는 등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학부중 유일하게 교내 학부전용 건물을 최근 건립하여 학부생들이 심도있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문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을 위한 지속가능 공간설계'라는 우리학부 슬로건에 가슴이 뛰었듯 여러분들도 우리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통해 세상에 선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준표 (20)

한동대학교의 슬로건, 'Why Not Change the World', 을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학부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는 저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 외에 모든 인프라적인 부분도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고, 다리를 짓고 댐을 만드는 등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한동대학교에 들어와 꼭 토목을 전공하여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현재도 열심히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는 매년 학부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동문회 사업과 전공 수업에서는 배우기 힘든 툴을 알려주는 툴스터디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툴스터디 같은 경우 매 학기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가장 많은 툴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고민하고 계시고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꼭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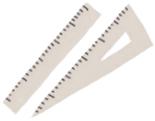


공간환경 시스템 공학부

건설공학 전공 / 도시환경공학 전공



"이웃을 위한
공간 환경설계"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원절약적인 삶, 빈부차이 및 지역격차해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계획 등의 시각에서 도시환경공학은 실용적이고도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도시환경공학 전공을 통해 학생들은 생태환경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 토지 이용계획, 도시구조론, 주택 및 주거론, 환경영향평가, 환경공학 등에 대해 배웁니다. 도시계획 및 설계는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한 학문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영역이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공간학, 경제학, 개발경제학 등 전공 관련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세부적으로 도시환경공학은 크게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분야, 나아가 우리 학부의 특성화 교육인 국제개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도시계획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교통, 소음, 범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국제개발 분야 우리 학부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거대도시문제, 빈곤문제, 불량주택문제, 경제개발문제, 환경정책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전문성을 기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도시설계 분야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면 도시설계는 그에 맞는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것에서 크게는 계획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 강의



국제개발계획 세계의 여러나라,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인구, 도시·주택문제, 개발·환경문제 등 국내·외적인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 이론, 해결 방안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로 이루어진 지리데이터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기초적인 개념과 운영방식, 활용방법을 익힘으로써 지형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전공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공간분석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시 및 지역계획론 도시를 계획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고, 기존의 터전 위에 최소한의 재구성을 통한 개발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에 대한 설계, 계획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전공 공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학부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중점 또한 그 가치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한동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도시 및 환경에 관한 전공 지식과 더불어서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매년 교수님과 함께 베트남,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 답사를 가서 현지의 도시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대학교의 교수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동대학교 공시 졸업생들은 베트남에서 NIBC Group이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도입하여 도시 개발, 단지 계획, 주택 건설을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얼반카페	Urban Cafe는 도시를 공부하는 학회로써 도시의 새로운 이슈나 문제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한 답사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도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과 알지 못했던 도시의 모습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젠	토목공학학회 아쿠아젠은 자연과학의 기초 이론을 토대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등의 분야를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러한 토목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기초를 공부하고, 수치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툴인 '매트랩' 등을 교과 이외의 학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과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신 선배님들과 교류하며 조언을 듣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SEEBIM	BIM학술 동아리 SEEBIM은 토목, 건축, 도시라는 전공 분류에 상관 없이 모든 분야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기반해서 지능형 공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기본 교육을 통해 BIM을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AEC산업의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발표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BIM 공모전에 나가서 본인의 연구 성과를 적용시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COHA	COHA(Cornerstone of Handong Architecture)는 건축의 기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설립된 건축학회입니다. 건축의 컨셉과 표현기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모델 제작, 스케치, 가상 표현(2D&3D Drawing)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표현방식을 연습해보고, Design Concept Study와 Case Study를 통하여 다양한 건축가들의 건축언어와 표현 기법들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들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매 학기 새로운 프로젝트와 건축의 기본에 관한 공부를 하고, 매주 학회원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건축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졸업설계 전시회 주로 졸업 전 마지막 설계 수업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교내 뿐 아니라 포항, 서울 등의 지역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만원의 사랑 프로젝트 졸업생들이 소정의 금액을 모아서 재학생들이 뜻있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사입니다. 학회 지원금이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스톤 학생들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동안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고 내용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수학캠프 주로 토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선배들과 교수님께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행사입니다. 보통 겨울방학에 팀을 짜서 진행하게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건축가, 도시계획 및 설계가, 토목기술자, 시공기술자, 수자원전문가 등으로서 커리어를 쌓아 갈 수 있습니다. 한동대 졸업생은 국내는 물론 빈곤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개발도상국가의 도시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국내·외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 과학기술연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그린에너지, 수자원 정책 및 기술개발, 해안공학, 산업 및 지역개발 정책, 대도시 정책개발, 건설용 첨단소재개발, U-City 개발 등 관련 분야의 IT접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건축 관련 기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건설, 서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PARK, NIBC, 건보엔지니어링, LK엔지니어링, 태조엔지니어링, 유앤디엔지니어링, 포항아스콘, 문화건축사사무소, ENO건축설계사무소, 솔빛건축사사무소, DSK엔지니어링, Mott MacDonald 등

연구소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촌개발공사, 수자원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서울대학교 건축학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동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Harvard Kennedy School, Aalto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TEXAS A&M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서덕수(95) - 한동대학교 교수

현재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건축가로서 건축도시건설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시공의 완성을 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최종 목적은 창조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좋은 디자인의 건물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창조하는 건축가, 이런 창조인을 부르는 곳은 세계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한동대 공간시스템공학부는 건축가라는 꿈과 비전을 제게 심어준 곳입니다. 다양한 이론과 기술 관련 수업을 통해서 매뉴얼을 익히고,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디자인하며 실험해봅니다. 밤을 새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디자인하며 모형을 만들다보면 어느새 동이 트던 한동 시절이 참 소중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던 한동 정신에 세워진 건축가는 구별됩니다. 남들처럼 돈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보니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 감동

을 줍니다. 그 감동은 한동대 졸업생이 세운 NIBC 기업을 통해 동남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큰 촉진제가 되고 있지요. 우리 학부는 지역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와보니 사람과 도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 두 발 뺀고 잘 수 있는 집, 편하게 걷고 다닐 수 있는 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 등 입니다. 이런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커뮤니티 변화의 큰 핵심이지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에 가슴이 뛰고 뭔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공사에서 여러분의 꿈과 인생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도시 너머 북한 및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박성은(11)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협동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입학하여 2015년도에 한동을 졸업한 박성은입니다. 저는 1전공으로는 도시계획 그리고 2전공으로는 건축을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한동대를 입학할 때는 사실 도시계획이나 건축전공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국제어문학부를 선택하였으나 결국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로 오게 되었는데, 직접 내 생각과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고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는 분야라 좋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전공을 하면서는 이론도 열심히 했지만 설계에도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시간을 설계에 투자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졸업할 때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전공분야가 도시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각자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건축을 함께 다루는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협동과정의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도시설계 협동과정은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모여 도시단위의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으로 저는 대학원에서 작은 동 단위에서부터 신도시 단위의 프로젝트들을 여러 분야의 학생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도시 프로젝트는 2016년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 및 학생이 함께 모여 작업한 10일간의 서울리빙랩 워크샵입니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상지 향상을 위한

큰 개념 정립에서부터 유효 공간 활용과 같은 작은 아이디어까지 짜임새 있게 기존 도시조직을 만지는 독일의 도시 관리 기법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도시설계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70년대부터 기존 도시를 개선하는 관리기법을 적용시켜 왔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자동차로 뒤덮인 광장을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광장으로 바꾸어 도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외에도 여러 가능한 작업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건축가이자 도시설계가인 지도교수님의 설계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올 가을 독일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입학허가를 받았고 그곳에서 건축설계 및 도시 관리 기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물론 그곳 유럽에서 다년간 실무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래의 얘기지만, 그 이후 귀국하여 포항과 같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민관사업과 연구에 참여하여 '지역 공간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 제 일차적인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주승(15)

공간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깨지고 더러워진 그릇으로는 온전한 삶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에게 “WHY NOT CHANGE THE WORLD”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황폐해진 공간을 다시금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게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그 공간을 누리는 인간의 삶의 질적증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입생 시절부터 위와 같은 비전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기전 이집트에서 열악한 도시공간과, 파괴된 환경을 목격했고, 이집트 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위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도시환경공학’, ‘건설공학’을 전공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된 전공생활은 “배워서 남 주자” 그 자체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존, 스마트 시티, 국제 개발, 교통공학, 건축설계, GIS 분석 등 공간과 이와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부터, 실습까지 폭넓게 배우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어서, 저는 베트남의 교통문제에 대해 공부했고, 직접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대학에서 토론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공시는 가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설계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며 공간과 미래를 디자인 하는 친구들에게 ‘가족’이라는 표현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관심도 우리 학부의 큰 축복입니다.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귀 기울여 주시는 교수님들은 저희 학생들의 든든한 코너스톤입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한승주(17)

고등학교 재학 당시 건축과 도시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입학 후 다양한 교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로 진학하였습니다.

저희 학부는 ‘이웃을 위한 공간환경설계’라는 슬로건 하에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건설공학과,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도시공간과 환경에 대해 배우는 도시환경공학을 공부합니다. 학부 교수님과 학생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수님께서서는 전공 지식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게 지도해주십니다. 또한, 저희 학부에 들어오면 학부생들이 학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건축설계를 목표로 하였으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진학 후, 전공수업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함께 개발도상국을 방문하여 지식을 교류하는 'UNITWIN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이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 곳과, 내가 흥미있어 하는 분야를 찾아 저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 들어와 함께 공부할 친구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주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가족처럼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성장하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기계제어 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
전자제어공학 전공



"생각대로 움직인다,
낭만기계"



기계공학은 다양한 기계장치의 설계, 구조 및 재료의 역학적 특성 등의 문제와 관련된 물리적 원리를 다루는 학문분야입니다. 기초분야로는 재료의 강도와 변형을 다루는 재료역학, 외력에 의해 야기되는 운동 혹은 진동을 다루는 기계역학, 기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상호운동을 다루는 기구학, 열·유체의 특성을 다루는 열·유체역학 및 에너지의 전달 현상을 다루는 열전달 등이 있습니다. 응용분야로는 다양한 구속 조건 하에서 기계를 최적 설계하기 위한 기계설계, 기계제작법을 다루는 기계공작법 등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자는 기계설계 및 제조부문, 기술관리 및 운영부문, 에너지 이용, 유체기계,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듯 기계공학은 공학 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 또한 매우 넓습니다.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술이자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기술을 지원하고 있어, 그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기계공학 전공 프로그램

기계 및 이에 관련되는 장치설비의 설계·제작·운전 등에 대하여 기초 및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기계공학 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소그룹 실험 실습과제를 통해 각종 기계 및 장치 설계를 직접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역량있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모빌리티 및 스마트팩토리융합

기계 및 전자제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자동제어기술에 기반한 스마트모빌리티와 스마트제조 분야의 전문 R&D 인력양성을 목표로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대학교수의 전문지식과 협약기업 전문가의 실무 노하우를 공동으로 교육함으로써, 참여학생들을 재교육이 필요 없는 진정한 의미의 실무형 인재로 양성합니다. 자율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비행체 분야의 핵심기술과 실무경험을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트랙과 그린에너지 생산, 첨단 제조 및 자동화 설비에서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역량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융합 트랙의 인증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학생에게는 취업희망 기업 맞춤형 진로지도, 기업탐방, 현장연구개발, 스마트기술집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졸업전에 협약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표 강의



열역학

열과 일 및 물체간의 관계와 변환 문제, 가스동력 사이클 및 시스템, 냉동 시스템의 기본 사이클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열 시스템에 대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및 설계 능력을 배양합니다.

정역학 및 동역학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의 해석능력을 배양합니다. 벡터 해석, 힘의 해석, 모멘트 해석의 기본을 쌓은 후에 자유물체도를 기반으로 구조물의 지지부 모델링, 외력(하중) 부여, 반력 계산, 내력 계산 및 마찰력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형상과 관련된 무게중심과 면적 및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해 학습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좌표계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모멘텀 보존의 법칙 등을 통해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유체역학

다양한 유체기기와 에너지 시스템의 설계와 분석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합니다. 유체 정역학에서 출발하여 유체 동역학을 설명하는 지배영역과 이에 해당하는 비선형 보존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무차원화를 통한 상사성, 내부유동, 외부 유동 및 경계층 이론에 근거하여 사물과 유체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며, 이를 통해 유선형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합니다.

3차원모델링

3차원 형상설계 소프트웨어(SolidWorks 또는 CATIA)를 활용하여 기계부품을 모델링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공학자의 의사소통 도구인 도면을 읽고 설계정보를 해석하고 KS규격에 맞추어 부품의 제작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기계부품의 규격과 공차를 고려하여 기계장치의 부품도 및 조립도를 작성하는 것을 배웁니다.

CAE기계설계해석

산업현장에서 CAE의 활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설계 해석(시뮬레이션) 결과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본 과목에서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의 개념과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강성행렬 방정식의 유도과정을 학습합니다. 고체역학, 진동, 열전달에 의한 열응력 등의 문제를 상용 프로그램(ANSYS)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설계의 안정성과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문제를 찾아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우수한 학부생 연구성과

- 종합 설계 교과목과 연계한 학부차원의 학부생 연구 지원
- 특허출원, 공모전 출품 제도화
- 학부생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 (현대자동차, 고려제강, 에스엘 등)
- 학부생 참여 논문 SCI급 3편, KCI 9편 게재 (최근 3년)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공모전 수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7건(해외17건) • 링크플러스 사회맞춤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PBL) 경진대회 대상 •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동아리 대회 기술아이디어부문 장려상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12건(해외1건) • 2019 KSAE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장려상 • 2019 ICT 융합 프로젝트 공모전 참가상 • 2019 대한기계학회 우수논문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술대회 발표 13건 • 제7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대상 • 제10회 전국학생설계경진대회 대학부 대상

학회 소개

자작전기차동아리 (AMG)

AMG는 기계공학부 소속 자작 전기차 동아리입니다.
AMG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기계, 전자, 제어 부분을 활용하여 실제 전기차를 제작합니다.
차량 제작은 현가, 구동, 전자, 조향, 프레임 총 다섯 파트로 나누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고 접목할 수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엔시스, 카티아, 솔리드웍스, 캐드 툴을 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기계공작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실제 기계 산업에 대한 경험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제작된 차량을 이용해 해마다 경진대회에 출전을 하며 차량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수학캠프

수학캠프는 매년 겨울방학에 개최되며, 전공 진입 첫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전공 수업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기전공학의 기초가 되는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등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Peer tutoring 프로그램입니다.

CATIA 캠프

CATIA 캠프는 매년 여름방학에 개최되며, 기계제어공학부의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CATIA는 프랑스 Dassault사에서 개발한 3차원 CAD 프로그램으로 자동차나 항공기를 설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캠프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단품 설계에서부터 솔리드 모델링, 어셈블리, 드래프팅, 곡면 기능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설계(GSD, FreeStyle, Imagine&Shape, IECM) 등을 실습합니다.

실험실 소개

<p>로봇기구 및 동역학 연구실</p>	<p>본 연구실에서는 로봇의 각종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기구적 메커니즘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보행, 그리고 손발의 움직임으로부터 보행 로봇과 산업용 로봇 Manipulator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링크 및 조인트의 기구학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고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회전 기계의 동역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속회전축의 동역학적 해석을 통해 회전 중 발생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더욱 정숙하고 안전한 작동이 가능한 기계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동 제어를 위한 각종 부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p>
<p>CAE 응용역학 연구실</p>	<p>본 연구실에서는 기계역학 분야의 이론과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기술을 활용하여 기계부품의 설계(Design)와 해석(Simulation)을 연구합니다. 응용분야는 기계역학, 생체역학, 차량역학 등입니다. 3차원 CAD 소프트웨어와 ANSYS (앤시스), ASDAMS (아담스) 등의 상용 기계설계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계구조물의 설계 및 평가, 치과 임플란트의 안정성 해석, 자동차의 동역학적 모델링을 통한 주행 성능 분석 및 구조안정성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본 연구실에서는 자작자동차 동아리(AMG: Automotive Mania Group)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대학생 자작전기차대회에 출전하면서 차량의 설계와 성능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방학 중에 기계설계해석 소프트웨어 및 차량 제작 캠프를 실시하여 차량의 설계, 해석, 제작, 테스트를 통해 대회를 준비합니다.</p>
<p>전자열유체 연구실</p>	<p>본 연구실에서는 로봇의 각종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기구적 메커니즘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보행, 그리고 손발의 움직임으로부터 보행 로봇과 산업용 로봇 Manipulator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링크 및 조인트의 기구학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고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회전 기계의 동역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속회전축의 동역학적 해석을 통해 회전 중 발생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더욱 정숙하고 안전한 작동이 가능한 기계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동 제어를 위한 각종 부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p>

※ 졸업 후 진로 ※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주요 국가기간 산업의 핵심 기술인 기계, 에너지, 플랜트, 전자제어, 계측,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부하므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 조선, 공작기계, 플랜트, 에너지, 철강 등의 전통적인 기계, 에너지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공장자동화, 로봇 등 국가 신 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산업, 전자정보기기 및 가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 전기전자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계제어공학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산업계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LIG 넥스원,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에는 국가 및 산업체 연구기관 연구원 혹은 교수가 되어 기전공학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자격시험을 거쳐 기계, 전자제어 분야의 공무원이 되거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전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기전공학 엔지니어에게는 창업의 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중공업 POSCO,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어, 삼성테크윈, 엘아이지넥스원, 자이벡, 한국델파이, 고려제강 등

자동차 볼보그룹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발레오 전장시스템 등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LG화학, 한국서부·남부발전, 경남·영남에너지, 장한기술 등

플랜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창업 SOSLAB, enSalt, OHFATech 등

공기업/연구소/정부 변리사,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전 KPS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대학원, KAIST 대학원, POSTECH 대학원, 서울대학교대학원, GIST 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Texas A&M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Georgetown University, 동경공업대학 등

※ 졸업생 이야기 ※



**나영성(10) - 에스엘,
신차개발관리팀**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엘 신차개발 팀에 근무하고 있는 10학번 나영성입니다. 자동차 램프의 LED를 제어하는 장치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대학교를 고민했고 그 답은 한동대학교였습니다. 한동대학교의 무전공은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수전공의 기계, 전자제어의 복합적 지식은 신차를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제어 공학부의 장점은,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 스터디 캠프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며, 함께 많은 밤을 새며 4년 동안 공부하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명으로 지도해주시는 교수님은 삼촌이자, 언제나 든든한 친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제어공학부는 여러가지 진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정유, 로봇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전공 내,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졸업프로젝트를 고민하였고 자동차분야로 선택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기계제어공학부를 선택하는데 두려움이 없길바랍니다. 물론 기계 및 제어라는 두가지 학문은 배움에서 힘들지만, 언제나 많은 친구들과 든든한 교수님 밑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낭만과 배움이 있는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민식(13) - 에스엘,
미주램프설계팀**

故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강의와 한동대학교의 소개를 들은 후 주저 없이 한동대학교를 선택하였고, 제 인생에 훌륭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자부합니다. 대학 생활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으며 그때의 깨달음과 발전으로 지금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기계에 관심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기계 구성품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설계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제어하는 것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를 택해 강점으로 키우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며 진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며 기구 설계의 강점을 키워 설계 엔지니어로서 회사 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게 과거 기계는 생각 없는 기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계는 생각하는 기계로 기록을 저장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인 지금, 그리고 내일, 혹은 2030년은 어떠한 기계들이 우리 삶에 흠여져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은 의외로 쉬울 수 있으나 스스로가 적절히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동인은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고 변경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다면 속도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의 기회에서 숙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훗날 미래는 우리가 질문한 것에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각자가 정한 정점에 도달하여 누군가가 정한 미래가 아닌 자신이 정한 미래에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양두원 (19)

한동대학교의 슬로건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실현할 수 있는 학부가 무엇인지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어느 분야든 접목될 수 있으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계제어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공학과 전자제어공학을 같이 공부하며 느낀 장점은 4대역학 지식을 기반으로 원하는 기계를 설계할 수 있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전공내용을 함께 배워야 해서 공부할 양이 방대하지만, 교수님들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고 공부하며 성취하는 기쁨도 있기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계제어공학학부는 타 대학과 달리 배운 지식을 직접 실험하며 익히는 실습수업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실습수업을 하다보면 생각치 못한 부분에서 많이 막히고, 잘 진행되지 않기도 하지만 생각한대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 즐거운 추억들이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비전은 기술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현직인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제어공학부에서 배운 지식들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꿀 크리스천 공학도를 꿈꾸는 여러분!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기계제어공학부로 오세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 하는 친구들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배운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계제어 공학부

"생각대로 움직인다,
낭만기계"



기계공학 전공 / 전자제어공학 전공



전자제어공학은 전기 및 기계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최적의 동작을 하게 하도록 하는 제어이론, 신호처리 등 지능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하드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전자제어공학은 전기전자공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기계공학과 융합 될 때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어공학-기계공학 융합학문을 흔히 기전공학 (Mechatronics Engineering) 이라 명명합니다.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특성 해석 및 설계를 다루기 위한 제어시스템 이론, 제어시스템의 실시간 구현을 위한 제어회로 및 임베디드컴퓨터 이론, 정보처리 및 융합을 위한 계측이론 등이 전자제어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자제어공학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시스템과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컴퓨터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로봇, 무인 자동차/ 항공기, 자동화기기, 첨단 의료보조/ 재활기기 등이 전자제어공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개념 기술입니다. 전자제어공학자는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의 지능화/고부가 가치화 추세에 따라 진출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전자제어공학 전공 프로그램

전기 및 기계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최적의 동작을 하게 하도록 하는 제어 이론, 신호처리 등 지능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하드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제어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위한 이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어 회로, 임베디드 컴퓨터 및 실시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균형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어공학 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소그룹 실험 실습과제를 통해 각종 제어시스템을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그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찰력 있는 전자제어공학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MART 기업설계융합트랙(스마트 생산제조, 스마트 모빌리티 인증과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SMART (Smart Mobility and Advanced Robotics Technology & Design) 제조업 R&D 인력양성을 목표로 대학교수의 전문지식과 협약기업 전문가의 실무 노하우를 가 공동으로 교육함으로써, 재교육이 필요 없는 진정한 의미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철강/발전플랜트 자동화 등 스마트 팩토리 개념과 기반기술 교육에 특화된 '스마트 생산제조' 및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모빌리티 시스템의 자율이동 및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 역량교육에 특화된 '스마트 모빌리티 인증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학생에게는 취업희망 기업 맞춤형 진로지도, 기업탐방, 기업융합개발실(ICL) 내 포스트캡스톤, 현장연구개발, 스마트기술 집중강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졸업 전에 협약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표 강의



자동제어

다양한 기계 및 전자제어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고전제어이론을 소개합니다. 제어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을 위한 동적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과도 및 정상상태 응답, 주파수 응답, 상대안정도 등에 관한 기본 개념 및 해석방법을 학습합니다.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 실험

수동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제어회로의 특성, 등가회로, Node/Mesh 해석, RLC 회로의 시간응답 및 주파수 응답, op-amp를 활용한 필터회로의 구현 등 회로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합니다. 다양한 제어계측 장비, PSpice 및 MATLAB 등 회로 설계 및 해석 S/W 활용방법을 익힙니다.

신호 및 시스템

기전시스템 설계 및 해석을 위한 수학적 방법론 및 기초 시스템 이론을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호 및 시스템의 특성, LTI 시스템 이론과 더불어 시간/주파수영역에서의 시스템 해석을 위한 convolution 정리, Fourier 급수, Fourier 변환, Laplace 변환을 학습하고 그 물리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고전제어 이론의 설계철학 및 통찰에 관한 본질적 이해를 돕습니다.

아날로그 회로 및 아날로그 제어회로 설계

아날로그 제어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능동소자들(Diode, Transformer, Transistor, Op-amp, MOSFET, PWM Driver 등)을 다룹니다. 제어시스템 설계 및 해석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모터 속도 및 각도를 제어하기 위한 페루프 아날로그 제어기 설계, 제어회로 구현, PCB 제작 방법을 학습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우수한 학부생 연구성과

- 종합 설계 교과목과 연계한 학부차원의 학부생 연구 지원
- 특허출원, 공모전 출품 제도화
- 학부생 중심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현대자동차, 고려제강 등)
- 학부생 SCI급 11편 게재 이상(최근 3년) 등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공모전 수상

2016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1건(해외 11건)
2017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8건(해외 13건) • 산업통상부장관 논문상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부생 논문상 • 효성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등
2018	•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37건(해외17건) •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동아리 대회에서 기술아이디어부문 장려상

실험실 소개

<p>지능형 자율이동시스템 연구실</p>	<p>본 연구실에서는 무인 비행체(무인 항공기, 유도탄, 우주 발사체 등)의 유도제어를 위한 제어계측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의 위치·속도·자세를 정밀 제어하기 위한 유도제어 기법의 설계·해석 및 실시간 구현 기술, 무인 비행체 탑재 레이더(탐색기)를 이용한 목표물 탐지·추적 기술, 유도제어 성능 분석을 위한 M&S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대비행하는 다중 무인 비행체를 이용한 Cooperative Sensing 기술을 연구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조난구조 등 다양한 민수·군수 응용분야에 무인 비행체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안전주행을 보조하기 위해 차량용 FMCW 레이더를 활용한 차세대 충돌방지 시스템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p>
<p>휴먼 인터페이스 연구실</p>	<p>본 연구실에서는 두뇌의 제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지능형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운동할 때 발생하는 근전도(EMG : Electromyograph), 뇌전도(EEG : Electroencephalogram)와 같은 생체신호를 계측하고 운동 제어에 필요한 Kinematic /Dynamic Parameter를 추출함으로써 사용자가 조작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인간-로봇 상호작용, 생체신호 기반 근전도(Prosthetic Limb), 직감적인 Vehicle Simulator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p>
<p>임베디드 로봇 연구실</p>	<p>본 연구실에서는 외부의 데이터나 전력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고속 열차, 고부가가치 선박, 항공기, 로켓, 유도탄, 플랜트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기계·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 지식을 통합하여, 첨단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베디드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자체 판단력을 가지는 각종 로봇에 관한 연구와 실시간 운영시스템 상에서의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수학캠프

수학캠프는 매년 겨울방학에 개최되며, 전공 진입 첫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학부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전공 수업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기전공학의 기초가 되는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등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Peer Tutoring 프로그램입니다.

PSpice 캠프

PSpice 캠프는 매년 여름방학에 개최되며, 기계제어공학부의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PSpice는 Cadence사의 전기, 전자 및 디지털 회로 등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며, 최적의 기능을 갖춘 아날로그-디지털 혼재회로 시뮬레이터입니다. 본 캠프에서는 PSpice의 기본 사용법 및 시뮬레이션의 종류에 따른 해석 방법, 보다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한 해석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PCB Editor를 이용해 다층, 고속, 고밀도 PCB 설계에 필요한 Artwork 기법 및 Floor Planning을 통한 부품 배치, 세부 회로의 Driven Rule을 지정하여 설계 특성을 부여하고, 부품 또는 회로의 Design Reuse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rtwork 실무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 졸업 후 진로 ※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주요 국가기간 산업의 핵심 기술인 기계, 에너지, 플랜트, 전자제어, 계측,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부하므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 조선, 공작기계, 플랜트, 에너지, 철강 등의 전통적인 기계, 에너지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공장자동화, 로봇 등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산업, 전자정보기기 및 가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 전기전자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계제어공학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산업계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LIG 넥스원,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에는 국가 및 산업체 연구기관 연구원 혹은 교수가 되어 기전공학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자격시험을 거쳐 기계, 전자제어 분야의 공무원이 되거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모빌리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발레오 전장시스템, 현대중공업 SL그룹사 등

전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방위산업

LIG, 넥스원, 한화테크윈 등

의료기기

삼성메디슨, 바이오스페이스 등

창업

SOSLAB, enSalt, OHFATech 등

공기업/연구소/정부

변리사,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전KPS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대학원, KAIST 대학원, POSTECH 대학원, 서울대학교대학원, GIST 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Texas A&M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Georgetown University, 동경공업대학 등

※ 졸업생 이야기 ※



정유정(10) - 현대오트론

저는 현대오트론 제어평가팀에서 차량의 바디·샤시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전자제어공학을 복수전공한 경험은 자동차에 탑재되는 제어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전공이었기에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 함께 밤새며 공부한 기억과 제자들의 가능성을 항상 믿어주셨던 교수님들의 믿음은 엔지니어로서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학생이 되어 어떠한 업무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멋진 엔지니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최원식(08) - 포스코

저는 현재 POSCO에서 열간 압연된 금속의 냉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설비에 대한 기계적 지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설비 구동에 대한 제어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기계제어공학 복수 전공은 제게 폭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고, 여러 방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제어공학부에서 교수님들께 그리고 같이 수학하는 동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전공 지식과 삶의 태도 위에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 가는 첫걸음을 뚝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대현(14) -현대자동차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현존하는 시대에 발맞춰 걸어가는 한동에서의 교육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회인 대학교에서 세계의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는 지식을 배우고 동시에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다짐과 용기를 배운 저는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기계제어공학부는 좁았던 시선과 생각을 더욱 더 폭넓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한 기계의 지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기계, 역학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제어를 설계하는 한동의 설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기술들의 기반이 되고 모든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기계적 요소에 대해 전반적이지만 심도 있는 지식을 배웠고 동시에 기계적 요소를 제어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및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를 배우고 제어를 배우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도출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계와 제어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는 교수님을 통해 저의 역량과 전문성은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책으로만 경험하는 지식이 아닌 실제 로봇팔, 자동차를 제어하면서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정도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제가 현대자동차의 일원으로서 홀로 섰을 때 기계와 제어를 다 아우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고, 부서 일원으로서 필요한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제어공학은 단순히 글로써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먼저 체험하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학문입니다. 후배님들, 기계제어공학에서 변화하는 기술들을 몸소 체험하고 더 깊고 넓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 저와 같이 함께 기술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박주은 (20)

“생각대로 움직인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저는 우연히 기계제어공학부 슬로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우주비행선을 만들고 싶었던 저는, 주저 없이 기계제어공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었기에 이과였지만 물리와 화학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역학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계제어공학부는 기계공학과 전자제어공학이 합쳐진 학부인 만큼 절대 쉬운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공 새내기였을 때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주변 선배님들께 도움을 구하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학부생들끼리 스터디를 하며 배우나갔기에 동역자들과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있는 학부 기도회에서 교수님들께서 청년의 때의 믿음 생활을 말씀해주셨고, 학부생들과 비전과 삶을 나누면서 하나되는 마음으로 학기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부가 기계, 제어라는 큰 틀을 배우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는 대부분 ‘스스로’해야 합니다. 저는 학기 중에는 학업에 충실하고, 방학에는 캠프, 공모전 등을 참여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스스로 기반을 다져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낭만 기계, 비로소 생각한 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습니다.

기계제어공학부 진학을 꿈꾸는 여러분들! 이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생명과학부



"생명의 지혜!
생명을 살리는
열정!"



생명과학 전공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탐구하고 자연 속에서의 생명과 관련된 현상 또는 생물의 기능을 탐구하여 의료 및 식품, 환경 등 인류 복지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 학문과의 융합을 통하여 생물체의 연구를 다른 학문에 적용 시키는 등 상당히 넓게 사용 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현재의 많은 의약품들이 생명체의 증식, 운동, 조절, 대사 등의 현상 연구를 통해 나오게 된 결과물이며, 생명체의 연구를 통해 암, 에이즈 등의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한동대학교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에 정말 맞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그 영향을 좁은 범위부터 세계로까지 넓힐 수 있으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식품 등 인간 생활의 많은 곳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학문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최신 생명과학 동향에 발맞춘 문제해결 중심의 교과과정

생명과학부의 교과과정은 최첨단의 생명과학 연구 및 산업 동향에 맞추어 핵심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명과학 관련 교과를 바탕으로 두고 질병 연구 및 바이오 신약개발 분야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 강화되어 있으며, 컴퓨터 공학과의 융합을 통해 방대한 양의 생물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초를 다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부 교수님들의 실험실 시설 및 대학원 연구 인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타 대학 유사 학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실험실습 교과목을 심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캡스톤 설계 형식의 학부생 연구 교과목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연구수행 경험과 능력을 쌓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최첨단 생명과학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재교육 없이 활약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길러주는 물론, 졸업 후 진출 분야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대표 강의



일반미생물학

일반생물학 이후에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기반지식을 탐구하고 여러 미생물의 특성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생화학

기본적인 생명 현상에 대한 강의입니다. 생화학에서는 몸을 구성하는 기본물질과 생물체의 신호전달 체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배우고, 생화학2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생물체에서 여러 물질을 만드는 대사과정을 총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은 생명현상을 분자적 수준에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위한 실험 기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우는 강의입니다.

면역학

생명과학부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4학년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기본이 되어 생물의 복잡한 면역체계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강의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우수한 커리큘럼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커리큘럼은 한국의 뛰어난 여러 대학과 비교하여도 좋을 만큼 체계적이며, 생명현상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험의 비율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있어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닌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많은 실험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학자로서 학회나 소속 대학원에서의 성과물 발표 시 꼭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세미나’ 과목이 1~4까지 필수로 개설되어있어 학부 때부터 미리 수준 높은 발표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명과학 교육

훌륭한 교수님을 통해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본 진화론 뿐 아니라, 기독교의 창조론에 기반한 창조과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팀티칭(Team Teaching)

한 전공과목에 여러분의 교수님께서 전공분야로 나뉘어 팀 티칭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배울 수 있으며, 교수님들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의·치학 전문대학원 진학률

졸업생의 1/3이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했으며, 1/4이 박사과정을 밟을 정도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며 현재에도 상당히 높은 의·치학 전문대학원의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학부!

어떤 학부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부이며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학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학회 소개

로직 디자이너스

학회 로직 디자이너스는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학회로 학회원들이 과학 연구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실험 계획 제안서 작성, 생명과학 관련 특강, 세미나 연습, 논문 작성 연습 등이 있습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생명과학 캡스톤 설계 발표회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생명과학 캡스톤 설계’ 교과목을 통해 학부생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포스터 발표 등으로 전시하고 서로 평가하고 토론하면서 전공 분야의 지식을 나누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흙커밍데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재학 중인 후배들이 모여 나눔을 갖는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진로 탐색 세미나

‘생명과학 미래기술 세미나’(1학기)와 ‘생명과학 진로개발 세미나’(2학기) 교과목에서는 생명과학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명 인사 또는 선배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분야를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년한동 소개



청년한동은 한동 동문 보건의료인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약 300명의 한동 출신 의료인들이 ‘Why not change the medical society!’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한동 정기모임 및 학교별 모임 등으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있고, 격월로 안산 온누리 M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한동 세미나’를 통해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멘토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의 후배들을 위해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배 후원사업 등을 통해 졸업생으로서 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 한 가운데서도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가슴에 품은 청년으로 살기 위해 혼자가 아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에서 배운 “사랑 겸손 봉사”, “공부해서 남주자” 같은 가치들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청년한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생명과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인 만큼, 생명과학부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전망이 밝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관련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과정 연구를 통해 연구자로 훈련을 받고 기업, 국책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적인 연구원 또는 교수가 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약, 식품, 화장품, 환경, 농업 등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기업에 취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도 있고, 의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육특성인 전공 융합 또한 상당히 용이하여 생명영상을 찍는 자연다큐 촬영 기사, 디자인과 접목하여 생물학 관련 그림이나 도표를 만들어 주는 생물학 관련 디자이너, 경영학과 연계하여 생물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공학과 연계하여 생물체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 생명과학도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바이오 관련 회사

제일제약, 삼성 바이오 로직스 등

일반기업

삼성정밀화학, CJ제일제당, 코오롱 생명과학, LG화학, LG전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성증권 등

연구소

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구소,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등

졸업생 진학



의학전문대학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

생명 관련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주대학교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해외 대학원

Chicago Medical School, Ohio State University,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University of Cape Town 등

그 외

치의과대학교, 약학대학원 등

* 의대 및 의치학 대학원 진학자 281명 (05년도~현재)

※ 졸업생 이야기 ※



한승현(08) - 헤세드 바이오

한동대학교를 통해 배운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꼽으라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협동과 나눔의 가치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나만이 가진 지식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 나눔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정보가 더 풍부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할 때 생각의 지경은 깊어지고 또 다른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한동의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많은 그룹스터디와 모임을 통한 지식과 생각의 나눔을 해왔고, 모든 과정이 제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동대 생명과학부의 인텐시브한 커리큘럼과 발표수업, 교수님의 열성적인 지도와 상담은 학생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동대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 받은 학생은 어딜 가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창훈(16) -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통해 남보다 잘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왔지만, 한동대학교에서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을 통해 동기들과 서로 협력하며 같이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한동대학교에서 받고 실천할 기회가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함께 도와가며 발전해 나가려는 자세를 한동대학교에서 갖게 된 부분이 제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요인들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부는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실천하기 좋은 학부였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배들이 중요 과목들에 대한 튜터 세션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는 일이 매우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들께서 진행해 주시는 세션들을 매번 참여하면서 전공 내용뿐만 아니라 공부 방법 등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배워서 남주는 것에 대한 열정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3학년 때부터는 매 학기 튜터세션을 자청하여 진행하였고, 후배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나눔으로 인해 같은 학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저 또한 배운 지식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의학 학교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배운 지식들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경쟁보다는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생각을 실천하여 많은 동기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대학교에 진학하여 배우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하려는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신다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실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려 하기 보다는 함께 서로 도와가며 같이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진 리더가 되길 원하는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예성 (18)

우리 생명과학부는 학부생 모두 학부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교육과 능동적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며 발전합니다. 특히, 영어 발표로 진행되는 세미나 수업과 다양한 실습들을 통해 생명과학자로서의 기초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동에서 난이도 높은 학부로 유명세가 있지만 그만큼 학부생들의 배움을 향한 노력과 열정이 넘치며 귀한 열매를 맺는 학부입니다. 이 외에도 학기의 시작과 끝을 교수님들의 찬양과 예배로 함께하며 신앙을 배우고 학부 선후배, 동기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학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학부 안에서 교수님과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하며 여러 도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전공은 고사하고 학교 생활 적응하기에 바빴던 전공 새내기 시절에 우연히 스터디를 통해 만난 선배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며 천천히 전공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 기도회에서 서로의 꿈과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나누고, 전공 수업마다 교수님들께서 전달하시는 짧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었는지를 배우고 이 과학적 지식들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전자 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 전자공학 전공



"하나님의 마음,
미래기술의 심장"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 SW 및 HW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컴퓨터공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SW와 디지털 HW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모든 기술을 포함합니다. 응용 분야로는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 클라우드, 스마트카/드론/로봇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서로 다른 분야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에 융합의 핵심 고리가 됩니다. 컴퓨터공학 교과과정은 프로그래밍은 물론이고 HW나 SW R&D, IT 및 융합 응용 시스템을 설계/구현하고, SW융합 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능적 활동을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머신러닝, 지식의 획득/표현, 추론, 영상 및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빅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의 효율적 저장 및 이용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인터넷 / 클라우드 컴퓨팅 / 컴퓨터 보안 인터넷을 통해 사람 또는 컴퓨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모바일 / 임베디드 시스템 스마트폰, 스마트카, 로봇, 가전, 게임기 등 휴대가능하거나 다양한 장비에 부착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가상현실 /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 또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 구현,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과 툴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를 설계,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플랫폼 등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대표 강의



데이터구조(Data Structure)

컴퓨터공학 전공 입문 과목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매주 1시간씩 진행되는 실습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 조교에게 직접 프로그래밍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프로젝트1(Practical Project1)

웹 프로그래밍 기초에서부터 웹 서비스 개발까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배우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입문 과목.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신경망 등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주요 모델과 학습 알고리즘, 딥러닝 기초 등을 배우는 강의



한동인의 전공 자랑



S-lab 프로젝트 교육

S-lab에 소속되어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S-lab 학생들과 공모전 참여, 산학R&D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S-lab은 다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see.handong.edu/sw-slab/>

- 스마트카펫
(이강 교수님, 황성수 교수님, 김영식 교수님)
- ISEL Lab (남재창 교수님)
- 지능형 시스템 Lab (김호준 교수님)
- MCNL Lab (고윤민 교수님)
- ARISE Lab (홍신 교수님)
- MI-Lab (최희열 교수님)
- BCI Lab (안민규 교수님)
- MMIC Lab (김영식 교수님)
- CGV Lab (황성수 교수님)
- Nano Seed Lab (박영춘 교수님)
- Deep Learning Lab (김인중 교수님)
- SIR Lab (이원형 교수님)
- Handong AI Lab (홍참길 교수님)
- SW Factory Lab (조성배 교수님)
- WALAB (김광 교수님, 장소연 교수님)

전공 팀 제도

컴퓨터공학과에는 '전공 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전공 지도교수님팀으로 소속됩니다. 전공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교수님께 질문을 구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며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졸업 후의 계획을 교수님과 나누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 차원의 행사를 진행할 때, 주로 전공 팀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같은 학부생들과의 친목을 쌓을 수 있습니다.

SW 창업 교육

SW Factory를 중심으로 실제 산업체의 SW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Web-App-Cloud 중심 스킬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연구-창업 선순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SW Factory 인턴십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산업계에서 선호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Software 중심대학!

사업개요 및 인재상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IoT 전문인재와 기술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한동대학교는 'SW중심대학'으로 지정되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SW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문성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특성화
머신러닝 산학 취업연계형 트랙
학부생 R&D강화 (S-Lab 운영)



실전개발능력

프로젝트 교과목 대폭 추가
산학 프로젝트 의무화
오픈소스SW 개발교육



프로근성 및
기업가 정신

자기분야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
정직성 및 협업능력
시제품/특허/논문 중 하나 의무화

HONOR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 SW중심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활동과 노력을 기울인 학생에게 마일리지 부여
 - 개강총회, MT, 특강, 전공캠프 참가, SW교육봉사단 활동
 - 수강 전공과목 수, 산학 R&D 프로젝트 참여
 - 대내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참가 및 수상
 - 논문, 특허, 시제품제작, SW등록, 국내외 인턴십 참가 등
- 마일리지 평가를 통해 학기당 100~400만원의 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생 뿐만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돌아가는 장학제도

해외 인턴십/연수 지원

- 해외대학 연구 인턴십 지원
 -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생 생활
 - 방학 및 자유학기 중 (2~6개월)
- 해외기업 인턴십 및 연수 지원
 -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이스라엘 기업 인턴십 (2~6개월)
 - 미국, 중국, 독일 IT 창업 연수 (방학 중 3주)

취업연계 산학 장학생 트랙 운영

- 머신러닝 분야 인재확보를 위한 취업연계 산학 장학생
- 최대 2년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산학연구 프로젝트 참여
- 졸업 후 지원 기업에 바로 취업

전공 캠프 운영

- 전공새내기를 위한 SW기초교육 캠프 개최
 - 코딩의 기초를 잡아주는 코딩캠프 (Java, C++, Python 등)
 - 아나두라 (안드로이드+아두이노+라즈베리파이) 캠프
- 전공자를 위한 SW심화교육 캠프 개최
 - 인공지능 (머신러닝) 캠프 / 드론, IoT 캠프
 - OpenCV, 가상/증강현실, Open Source 캠프

프로젝트 중심의 SW전공 교육

- 최강의 개발환경 제공
 - 개발자용 MacBook Pro 무상 대여 (선정 기준 충족시)
 - 개발 공간 제공 - 스마트혁신실 (S-Lab), Coding Space
- Always Coding & Always Thinking
 - 지속적인 코딩 몰입교육과 개발능력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 4대 특성화 트랙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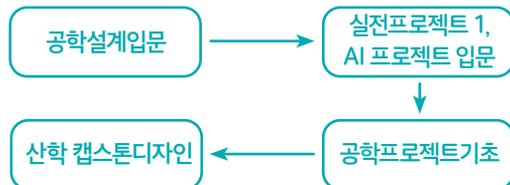
인공지능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VR
게임

- Goal-Driven Project Pipeline



학회 소개

<p>Linux Hackers</p>	<p>리눅스, 임베디드 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 등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소그룹 스터디를 하고, 공모전 참가 등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p>
<p>CRA (Computer Research Association)</p>	<p>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을 기본으로 전산 분야의 신기술을 공부하고,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i7이라는 한동대학교 대표 인트라넷을 구축 및 운영 중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간의 개발과 운영을 경험 삼아 웹 및 모바일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p>
<p>GHOST (Global Handong Oriented Security Team)</p>	<p>2000년 7월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보보안 동아리입니다. 신입생들에게 방학 6주간의 교육 기간을 통해 기본적인 Unix, Network, Linux, 보안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어플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슬기짜기</p>	<p>한동대학교 개교년에 창설되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산동아리로서 다양한 학부생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학기 중에 전공과목 스터디 모임과 각종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SNYM(슬기짜기 신년회)를 통해서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사람냄새 나는 동아리입니다.</p>
<p>SODA (Software Development Academy)</p>	<p>SODA(SOftware Development Academy)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 교육시켜 역량을 키우는 학회로 '배워서 남 주자'라는 정신에 기초하여 저학년을 대상으로 앱 서비스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OD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교육을 통해, 쌓일 수 밖에 없는 실력을 기반으로 실전 프로젝트를 경험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CYCLE 은 다음 학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p>
<p>일본 IT 학회</p>	<p>일본 IT 학회는 일본 취업에 기본 목표를 두며 선교와 일본어 공부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학회입니다. 일본 관련 주제의 IT 프로젝트, 일본 문화 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더불어 일본인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p>
<p>CRAIST90%</p>	<p>배워서 남주는 마음을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CRAIST90%는 세상의 소외된 90%의 이웃들 위해 전공지식과 선교로 세상을 바꾸는 한동 유일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창업 · 적정기술 연구학회입니다.</p>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Mac OS 기초활용 one day 캠프

- MacOS 활용 팁
- Keynote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 Xcode 개발자의 길
- 필수 앱 활용법

Problem Solving in Python 캠프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

- Python 객체 활용법
- Python 으로 주요 알고리즘 구현 기법
- Python으로 데이터 가공/처리/분석 연습
- Python으로 데이터 시각화 연습
- 문제해결 연습

Unity 캠프

- 1일차: Unity기본 (C#기본, Unity Interface, 간단한 실습)
- 2일차: 간단한 게임 만들기
- 3일차: 나만의 프로젝트

C++ 집중 캠프

- 1일차: C 포인터 복습
 - 2일차: C++ STREAM IO, reference, C++ functions, memory allocation
 - 3일차: C++ 기초 (class 및 member function), 생성자, 소멸자, function overloading
 - 4일차: C++ 기초 (상속 및 polymorphism)
 - 5일차: overriding, virtual function, template
- 나머지 5일은 팀프로젝트 진행.

C프로그래밍 캠프

실습 위주의 강의, 팀 활동, C강의 및 DS 강의

머신러닝 캠프

머신러닝 입문 학생, 캡스톤프로젝트 및 R&D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머신러닝 이해와 프로그래밍 능력 증진

음성인식 캠프

음성인식 입문학생, 캡스톤프로젝트 및 R&D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음성인식 이해와 프로그래밍 능력 증진



※ 졸업 후 진로 ※

IT 분야의 진로는 다양성, 채용 인원, 그리고 대우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풍부합니다. IT 기술의 응용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전망도 밝습니다. 그래서 IT 영역은 물론이고 IT와 인접한 영역에서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카/드론/로봇과 같은 여러 국가 전략산업, 첨단산업 등 대부분이 IT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T와 다른 학문 분야를 접목한 융합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어 진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졸업생 취업



인터넷/통신

Google, Naver, Daum, KT, KT DS, LG U+, SK, ETRI(전자통신연구원), 롯데정보통신 등

S/W 및 보안

Microsoft, Oracle, 안랩, 티맥스 소프트, TSB, Infobank, 포스코 ICT, 산업은행 보안팀, 한국IBM, 기업은행 보안팀 등

게임

NC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등

IT 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LG전자, LG Display, LG 실트론, 한화 테크엠, 포스코(POSCO), 팬택, 핸드스튜디오 등

비공학분야

대우증권, 핵융합연구센터, 정부기관, 미래에셋증권, GS리테일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 DGIST(대구경북 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가나다 순)

해외 대학원

Arlingto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Michigan University, Rensselaer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Pittsburgh 등 (ABC 순)

※ 졸업생 이야기 ※



정진영 (97) - Amazon Web Service (AWS) 본사 (Tepper MBA, Carnegie Mellon University 졸업)

한동대학교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서 학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은 저의 커리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오라클에서 DB Engineer와 기술컨설팅을 거쳐 현재 미국 Amazon 본사에서 AWS Cloud 제품전략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의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한동공동체에서 익힌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천성(01) / 서유진(03)- LG전자 CTO 직속 연구소

저희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선후배로 만나 함께 카이스트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재 LG전자 CTO 연구소에서 부부 연구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님의 탁월한 지도로 배운 전공 지식,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문제해결 능력 및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원 및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더 큰 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한서령(09) - 삼성전자

저는 고교 시절 문과를 선택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것을 조금 망설였지만,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었고,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문과생 친구들이 선뜻 우리 학부를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스스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졸업 후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앱 개발 부서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에서 전공지식을 배웠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동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이예준(16)

저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관련 공

부가 무척 즐거웠고 여러 가지의 자격증들을 따기도 하였 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저의 진로로 잡고 고등학교를 진 학하는 과정에서 4지망이라는 원래 희망하던 학교가 아닌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고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대학에서 그저 컴퓨 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 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곳이 한 동대학교였습니다.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제가 바라던 대 학 그 이상이었습니다. 입학식인 한스트에서 9명의 동기 새내기들과 2명의 새내기 섬김이를 만났고, 팀 문화를 통 해 선배들과 교수님을 만났으며, 동아리를 통하여 컴퓨터 를 전공으로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 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들과 뛰어난 동역자들을 통하 여 신앙적으로도 큰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수전공이 필수이지만, 컴 퓨터공학의 경우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통해 컴퓨터공학만 을 단수 전공 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요즘 4차산업과 관련된 분야들을 학부생 수준 에서 접해보고 익힐 수 있으며, 교수님들의 지도를 직접 받 아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 전산전자공학 부에 15개가 넘는 S-Lab들이 존재하며, 랩실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께 지도받으 며 실제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도 큰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도 한 명의 학부생으 로서 전공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낀 니다. 하지만 한동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로 장차 세상을 변 화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함께 변화시켜 보시겠습니까?



정현섭(16)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로 생

각한 저는, 한동대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프로그램인 '예비대학'에 참여하여 '소프트웨어 입 문'이라는 교과목을 선행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 밍을 처음 접하여서 수업의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 움이 많았지만 교수님과 TA (Teaching Assistant)를 맡아 주신 선배님들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해결해서 성공적으 로 수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컴퓨터 공학 심화' 전공을 선택하 기로 확실히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C 프로그래밍' 과 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방학 때 'C언어 캠프'를 통해서 학기 중 배운 C 언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동안 1000줄이 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힘들다는 생 각보다는 즐겁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런 캠프를 진행해준 선배님들께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한동대의 슬로건처럼 방학 중에는 앞서 말한 'C언어 캠프'를 비롯한 여러 캠프들을 통해 전공 선배 님들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셨고, 학기 중에는 학부 스 터디나 동아리 스터디를 통해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여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 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주시 는 교수님들, 함께 서로를 도우며 공부하는 학우님들. 이 런 환경 속에서 저 또한 한동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 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단순히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산전자 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 전자공학 전공



"하나님의 마음,
미래기술의 심장"



전자공학은 물질 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Free Electron)의 운동 현상과 그 응용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현대의 거의 모든 산업, 특히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기반 공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가전, 컴퓨터, 로봇 등의 기본적인 기기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기기, 통신시설, 방송장치 등 대부분의 첨단기기들이 전자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은 매우 넓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따라서 타 분야와 융합의 기회가 많고, 여러 분야에서 전자공학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주요 기술 분야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향후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해 나갈 핵심이 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회로설계 디지털회로, 아날로그회로, RF회로 등 다양한 전자회로를 설계 및 구현하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메모리, SoC 등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분야입니다.

무선통신 및 네트워크 이동통신과 인터넷 장비, 홈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유·무선 통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디지털 신호처리 다양한 신호를 여러 목적으로 가공하거나 분석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영상 압축/처리, 음성 처리/인식, 의료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고성능 저전력 컴퓨터 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 자동차나 의료 분야의 텔레메트릭스, 유·무선 통신기기, 가전기기, 게임기 등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제어 Robot, 공장설비, 항공기 등 대상 시스템의 상태나 출력이 원하는 특성을 따라가도록 입력 신호를 조절하는 분야입니다.

대표 강의



전자회로1

소자들의 특성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로를 해석하고 디자인합니다.

신호 및 시스템(Signals and Systems)

시스템과 신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입력 신호의 주파수 분석 및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디지털 시스템 설계(Digital System Design)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들과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을 공부한 뒤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디지털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특화 랩실 운영

특화된 실험실을 구축하여 대학 학부생이지만 대학원생처럼 공부하고, 연구하며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각각의 Lab(랩)을 배정받아 그곳에서 교수님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등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 센싱 및 무선통신 S-LAB
- IOT & NETWORKED SYSTEM S-LAB
- RANGING&COMMUNICATION S-LAB
- Nano SEED S-LAB
-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Laboratory
- IOT 응용시스템 S-LAB
- COMPUTER GRAPHICS & VISION S-LAB

전공 팀 제도

전자공학과에는 '전공 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전공 지도교수님 팀으로 소속됩니다. 전공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며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졸업 후의 계획을 교수님과 나누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 차원의 행사를 진행할 때, 주로 전공 팀 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같은 학부생들과의 친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제화

- 공학교육인증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 품질을 확보합니다.
- 캡스톤 설계 특화 랩을 기반으로 해외 대학의 학생들과 국제 협력 프로젝트 및 제 3세계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전공 기반의 해외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OECD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혁명 주도!

•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딥러닝) T-커머스 방송편성 시스템 실용화(2017.1)

- T-커머스에서 각 상품의 시간대별 매출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방송을 자동으로 편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용화하였습니다.
-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김인중 교수님, ICT 창업학부 최혜봉 교수님과 전산전자공학부 학부생 8명이 함께 개발하여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 딥러닝(Deep Learning)이란? 심층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로부터 교수준 정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



김인중 교수님

우리나라 인공지능 딥러닝 연구의 선두주자!

- 2012년 국내최초로 딥러닝 CNN 엔진 개발
- 2001년 세계최초의 모바일 한글인식기 개발
- 학회/기업/대학/연구소에서 60여 회의 딥러닝 강연(2017년 3월 기준)
- 2001년 KAIST 우수논문상 (박사논문), 2005년 IR52 장영실상, 2014년 SW산업발전유공자 국무총리상 수상

• IT for Everyone! 미래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솔루션 개발

- 한동대 전산전자공학부 학생들은 교수님과 함께 '배워서 남주자'는 슬로건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 개발은 그들의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중심 개발 프로그램부터 VR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개발까지 다양합니다.
- 전망자와 저시력자를 위한 신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신호 감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카페 주문완료 확인 시스템
- 안구추적,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체장애인 컴퓨터 접근 시스템
- VR을 이용한 장애인 직무교육 시스템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시설 검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황성수 교수님

- 젊은 공학교육자상 수상(2016.11)
- 미래사회를 위한 IT기술 연구
-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솔루션 개발 학회 '시선' 운영
- CGV(Computer Graphics and Vision) Lab(실험실) 운영
-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기념품, 스토리텔링 캠퍼스 개발
- 실내 택배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드론 개발
- 영상지도 개발

교수님 Says! "한동대학교는 나 자신의 소중함과, 이웃의 소중함을 배우며 여러분의 꿈을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려나갈 곳이 많습니다.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소개

<p>Chips Chips (칩스칩스)</p>	<p>Chip Design에 관련된 연구, 토론 및 Chip 설계, 제작을 통해서 회원들의 실력 향상과 한동대학교 내 Chip Design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나아가 관련 단체들과의 정보 교류와 협동 연구를 통해 Chip 관련 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이론 (e論)</p>	<p>팀을 결성하여 기업공모전 참여를 위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고, 전자공학 학술지 스터디 및 연구 과제에 참여합니다. 또한 졸업한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학 및 취업준비 과정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 준비를 관리합니다.</p>
<p>시선</p>	<p>시선학회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특히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IT기술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특정한 기술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라 앱 개발, VR, IoT, 컴퓨터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p>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캡스톤 축제

3~4학년 때 그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하나의 작품을 설계 및 제작합니다. 그 결과를 캡스톤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고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됩니다.

증강현실 캠프

증강현실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고 뷰포리아, Unity, OpenCV 등을 활용하여 실습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의공학 기술, IT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지능형 로봇 등 대부분의 기술에 전자공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공학이 기본이 되는 기술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후 회사를 선택하거나 진학을 할 때 자신이 흥미를 갖고 공부했던 분야나 융합할 수 있는 다른 분야 등 다양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전자회사, 임베디드/모바일 전문업체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IG 넥스원, 팬택, Cisco, Intel, Motorola, Texas Instruments, 핸드스튜디오, 캐논 코리아, 전자통신연구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전력, 에너지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경남에너지 등

공학분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기아자동차, 삼성 엔지니어링, STX 조선, 대양상선 등

비공학분야

대우증권, 핵융합연구센터, 정부기관, 미래에셋증권, GS 리테일, 인바디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 KAIST (한국과학기술원), ICU (정보통신대학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POSTECH (포항공대), GIST (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가나다 순)

해외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Michiga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Rensselaer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Pittsburgh, Arlingto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 (ABC 순)

※ 졸업생 이야기 ※



하동현(01) -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

최근 과학기술발전의 추세는 IT (정보통신기술), NT (나노기술), BT (생명공학기술)의 융합에 있습니다. 각 영역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와 같은 기술 혁신 가운데 IT, NT 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자공학/컴퓨터공학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졸업생들로 하여금 전자공학/컴퓨터공학 계열은 물론, 이와 관련 있는 확장된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수많은 취업과 진학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도 합니다. 전산전자공학부는 여러분의 상상력과 향후 인생 진로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수(09) - 현대중공업

전자공학은 인류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자, 정보, 통신 기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되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전자공학이고,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심해저 석유 시추를 위한 계측제어 기술 분석과 해외영업에 담당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저는 저 스스로 세계를 품고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서부터, 태평양 바다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전자공학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여러분만의 영향력 있는 '가치'를 키워보세요!



오지은(04) - KAIST 박사과정

KAIST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한동에서의 학부생활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전자공학에 대한 성취 동기와 비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폭넓은 연구활동을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한동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동을 경험하게 되면 같은 고백을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권미정 (20)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의 전자심화를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권미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호기심이 많고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 물리파트의 통신부분을 좋아하여 대학교를 갈 때 전자공학으로 진학하고자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배운 전자공학 지식을 개발도상국등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한동대학교가 이러한 적정기술을 생각하고 꿈꾸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배워보니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은 제 생각보다도 엄청 큰 학문이었고, 통신, 회로, 임베디드, 반도체, 로봇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물론 전공공부가 양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힘들 때도 많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도 많지만 캡스톤이나 학회 등을 통해 만난 전공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공부한 덕분에 더 열심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어렵고 깊은 학문이다보니 학부생의 지식에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소프트웨어분야와 잘 접촉하거나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등을 잘 활용한다면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공학이라는 쉽지 않은 분야지만 다른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 기술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생각하며 공부한다면 조금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전산전자공학부는 21세기 산업의 핵심이기도 한 ICT기술과 전자분야를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한동대는 개발도상국의 학교와 교류하여 전산전자공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학부의 학생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과 코딩 등을 직접 개발도상국 등의 해외의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포항이나 경주의 학교에 가서 알려줄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디자인이나 다른 학부와 연합하여 해커톤 등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창업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직접 앱이나 웹을 개발하여 창업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 팀이 매년 꾸러지고 창업대회에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되어 전산전자공학부에 대한 학교의 지원도 다양하여 많은 특강과 방학프로그램을 체험할 기회도 많습니다. 또한 학부에서 진행되는 학부 엠티, 기도회, 공학인증의 밤, 졸업생 멘토링, 학부 합창대회 등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 전산전자공학부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의 비전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거창한 것을 꿈꾸기 보다 매일매일을 열심히, 주어진 것에 순종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배운 지식으로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은 제가 배운 전공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개발도상국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발이 어렵다면 아이디어라도 도움을 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술에 이바지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대학은 20대 초반의 불안정한 본인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대학교에서의 시간이 지적인 배움만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알아가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이 시기에 영적, 지적, 인성적인 배움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영역을 이 곳 한동대학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한동대를 다니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경험을 여러분도 한동대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너무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들은 다 배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동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꿈꾸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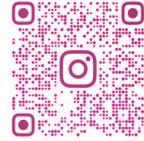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
이사야 58:12

HANDONG GLOBAL UNIVERSITY

콘텐츠융합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 시각디자인 전공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품디자인 전공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첨단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위한 과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인간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지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날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편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UX / UI Design

웹기반과 모바일 기반의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제품디자인

최첨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대표 강의



UX Design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최고의 사용자경험을 도출하고 이를 웹 기반 또는 모바일 기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으로 구현합니다. 기획력, 분석력이 중요시됩니다.

Design Studio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ICT제품의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과목입니다. 여러 컴퓨터그래픽 기술이 사용되며, 사고력과 표현력이 중요시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입시미술시험이 없는 입학

한동대학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는 역시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 드로잉 실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 과정에서 기본적인 드로잉을 공부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드로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표현과 사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고의 발전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며, 창의적 표현 또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입시미술과는 차원이 다른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필요한 표현방법을 배우면서 놀라운 창의력의 확장을 경험해보세요.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복수전공

시각디자인학과와 제품디자인학과를 동시에 전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비슷해 보이고 같은 디자인 영역에 포함되지만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에서 배우는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두 가지 디자인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입니다. 특별히 최근과 같이 학문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산업 시스템이 급속하게 개편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융합적 소양을 가진 인재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사랑

한동대학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도제식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수와 학생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것입니다.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거리감을 두고 강의시간에만 만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교수님들은 학생 개인의 역량을 잘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와 세계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은 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와 산업계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그대로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부와의 긴밀한 융합

한동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은 바로 타 학부와의 융합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축공학, 경영학 등의 타 전공을 배우는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한 팀으로 긴밀하게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The Answer	사용자 경험디자인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UX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 스터디, 멘토링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Magic	다양한 디자인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을 소개하고 배우는 학회입니다. 3D Animation, VFX, Digital Drawing 등 최신의 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최고의 디자인 표현기술을 배우며, 정기 전시회와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DOT	DOT(Design Optical Truth)는 편집디자인을 기본베이스로 삼은 시각디자인 학회입니다. 도터들은 편집디자인의 경계를 확장하고 해체하며 디자인을 보는 안목과 가치에 대해 함께 질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트는 디자인 사조 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 디자인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공부합니다.
Groovy	모션디자인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모션디자인의 최신 트렌드를 탐구하는 학회입니다. 그루비는 영상 툴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개성 있는 시각 언어로 2D와 3D 모션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GYM	자신의 메세지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회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3D, 모션, 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탐구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디자인 캠프

디자인 캠프는 디자인학부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장 큰 학부행사입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형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디자인적으로 의미있는 유명한 장소를 탐방 하며 현장에서 유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선배들의 멘토링과 국내외 유명디자이너들의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워크샵

디자인 워크샵은 학생들의 전공 실습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된 방학 중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계절학기 이수기간에 맞추어 동영상 편집, 실크스크린, 디지털 드로잉 등을 배우고 실습하며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디자인 페어

매 학기 말 일주일 간 각 과목에서 선정한 학생 작품들을 학부 복도에 마련한 전시 공간에 전시를 합니다. 또한 매 해마다 특별한 장소를 선정해서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이 기간은 졸업동문과 관련 기업 인사, 각 학교 교수님들이 찾아오시는 매우 중요한 연합의 장입니다.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의 모든 작품들은 이러한 전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고 각 학생의 소중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제품디자인 전공 졸업자들은 주로 국내외 ICT기업들에 활발하게 진출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추세는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들도 디자이너 고용에 많은 관심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UX/UI리서치와 제품디자이너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진출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Google,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삼성SDS,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라인 등

중소기업

매니페스토디자인랩, 나인피엑스, 샘파트너스, 히든피겨스, DNA, 이니션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 대학원, KAIST대학원, 포항공대 대학원, 국민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Michigan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New School of Visual Art 등

※ 졸업생 이야기 ※



주영민(96) - (주)히든피겨스

더 이상 세상이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 속에 나의 20대는 과연 지금과 달리 평온했었던가 되짚어봅니다. 그때도 시대의 변화와 생각의 속도는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질식하고도 남을 만큼 막막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발을 디는 우리의 연약한 두 손에 들려지게 될 것은 비단 졸업장만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멘토 교수님과 의 만남과, 나 혼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을 창의적 사고방식과 기술의 숙련, 무엇보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실재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함께 주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날 그 길의 가치는 비단 하나의 전공 수준을 넘어, 이 시대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사상(디자인씹킹)으로까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Dive-in 하세요. 디자인은 일개 전공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지식이자 관점, 태도입니다. 당신의 삶의 궤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름다운 질서에 담긴 시각적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심리를 근간으로, 매체와 도구를 가리지 않는 배움과 경험을 대학에서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각/제품/영상/공공/공간/서비스 디자인 등 전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 커리큘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돕는 공동체적 환경이 그것을 가능케합니다. 이 귀한 기회를 얻었던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한동의 디자이너들이 현재 국내외 주요 기업 및 학계, 스타트업 Scene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소연(15) - LG유플러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UX/UI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는 UX/UI 디자이너와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였던 한 프로젝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전공을 선택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즈빈스*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음료 레시피를 암기하시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지 아시나요? 바로 2년입니다.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을 읽고 또 읽으며 외우지만, 잘 외워지지 않아 도중에 바리스타 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레시피 암기 게임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저는 그 중 UX/UI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선생님들을 만나 레시피 암기에 어려운 점들을 물어보았고 이를 토대로 밤을 새워가며 앱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앱 사용이 어렵지는 않을까?', '재미있게 만들어야 할 텐데...', '최대한 카페환경이랑 비슷해야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야' 등등의 수많은 고민을 통해 탄생한 앱을 선생님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을 부탁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저 이거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재밌어요",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좋아하는 게임으로 레시피를 외우니까 좋아요" 등등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 밤새웠던 피곤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선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히즈빈스는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양성하여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조서현 (22)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술에 흥미가 생겼고 그 마음이 고등학교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하게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동대학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선택한 결정 반인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저 누구나 될 수 있는 디자이너로 성장할 것이라 믿었던 저는 실력 좋은 디자이너를 넘어 더 큰 것을 느끼고 얻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능력을 많이 얻었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교수님들을 통해 기초를 잘 쌓는 능력부터 수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찾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의 작품을 끝까지 최고로 만들어 완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과제와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고 알려주고 공유하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은 무엇일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동대학교 표어인 ‘Why not change the world?’를 디자인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여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그 생각을 멈추고 이 곳에서 첫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 와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융합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 시각디자인 전공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각디자인 전공에서는 창세부터 4차산업시대가 대변하는 현재와 미래까지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창의성 개발과 창의적 표현 향상에 교육의 목표를 둡니다. 이러한 창의성 위에 시각언어와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로 디자인을 배워 나갑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초 조형과목, 디자인 소프트웨어 과목과 사진 등 표현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언어를 배우며 타이포그래피, 편집디자인 등을 통하여 문자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훈련된 시각언어와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시각디자인의 세부전공으로는 예술과 인문학, 마케팅을 접목한 브랜드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과정이 있으며 공간과 소리언어를 접목시킨 디지털모션그래픽, 타임앤스페이스디자인 등의 영상디자인 과정과 사용자경험과 디자인리서치를 접목한 서비스디자인 과정이 있습니다.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의 시각디자인 전공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문적 융합을 토대로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을 닮은 능력있고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Graphic Design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트, 인문학,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발상과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훈련을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와 콜라보레이션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

Brand Design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상품서비스에 맞는 브랜드 개발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형태의 응용디자인에 대해 연구하고 실습합니다.

Service Design

다양한 관점의 문제정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용자경험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 관점의 해결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Digital Motion Graphic Design

영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며 After Effect를 이용하여 기초영상 편집 툴을 배우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영상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Graphic Design

그래픽디자인과 광고디자인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디자인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둡니다. 기본 이론과정과 응용학습을 통하여 모든 디자인의 기본이자 중심인 다양한 타이포그래피의 표현과 철학, 기법 등을 학습하고 실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또한 현 시대의 그래픽디자인과 광고디자인의 영역과 역할을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을 훈련합니다.

Brand Design

모든 디자인, 경영, 마케팅, 광고 홍보 등의 통합적 개념인 브랜딩을 이해하고 C.I (Corporation Identity), B.I (Brand Identity)를 배웁니다.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을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하여 현장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키웁니다.

Design for Behavior Change

서비스디자인 세부전공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기본적인 4D(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이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세부적인 컨텍스트를 분석하며, 다양한 디자인 리서치 이론의 학습과 실습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해결안을 만들어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Digital Motion Graphic Design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본적인 툴과 과정을 배우는 시간으로 다양한 예제를 통해 수업하며 영상디자인 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동시에 학습한 툴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제 등 실습을 통하여 디지털 영상제작과 영상디자인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영상디자인 세부전공의 기본이 되는 수업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무실기 선발!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역시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 스케치 실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강의 과정에서 기초적인 드로잉을 공부하게 되어 입학 후 연습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수준의 스케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표현보다도 아이디어에서 그 수준과 탁월함이 결정됩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개성은 실기시험은 물론 필기시험으로도 평가할 수 없겠죠? 한동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좋은 수준의 표현력과 더불어 훌륭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디자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연계전공

제품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를 동시에 연계전공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같은 디자인 학과지만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에서 배우는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서 두 가지 디자인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디자인 경력과 실력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됩니다.

교수님의 제자사랑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과의 잦은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거리감을 두고 강의시간에만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님들은 필드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크리티크와 컨펌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학부와의 손쉬운 융합

한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바로 타학부와의 융합입니다. 학부나 학과 내에서 주로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는 타 학교들과는 달리 한동대 디자인학과는 기계, 전산전자, 경영경제 등의 다른 학부 학생들과 손쉽게, 그리고 수준 높게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회 소개

GYM	디자인의 특성 중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나아가 한동대의 복수 전공제도를 바탕으로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은 물론 다른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DOT	점을 뜻하는 도트(DOT)는 평면과 입체, 텍스트와 이미지 등 그래픽디자인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입니다. 그래픽디자인학회 도트는 무한한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DOT에 Design Optical Truth 라는 뜻을 담아 그래픽디자인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디자인 캠프

디자인 캠프는 디자인학부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장 큰 학부행사입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큰 전시회를 중심으로 교수님과 학부생들이 함께 캠프를 가게 됩니다. 캠프에서는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과의 만남, 평소에 디자인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유명디자이너들의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콘텐츠융합디자인 학부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송국,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 연구소, 뉴미디어, 대기업, IT업계,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계, 광고업계, 영상 분야 등의 업계에서 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본 전공을 이수한 한동대 졸업생들은 대기업, KBS방송국 외 기타 방송국,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KBS, 연합뉴스, 문화방송,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삼성, LG, SK, 다음카카오, NC소프트, (주)파올러스, 산돌커뮤니케이션, 매스씨앤지, SWYP(스와이프) 등

Havas Korea, 매일경제, Vinyl X, 네무스텍디자인, 모티브플러스, 뷰 애드디자인컨설팅, 선광 커뮤니케이션스 등

매니페스토디자인랩, 쌤파트너스, 사이픽스, 이랜드, 크레이, 히든피겨스, 가인지캠퍼스,

두란노, 모라비안유니타스, 예수전도단 출판사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한동대학교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Rhode Island School of Desing (RISD), School of Visual Arts (SVA),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ratt Institute, hfG Offenbach(독일), MICA(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University of Michigan,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윤여준(03)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자인팀에서 UI디자인을 하고 있는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03학번 윤여준입니다. AI, 클라우드 등 기술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한동대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입시미술을 하지 않은 채 디자인을 전공하고 실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밀도 높은 커리큘럼으로 시각디자인 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고,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작업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IT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기에 개인보다 제품을 만드는 팀의 역량이 중요해졌고, 이는 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협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동대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관련 기초 수업을 통해서 엔지니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년간의 팀활동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경험하였고, 실무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좋은 성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동대에서의 경험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동대에서의 경험이 다가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은혜(12) - 스튜디오 에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동대학교에서의 학부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것을 그려낼 수 있을지 폭넓게 경험하며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미술을 배우지 않은 저에게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은 단순히 그래픽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혹은 서비스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방향성, 아이덴티티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학 시절 우연히 영상에 큰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비주얼 광고 프로덕션 '스튜디오 에덴'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재학 시절 경험한 이런 배움들이 영상 기획, 아트 디렉팅, 콘텐츠 제작 등 제가 하는 일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디자인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과 성격적인 가치관을 베이스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들만 원하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디자인학부의 슬로건처럼요.

※ 재학생 이야기 ※



김진주(18)

디자인은 참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상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생각만 하던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게 합니다. 디자이너는 단순히 걸모습을 아름답게 치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해결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면서도, 이성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다방면의 지식을 얻고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디자이너야말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한번도 디자인을 공부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한동대학교에서 단순히 그림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시각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배우는 디자인은 화려한 스킬로 사람들을 감탄시키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디자인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겨져있는 의미와 이야기가 더욱 아름답기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한동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디자인은 여호와의 경외하며 주께 지혜를 구하는 디자인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는 항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마다 감탄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이혜린(18)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에 이끌려 한동에 오게 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결정은 수많은 학부 중에서도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를 선택한 일입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지, 세상을 향해 디자인을 통하여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을 졸업한 저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들께서는 누구나 디자인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드백과 크리틱으로 학우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입시미술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해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한동에서 끝없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창의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하기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각자의 개성을 통해 컨셉과 디자인의 목적에 맞게 작품을 만들면서 끝없이 관점을 넓힐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결과물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에서 함께 더 배우고 끈질기게 달려볼 학우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
잠언 16:9

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 전공 /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Creation beyond
Technology:

Forging the future
with Stewardship
Innovations

(기술 너머의 창조)"



교육목표 미래산업의 동력이 될 ICT를 기반으로 다학제간 융합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실습을 통한 융합 경험을 목표로 하는 전공입니다.

전공소개 인문사회 및 문화 분야의 인간중심 감성과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지식인 ICT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이론과 실재를 교육합니다. 타 학부 전공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새로운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융합분야의 지식·정보 서비스 기획자 및 ICT기반 분석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중점역량: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개발, 전산학적 사고, 데이터분석, 요구사항분석, 기술 문서 작성
- 중점분야: 빅데이터, 모델링&시뮬레이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비주얼미디어(VR/AR)

전공 더 깊이 알기



ICT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의 교육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검증/분석/시각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다뤄 봄으로써 융합 인재로서의 소양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난 대피, 식당 서비스 개선 등의 문제부터 국방, 물류, 자연환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컴퓨터 활용에서 찾습니다. 컴퓨터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표현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분야 인간(사용자)이 스마트폰, 가전기기, 자동차 등의 컴퓨터 기반 정보통신기기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즉, 인지(심리학)공학, 감성공학, 사용성공학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경험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ICT제품과 서비스를 기획, 설계, 구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합니다.

비주얼 미디어분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증강현실 등과 같은 다양한 비주얼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통찰력과 과학적 해결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ICT융합전공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래밍과 데이터활용 교과목 이 외에 다양한 전공과 융합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강의



ICT 융합입문

ICT 입문은 제품에서부터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융합에 있어서 그 도구가 되는 정보통신기술(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가치와 의미를 점검하는 과목입니다. 특별히 ICT를 도구로 활용하여 융합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한 윤리와 가치관, 철학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ICT와의 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융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얻게 됨과 동시에 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I

프로그래밍은 IC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프로그래밍 기초를 습득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프로그래밍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수업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문법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를 컴퓨터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계산과학적 논리사고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래밍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로봇 프로그램, 레고(LEGO), 사진 합성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각 프로그램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정보화 사회에서는 방대한 정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정보는 정보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지만 분석을 통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 과목은 방대하고, 무의미한 정보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를 위하여 빅 데이터 분석 과목에서는 방대한 정보 수집 방법, 통계적 분석 방법 및 도구를 활용한 분석법,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회 소개

BEST	BEST는 Business Enjoy Study Together의 약자로 DBR 읽고, 인사이트 나눔 하고, SNS로 비즈니스 트렌드를 공유하고, 작은 질문으로 토론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학회입니다.
HCIE	HCIE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s & Ergonomics의 약자입니다. 폭넓은 HCI 분야 중 각자 관심있는 주제를 나누고 함께 연구하는 랩실입니다. 인간 공학적인 기술을 연구합니다.
SIRIUS	기능성 게임 개발 학회입니다.
메타몽 (Meta 夢)	다양한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방법을 연구 및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메타버스 학회, 메타몽입니다. 사도행전 1:8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T-LAB	기술 창업학회(T-LAB)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수요 예측, 생성형 AI 등)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연구를 하거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빌드업 하는 연구실입니다.
DAL (Data Analysis LAB)	DAL랩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며, 이를 토대로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활용하여 각종 프로젝트, 논문 작업, 산학 연구, 스터디 등을 진행하는 랩실입니다.
CGLab (Computer Graphics Lab)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 및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기술 및 동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선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컴퓨터 그래픽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함이 목적입니다.
AIMV (AI Medical Vision)	AI를 활용하여 computer vision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AIMV입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의료분야, 3D생성 등등 이미지 기반의 task를 위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ROBO ADVISOR	금융과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만남!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금융 및 투자와 관련된 이해를 증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상 및 개발하는 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통계캠프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기본 역량을 학습합니다. 통계 프로그램 학습, 기초 통계 이론, 고급 다변량 통계,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골고루 학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수학캠프

고교 인문계학생 또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공학 관련 수업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등수학(기초수학) 과 고등수학(기본수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강의형 캠프입니다.

프로그래밍 캠프

프로그래밍 개발언어, 게임 개발언어 등 ICT 관련 제품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비교과 캠프입니다. 지원 여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나 개발 툴에 대한 인증활동까지 포함합니다.

3D 프린터, IoT 캠프

ICT 관련 제품 및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의 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비교과 활동입니다.

* 모든 프로그램들은 학부내의 타전공(ICT창업전공, ICT융합전공)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ICT융합전공은 이전 “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15년도에 개설되고 운영이 시작되어 2018년부터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ICT융합전공과 한동대 기타전공을 연계전공하였을 때, 예상되는 진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지역학 전공	데이터기반 국제정세 분석가	기계공학 전공	자동차, 선박, 항공 UI/UX전문가, 인간중심 엔터테인먼트 로봇개발
영어전공	지능형 번역/대화 서비스 전문가	전자제어공학 전공	데이터기반 자동차 제어 전문가, 인간중심 VR장비 개발자
경영학 전공	경영정보시스템 기획/개발/운영자, 데이터/VR기반 마케팅 전문가	시각디자인 전공	정보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전문가, AR기반 시각디자인
경제학 전공	데이터기반 금융분석가, 금융공학	제품디자인 전공	UX& 서비스 디자인 기획자, 프로토타입 개발자
한국법 전공	법정보서서비스 기획자	생명과학 전공	뇌인지과학, 유전자데이터 분석가, 계산학적 뇌영상분석/생물학 전문가
US&International Law 전공	데이터기반 판례분석 전문가	상담심리학 전공	데이터기반 심리분석가, VR기반 심리치료 전문가
공연영상학 전공	Novel 영상기법 기획자, 문화·기술 융합 공연기획자	사회복지학 전공	지능형 복지 설계전문가, 텔레프레전스 기반 복지 전문가
언론정보학 전공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기반 저널리즘 전문가	IT 전공(100% 영어)	글로벌 SW기획자, 개발자, 분석가, 운영자
건설공학 전공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전문가, VR기반 건축가	전자공학 전공	IoT 제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운영
도시환경공학 전공	도시/교통 계획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VR기반 도시설계전문가		

※ 졸업생 이야기 ※



심재혁(14) - StradVision
알고리즘 엔지니어

저는 현재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StradVision'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중요한 키워드인 '인공지능' 업계에 몸담을 수 있던 이유는 한동대학교에서 ICT융합전공을 통한 전산학적사고 함양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및 교육 덕분입니다.

ICT융합전공은 ICT융합연구 및 활용역량 함양을 통해 전산학적 사고와 이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전공입니다. 저는 해당 전공에서 다양한 최신기술을 접하고 관련 프로젝트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도 키울 수 있었고, 개발자의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는 ICT융합전공은 저에게 도전정신과 전산학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동대학교 ICT융합전공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교수님과 학생의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고민에 대해서도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제가 학부생 시절 어려움이 있을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분야는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계속 마주하는 최신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배운 전산학적 사고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고, 낯설지만 공부해가며 알고리즘 엔지니어의 자리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길 원하는 후배님들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김대훈(12) - KEB하나은행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한동대학교는 여러 대학 중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유일한 대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신앙 및 인성교육, 무전공 무학부 제도, 팀제도 문화 등 한동대학교만이 가진 장점들 때문에 한동대학교만을 지원해서 큰 기대를 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시점에서 저는 한동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심을 두고 있던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으면서 미래기술인 ICT 전공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ICT창업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학부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배웠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끄는 ICT 기술인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전공 공부를 넘어서 학부의 든든한 지원과 교수님들의 지도로 산학연계 프로젝트, 국내외 논문 투고 등으로 전공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KEB하나은행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배웠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ICT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입생분들도 한동에서 주변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가는 귀한 대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선한결 (18)

“Creation Beyond Technology”,
기술 너머의 창조. ICT창업학부는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첨단 ICT/AI 기술의 창의융합적 활
용 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저
는 2023년도 2학기 ICT창업학부 대표 18학번 선한결입
니다. 저는 ICT융합과 데이터사이언스를 전공하며, 빅데
이터와 AI에 관심을 가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원단 활동을 두 차례 경험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학부를 위해 힘써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
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임원으로 학부를 섬기
는 것과 학부 대표로 섬기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원이라
면, 현재는 우리 학부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부 공동
체를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하
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학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
에 나왔으며, 그만큼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
런기에 ICT창업학부 학부생들의 큰 장점인 관계의 끈끈
함을 가지고 좋은 네트워킹과 협력의 장을 형성하고 싶
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글
로벌 기업가정신과 ICT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하
고 성장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학부는 동기를 부여하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학부에서는 학부생 교류사업, 졸업생 특강, 랩/학회 설
명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부생들 간의 끈끈한 관
계를 만들고, 학부생들의 견문을 넓히며 다양한 학문 분
야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ICT창업학부에 관심을 가지며 전공으로 삼고 싶은 고등
학생 및 신입생 여러분, 각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분
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와 접목해서 ICT역량을 키
운다면, 4차산업 혁명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금방 적
응하여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ICT창업학부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며 세상을 변화
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 전공 /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Creation beyond Technology:

Forging the future
with Stewardship
Innovations

(기술 너머의 창조)"



교육목표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 (ACE) 전공 전공은 기술 혁명 시대의 핵심 원동력인 AI 지식을 함양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AI 기반의 창조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창업자 및 혁신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AI 기술적 소양, 창조적 어플리케이션 기획, 사업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인문사회 및 문화 분야의 인간 중심의 감성과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객관적 지성을 융합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공소개

- ACE 전공은 (1)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데이터과학 등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AI의 '기술적 소양'과 (2) AI 기술 기반의 창조적 제품기획 및 각 산업 분야 융합 등을 포함하는 '창조적 응용' (3)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신시장 분석, AI 기반 솔루션의 사용자경험(UX)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기술 사업화'를 3대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 대응하는 세부 과목은 별도의 <ACE전공 교과목> 표를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역량 교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취적 창업가: AI 기반의 창조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창업자 및 혁신가를 양성

혁신적 기획자/경영자: 다양한 역량과 분야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실현시킴

글로벌 정보전문가/분석가: 정보기술활용 역량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식산업을 선도함

전공 더 깊이 알기



창업전공이라고 해서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하는 전공은 아닙니다. ACE 전공은 창업 활동 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업가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하는 전공입니다. ICT창업 전공 학생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기업가적 능력과 도전정신, 개척정신,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ICT활용 능력을 우리 주변의 실제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형/실습형 강의를 통하여 습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ICT창업전공의 학생들은 3D 프린팅 활용 경진대회 중 창업 부분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논문을 작성하는 등 학술분야부터 공모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 강의



AI 기술소양 과목 프로그래밍 I, 데이터 과학, 데이터 관리와 활용, 웹서비스 기획 및 실습, AI 융합과 응용,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마이닝 실습, AI 이노베이션 등

AI 창조적 응용 과목 AI 혁신 사례연구, 제품 기획 및 개발, 유망기술 분석론, 아이디어 개발 및 프로토타이핑,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등

사업화 역량 과목 기술 창업론, 글로벌 기업가 정신 입문, 문제해결 방법론, 비즈니스 모델 혁신, AI 캡스톤 등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ICT창업학부내의 GE전공에서 소개된 활동(비전캠프, 현장견학, 창업캠프 등)과 ICT융합전공에서 소개된 활동(통계캠프, 수학캠프, 프로그래밍 캠프, 3D 프린터&IoT캠프) 등을 공유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StartUp Demoday참가, 관련 학술대회 참가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ACE 전공은 2016년 2학기부터 개설되고 운영이 시작되어 2018년부터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 내의 기타 학부&전공을 연계전공 하였을 때, 개척할 수 있는 진로의 예는 'ICT융합전공의 졸업 후 진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GE전공의 졸업생 진로 내용은 GE전공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생 이야기 ✧



**박상운(14) - 외국계IT기업
(클라우드 가상화 소프트웨어부문)**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공대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6년 한동대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심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산업과 기술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공부나 필요한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CT창업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ICT창업학부에 있으면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해외 탐방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 직전에는 해외 경험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OECD에서 반년 동안 인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대의 자유학기제를 통해 1학기를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이것은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이었던 저에게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첫 직장은 클라우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외국계 IT기업이 되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취업에 급급하고 성적에 얽매는 것보다 기회를 찾아 도전하였던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동대학교의 편입은, 그리고 ICT창업학부에서의 공부는 모두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이런 변화들을 보시며 지금은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제 삶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망설임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한(14) -
원프레딕트(스타트업)**

2018년 8월,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실제 공장 운영 업체와 함께 공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보편화되는 한편,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 한 칸 규모의 작은 공장에도 복잡한 전자기기와 시스템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교육을 위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실무자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해결능력과 기술활용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한동대학교의 ICT창업학부는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역량을 기르는 GE전공과 ICT역량 및 기술활용역량을 갖춘 ICT융합전공이 합쳐져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입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팀프로젝트 수업을 여럿 수강해 유통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수행하고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배운 ICT역량을 기반으로 현재도 필요에 따라 컴퓨터 비전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ICT창업학부 안에서 함께 밤을 지새며 회의하고, 울면서 코딩하던 동기들이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만나서도 여전히 서로의 비전을 묻고, 한동의 가치관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그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신입생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권동환 (15)

“Why not change the world”
는 한동대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 그리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ICT창업학부는 세상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학부입니다.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이 제게는 늘 가슴 뛰는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ICT창업학부의 매력은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이해 또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경영자로, 디자이너로, 그리고 개발자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훈련이 요구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은 스스로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사회에 나가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가슴 뛰는 일이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가슴 뛰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ICT창업학부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한효정(16)

제 비전은 ‘통일을 준비하는 기업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업이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mindset을 정비하고, ICT기술에 대해 공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수업은 실무, 현장 중심적입니다. 교수님들이 겪었던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이론만 있는 전공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제와 해결과정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팀프로젝트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때와 같은 암기를 벗어나 체득하는 공부를 경험합니다. 또한 학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들, 창업캠프나 3D프린팅 캠프, 해외(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등) 청년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은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저는 중국 심천에서 소셜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창업가, 투자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우리 사업계획서를 피칭해보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위챗 페이를 보고 돌아와 핀테크 개발 관련 수업을 들으며 블록체인과 핀테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이 하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십니다. 이 학부는 단순히 4년 간의 배움을 넘어 삶의 비전을 고민하고 모든 과정에 배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사회의 문제들을 지나칠 수 없고, 지나치기 싫고, 바꾸어 나가고 싶은 한동인이려면, ACE 전공을 추천합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역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ICT 창업학부

ICT융합 전공 /
AI Convergence & Entrepreneurship 전공 /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Creation beyond Technology:

Forging the future
with Stewardship
Innovations

(기술 너머의 창조)"



교육목표 GE(국제 기업가정신) 전공은 창의, 융합이 키워드가 된 시대의 흐름에 가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전공입니다. 타전공의 역량과 함께 GE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연구 역량을 쌓고,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래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인재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GE전공은 지성, 인성, 영성 세 가지 차원에서 탁월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각자에게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소개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운영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업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공입니다.

- 중점역량: 기업가정신, 시장/문제분석, 프로젝트 기획, 비즈니스 개발, 문제해결, 아이템개발
- 중점분야: 창업실행, 실무 마인드셋, 시장조사 및 분석, 회계 및 투자, 마케팅, 법/윤리적 경영 기법

전공 더 깊이 알기



창업 전공이라고 해서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창업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학생들이 창업가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공입니다. 즉, 기존의 교과서적인 지식을 넘어서 기업가적 능력과 도전정신, 개혁정신,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각종 프로젝트형, 실습형 강의를 통해 습득하고, 졸업 후 진학, 취업 및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대표 강의



제품기획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 향상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 발상 및 아이템 개발활동을 합니다. 실행 결과물로 공모전 수상이나 대학 프로젝트 개발, 지자체 프로젝트 진행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Go To Market (고급 마케팅 실무) 말 그대로 "시장으로 가자" 라는 주제의 수업입니다. 즉 기업이 신사업을 기획하고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고민하게 되는 소비자조사, 유통, 판매증대 등의 활동들을 실제 사례연구와 팀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합니다.

기업가정신 입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 수업으로 혁신적 사고를 배우게 되며, 미래 지향적 도전의식과 열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개척할 수 있는 자신감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GE전공의 교육을 받은 학부생은 다음의 네 가지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즉 자신의 비전(미션)발견과 개발능력,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균형 잡힌 사고능력, 스타트업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도전적이며 체계적인 실행능력입니다.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각종 성적과 스펙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GE전공의 학생들은 우리 주위에 산적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우수성보다도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할 것인지 찾기 위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Why not change the world?”에 답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GE전공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핵심역량장학금, 우수학생유치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

- 각종 교내외 캠프 운영 및 지원: 통계, 수학, 프로그래밍, 창업, 진로 캠프 등
- 역량향상 행사 운영: 명사초청 세미나, 특강
- 연구실 운영 및 연구 활동 지원: 연구실 운영 및 연구원 활동지원, 학술논문 집필 및 발표 지원
- 산업연계 활동 지원: 관련 산업체 현장 답사, 인턴십, 자유학기, 산업연계 프로젝트 지원
- 체험형 학습 활동 지원: 해외 단기 연수 및 교환학생 지원, 글로벌 창업현장 체험
- 다양한 학생활동 지원: 동아리, 교내 학회, 공모전, 경진대회 지원, 관련 전시회, 박람회,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가 지원

학회 소개

로보 어드바이저 랩	지능형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
기술창업 학회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트렌드 연구 및 기술 창업 실전 연구, 특허청, 기술혁신 학회 등 우수 논문상 수상
The Best 학회	매달 발간되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를 읽고 관련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학회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비전캠프

매 학기 시작 전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곧 진행될 학기의 수업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미리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장견학

학생 각자의 비전에 맞춘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학생이 기획하고 찾아가는 '비전 찾기 견학'과 다양한 기업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의 최전선의 전문가들로부터 특강을 듣는 기업 탐방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ICT창업 세미나 특강

다양한 분야의 선도자, 실무자, 사업가를 초빙하여 현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문하며 전문가와 멘토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캠프

국내와 다양한 창업전문 멘토 그룹을 초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래밍, 스타트업 마케팅, 창업 행정법, UI/UX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 모든 프로그램들은 학부내의 타전공(ICT창업전공, ICT융합전공)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GE전공에서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 졸업생들의 진로는 창업, 대학원 진학, 취업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졸업생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진로 속에서 GE전공을 통해 배운 기업가정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치를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GE 졸업생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현대자동차, 네이버, LG CNS, LG U+, CJ대한통운, LG HS애드, SK플래닛,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중견기업

바이오스페이스 등

벤처기업 및 개인창업

모노태스크, 핸드스튜디오, 비움소프트, 앤벗, Cafe4M, New York Oven 등

졸업생 진학



국내 대학원

HILS (한동국제법률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

해외 대학원

Rosalind Frankli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Chicago Medical School, I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졸업생 이야기 ※



**박현성(08) - 한국경제연구원
(KERI)**

2009년, 제가 GE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생소했던 '기업가 정신'이 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동대학교의 GE전공을 통해 만나는 기업가정신은 보다 더 특별합니다. 경제 성장, 혁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성을 바탕으로 비전을 품고 어느 분야에든지 뛰어들어 선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기 다른 연계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오며, 개개인의 지식베이스를 넓히는 동시에, 향후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람과의 협업에도 두려움보다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가지며 유연한 사고와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GE전공에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호(16) -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저는 26살에 편입학으로 들어온 늦깎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이미 2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는 제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나 훌륭한 공동체였고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후배들과 교류하며 지낼 만큼 너무나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학교입니다.

제가 GE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단순 암기 과목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GE전공을 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기르고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하기 위해 스스로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거나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제가 기업가정신을 키워 나가고 전략적 사고 방식을 기르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는 제가 학부생 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ICT창업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학부 내 모든 교수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시고 졸업한 선배님들 또한 학부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ICT창업학부에서 본인의 꿈을 키워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진혁(16)

대학교 새내기 시절 제 전공과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ICT창업학부 교수님 덕분에 선택한 ICT창업학부의 GE 전공은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GE전공을 선택했을 때 주위 친구들은 'ICT창업학부와 GE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거기는 결국 창업을 위한 것 아니야?'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GE전공을 몸소 체험하고 공부했을 때 느낀 것은 단순히 창업을 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한 GE전공의 차별점은 바로 고등학교때까지 해왔던 교과서적 공부, 즉 이론중심적 학습에서 탈피하여 직접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면서 얻는 실패와 성공들을 통해 실무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GE전공 수업들을 수강해보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문제들을 발굴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더 나아가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GE수업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팀 프로젝트 형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팀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및 의견을 조율하는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ICT창업학부에서는 졸업생 특강이나 ICT창업캠프 등 다양한 행사와 캠프들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기업가정신 역량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저 또한 학부에서 주최한 행사와 캠프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고 졸업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역량들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GE전공의 핵심 가치는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은 문제 발굴, 아이디어 구상 그리고 이것을 실제 제품화 혹은 서비스화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에서 가장 뒷받침되어야 하는 태도이며 우리 학교의 슬로건인 'Why not change the world?'를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들을 GE전공을 통해 배우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김다정(17)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정신을 배우며 문제를 더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설득하며 조율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며, 훌륭한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나의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창업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ICT창업학부입니다. 4년간의 학교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활용하여, 더 넓은 세상에서 반짝이는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Creative Difference Maker. 세상을 바꿀 여러분들에게 ICT창업학부는 또다른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로마서 8:37

HANDONG GLOBAL UNIVERSITY

창의융합 . AI융합 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전공
-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전공
-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전공
- 수학통계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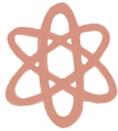
AI융합교육원

- AI융합전공
-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창의융합 교육원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교육목표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생 개별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전공으로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공소개

학생설계융합전공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전공의 틀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전공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전공으로는 발휘할 수 없었던 학생 재능 발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생설계융합 전공 신청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본인 전공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전공만족도는 세부 주제 및 전공 지식에 대한 높은 학구열을 갖게 만들어 특화된 전공에 대한 강한 내적동기로 인한 삶의 성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3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명

학생설계융합전공은 글로벌융합전공과 마찬가지로 학생 스스로가 설계가능하며 3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단, 한동대학교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전공과 유사한 전공은 불가능하며, 학위명은 한동대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여됩니다.

제2전공만 이수가능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한국인국적 학생에 한하여 제2전공(33학점)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당시 전체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만 신청가능하며 학번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공 신청과 절차

학생설계융합전공은 학기말에 온/오프라인으로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학생설계융합전공 지원서와 전공변경신청서(3학기 이상의 경우만 제출)이며,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에서 지원서류를 심의 후 합격 학생에게 개별안내를 합니다.

전공 설명회 및 커리큘럼 구성 워크숍

학생설계융합전공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 학기말과 학기 초에 전체 학생대상으로 전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학기 말에는 전공 희망자 및 관심자 대상으로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 교수님과 함께 전공 커리큘럼 구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HGU 학생설계융합전공

* 졸업생 이야기 *



조하늘 (15) - 학생설계융합 전공 / 통일사회학

저는 각자 다른 전공 영역인 국제정치, 법학, 사회학 등의 시각에서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통일 전후 남북한이 겪게 될 정치·법·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일을 준비하고자 '통일사회학' 전공을 설계했습니다.

학생설계전공의 큰 장점은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공의 이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지도교수님을 정하고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저는 '왜 통일사회학 전공을 공부해야 하는지', '통일사회학 전공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목표가 생기고 나니 전공공부를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전공'이라는 생각에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학생설계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존 과목들 중 비교적 부족한 사회학 관련 과목들이나 북한학 관련 과목들을 더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사회학 관련 과목은 교환학생을 하며 학점 인정을 받았고(헝가리 KRE 대학 - Cultural Anthropology, Family and Gender, Irregular Migration 등), 북한학 관련 과목은 계절학기를 이용해 타 학교에서 학점교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여대 - 북한학).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개별연구를 진행하며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외에 다른 전공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던 저에게 학생설계융합전공은 새로운 도전이자 제 대학생활을 이끌어 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전공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 기존의 전공을 융합해 다각도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추천드립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은지/국제개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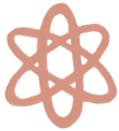
저는 국제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전공을 설계했습니다. 3학년 2학기까지 이어졌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저를 학생설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국제지역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했던 저는 국제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관점과 영역을 공부하고 싶었고 이에 전공을 넘나들어 '국제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며 나만의 길을 찾고자 학생설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설계를 통해 경영, 사회복지, 도시, 국제지역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열리는 국제개발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관심있는 주제를 공부하여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지식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시기에 전과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학생설계를 통해 전공 공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친구들 특히나 전공에 대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학생설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생설계를 통해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게 되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뿐 아니라, 나만의 길을 고민하고 개척할 때에 수반하게 되는 깊은 고민과 노력들은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며 길을 찾아간다는 것의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하나뿐인 나만의 길을 위한 전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는 직접 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다루는 수업들을 많이 들었고 특히 김영길 그레이스스쿨의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교과목을 여러과목 이수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제 개발 전문가들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셔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난민과 관련된 교육분야에서 일하시는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난민 아이들의 이야기를 엮어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진로와 부름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하는 최고의 길이 학생설계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전공을 직접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분야를 만들어 가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존의 전공들을 융합하여 특정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접근을 해보고 싶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교육목표

글로벌융합전공은 학생 스스로가 100% 영어강의로 전공설계를 주도하고, 공부하
여 창의적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소개

현대사회는 특정 전공의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공과 화학적으로 융합된 복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융합전공은 이런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한동대학교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전공이 아닌 창조적인 전공발전의 플랫폼의 역할을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반드시 100% 영어강의로 운영되는 교과목으로
전공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 및 재외 학생들이 좀 더 쉽도록 1:1 형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한 전공명

글로벌융합전공은 한동대학교에서 존재하지 않는 전공을 학생 스스로 만드는 전공
이며, 필수적으로 2개 이상의 전공을 포함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전공과 유사한 이름은 제외되고,
학위명도 한동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여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제1전공 이수가능

글로벌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제2전공(33학점)으로 운영되며 한국인과 외국인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1전공(33학점), 제1전공 심화전공
(66학점)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한국인학생의 경우 신청 당시 전체 평점평균 3.0이상
만 신청가능(학번제한 없음)하며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학점제한이 없습니다.

전공 신청과 절차

글로벌융합전공은 학기말에 온/오프라인으로 전공신청을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글로벌융합전공 지원서와 전공변경신청서(3학기 이상의
경우만 제출)이며, 글로벌융합전공위원회에서 심의 후 합격한 학생에게 개별안내를
합니다.

전공 설명회 및 커리큘럼 구성 워크숍

학생설계융합전공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 학기말과 학기 초에 전체
학생 대상으로 전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학기 말에는 전공 희망자 및 관심자 대상으로
학생설계융합전공위원회 교수님과 함께 전공 커리큘럼 구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범진(18) - 글로벌융합 전공 / Musical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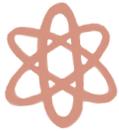
저는 국제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하나님 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3학년 2학기까지 이어졌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저를 학생설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국제지역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했던 저는 국제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관점과 영역을 공부하고 싶었고 이에 전공을 넘나들어 '국제 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며 나만의 길을 찾고자 학생설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설계를 통해 경영, 사회복지, 도시, 국제지역학등 다양한 전공에서 열리는 국제개발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관심있는 주제를 공부하여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지식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시기에 전과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학생설계를 통해 전공 공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친구들 특히나 전공에 대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학생설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생설계를 통해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게 되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뿐 아니라, 나만의 길을

고민하고 개척할 때에 수반하게 되는 깊은 고민과 노력들은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며 길을 찾아간다는 것의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에 하나뿐인 나만의 길을 위한 전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일인지는 직접 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다루는 수업들을 많이 들었고 특히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의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교과목을 여러 과목 이수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제 개발 전문가들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셔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난민과 관련된 교육분야에서 일하시는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난민 아이들의 이야기를 엮어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진로와 부르심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하는 최고의 길이 학생설계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전공을 직접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분야를 만들어 가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존의 전공들을 융합하여 특정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접근을 해보고 싶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설계융합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교육목표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할 전문 능력 양성
국제적 문화 감각을 갖춘 한국어·문화·교육 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
창의융합적인 한국어·문화·교육 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

전공소개

1)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 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 전공은 한동대학교의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역량과 다학제 융합적 역량을 갖춘 내국인 및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한국학(한국어교육) 전공 내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과정을 설치하여 내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2급 취득 과정(전공: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 과정(부전공)을 운영합니다.

2)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 전공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 전공은 한동대학교의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역량과 다학제 융합적 역량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한국학(한국언어문화) 전공은 외국인 학생 전용 전공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사회과학을 더하여 융복합적 관점에서 한국학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제공하여 국제화 시대, 다문화시대가 요구하는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수준 높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한국언어문화 전공과 한국어교육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한국언어문화 전공과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언어문화 전공은 2020학년도 2학기에 신설된 외국인 학생 전용 전공입니다. 이 전공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사회과학(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국제)을 더하여 융복합적 관점에서 한국학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화 시대,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수준 높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한국어교육 전공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제공하며,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 트랙을 이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국내 외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으로 21학점(부전공)을 취득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심화 과정으로 45학점(전공) 이상을 취득하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학생은 위의 과정 외에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서 6급을 취득해야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내국인 학생은 제2전공만 가능,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도 가능

글로벌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33학점)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 가능 하며, 내국인 학생은 제2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심화, 전자공학심화, 생명과학을 제외한 우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전공과 연계전공 및 부전공(21학점)이 가능합니다.

학회 소개

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학문적인 기초를 다지고,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GEM(해외 전공 봉사)

해외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기관(타지키스탄 두산베 세종학당, 타지크 국립외국어대학교, 타지키스탄 하틀론주 보흐타르니 학교)을 찾아가서 실제 교육을 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한동교육개발원 비교과지원실 주관 사업).

선물공유

‘배워서 남주자’라는 한동의 교육 모토를 실천하는 재능 기부 프로젝트로 교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다양한 매체로 배우는 한국어 발음과 한국문화, 한국어 토킹클럽)을 만들고 언어 학습을 지원합니다(한동교육개발원 대학혁신지원 사업).

대표 강의



중급(고급)한국어 회화/작문

외국인 학생 전용 과목으로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키웁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의 이해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와 가족, 근대화, 성, 노동과 인구, 환경, 종교, 정치제도 등에 나타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공부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4영역 인정과목)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의 고전 및 현대문학에 대해 깊이 공부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4영역 인정과목).

한국어학개론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의 총괄적인 내용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학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연구합니다(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문법과 달리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법을 익히고 이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합니다(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한국어교육실습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 지식을 토대로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전 중심의 교과목입니다(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 졸업 후 진로 및 직업전망, 진로 개발 ※

제2전공으로 글로벌한국학 전공을 선택하여 경제학-한국학, 경영학-한국학, 국제학-한국학, 어문학-한국학, 한국법-한국학, 언론학-한국학, 공연영상-한국학, 사회복지학-한국학, 상담심리-한국학, 디자인-한국학, 건축학-한국학, ICT-한국학 등과 다양한 학문을 복수로 이수하면, 국내외의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학생은 국내외의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국내외 공사립학교,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어 교육 기관 등), 국내 기업, 외국 기업, 국내외 NGO, 선교단체 등에서 한국어/한국학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학에 대한 연구과정을 추가적으로 이수함으로써 한국학 분야의 전문 연구원, 교수 및 교사(국내 공사립학교의 내국인 대상 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제1전공 혹은 제2전공으로 IT-한국학, GM-한국학, UIL-한국학 등과 같이 연계하여 복수로 이수하면 자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국학을 기본으로 하는 발전된 형태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K-pop, 드라마, 뷰티, IT, 새마을운동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韓流) 열풍을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국인 또는 외국인 학생이 글로벌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계 각처에서 한국어 교사와 한국 문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생 취업



교육기관 기독교 교사 (헤이븐 기독교학교, 소명 중고등학교), 세종학당 등

기업/정부 다리소프트, 웨어라이프, 시스템 컨버전스, 주 덴마크 한국영사관 등

졸업생 진학



국내대학원

서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 졸업생 이야기 ※



문혜영 (16) - 연세대학교 교직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마르틴하이데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언어는 소

통의도구 이외에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는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되기도 하고, 문화·예술·철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전반에 함께하는 언어는 과연 존재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집’이 되는 한국어는 어떨까요? 최근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말은 비단 우리의 것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통과 생각이 국가 경계를 넘어 교차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한국어라는 ‘집’안에서 말이죠.

저에게 글로벌한국학은 한국어라는 집에서 다양한 계층이 원활히 교류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모국어였기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막연했던, 한국에 대해 외부자의 시선으로 다가가는 ‘글로벌한국학’은 평소 제가 얼마나 그것에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한국어학에 흥미를 느껴 시작했던 한국어교육 전공에서 저는 한국어 문법과 발음, 어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교수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육과정, 교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 스스로가 무척이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학교 한국어교육 전공에서는 실습과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이 많아 소논문 작성, 해외 현장 학습, 학습자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교차, 즉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는 막힘없는 유연한 사고와 소통방식이 필요하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저에게 글로벌한국학은 갇힌 틀을 깨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스스로 열린 마음과 깊은 지식을 쌓게 해준 전공입니다. 저는 졸업 후 연구직에 흥미를 느껴 연세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공공언어 텍스트 분석 연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한 시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글로벌한국학에서 공부하게 될 여러분도 실로 다복한 순간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통하는 한국학의 집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김영지 (20)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전공,
글로벌한국학”

우리 학교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있고, 그 전공 학점을 다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자격증도 취득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창의융합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한국학은 ‘한국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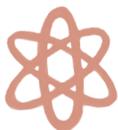
저는 1학년 때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 전공이 없다고 생각해 어떤 전공이 나에게 맞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수업에서 만난 언니를 통해 글로벌한국학 전공을 알게 되었고, 이 전공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외국인에게 모국어인 한국어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에 신선함을 느꼈고, 교육 전공을 찾았다는 생각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새내기인 2학년이 되었을 때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전공이기 때문에 주변에 글로벌한국학 전공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이야기를 나눌 전공 친구도 없어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참여하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결심 이후 전공설명회와 글로벌한국학 관련 여러 옥 특강에 열심히 참석하고 한국어교육학회와 해외전공봉사 GEM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공 관련 활동들을 참여하여 전공 사람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 고민도 공유하고 전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여하길 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공을 하면서 한국어교육 교수에 대해 배우며 저 자신이 한층 성장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여 수업 시연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는 게 많고, GEM으로 키르기스스탄에 갔을 때 그 이유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추천하는데, 특히 GEM은 현장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육해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 자부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해 보길 권해 드립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국어교육으로 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전공을 추천합니다! 한국어교육, 함께 해요.)

창의융합 교육원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인 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여 존재하지 않던 미지의 분야를 개 척해내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수학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새로운 분야를 선 도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창조성이 강조되는 21 세기에 수학적 통찰과 방법론으로 교육받은 인재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가장 창 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분야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학은 전문가들의 기본 도구요, 핵심적인 방법론입니다. 통계학 전공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 야에서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수학통계전공은 2학년과 3학년 때 순수수학, 응용수학, 통계학의 기본 과목을 이수하 고 4학년 때 산업체 과제 중 수학과 통계학의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 연구 과제를 수행 해 봄으로써 이론과 응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 강의



해석학

미적분학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했던 사실들의 이론적 이유를 탐색하는 과목입니다. 수 학적 증명을 본격적으로 배움으로써 수학 전공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인 논리적 추론 능력을 배양합니다. 아울러 현대적 관점에서 추상화를 통해 함수의 이론들을 통 합적으로 다루는 개념과 방법론을 배웁니다.

대수학

대수적 구조 안에 숨겨진 패턴 및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수학적 개념을 추 상화 하는 과정 및 수학적 논증을 배웁니다(기본적인 대수 구조인 군·환·체 이론에 중 점을 둡니다).

수치해석학

수치해석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과정의 기본 개념과 기법들을 습득하 고, 수치해석에 요구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수치해 석 방법들을 이공계 분야의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공계 분야의 문 제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본 개념과 그의 응용을 소개하며, 다루는 주제들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 구하기,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기, 선형/비선형 회귀분석, Fourier 해석(DFT 와 FFT), 수치적분 등

확률론

확률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정의를 이해하고 확률분포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현상에서 도입되고 있는 확률적 사고 및 접근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수리통계학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의 백그라운드 이론을 습득합니다.

수리통계학

확률변수의 정의와 종류 및 분포,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분포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추정 및 통계적 가설 검증과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량에 대해 학습합니다

회귀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자료를 통하여 밝히는 통계적 방법으로 모형을 적합하거나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통계기법을 배웁니다.

학회(랩) 소개

<p>Sample</p>	<p>랩 SAMPLE은 수확통계전공의 유일한 통계 중심 랩입니다. 김현주 교수님과 손중권 교수님의 지도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통계 분석 및 이론을 공부하고 실습합니다.</p> <p>전공수업들과 논문 및 통계 기반 이론들에 대해 함께 스터디하고, 관련 공모전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p>
----------------------	---

한동인의 전공 자랑



수확통계전공자 수상내역

2022년 한국정보기술학회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김석준 -머신러닝을 이용한 메이저리그 승률 예측 모델

김호수, 윤대영 -베이지안 추론을 통한 한국 물가의 구조 분석

* 졸업 후 진로 *

수학통계 전공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신설된 전공입니다. 졸업 후 더 심도 깊은 공부를 위해 수학 및 통계학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 진학이나 TEP프로그램과 병행을 통해 수학교사의 길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및 통계학 전공을 한 경우 IT 계통의 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 등에 취업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기업/정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WAI KOREA 등

일반기업

다리소프트, 웨어라이프, 시스템 컨버전스, 주 덴마크 한국영사관 등

졸업생 진학



국내대학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 카이스트

해외대학원

North Carlina University 등



✧ 졸업생 이야기 ✧



김준 -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

수학통계전공은 나와 상관없는 전공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선배분들도 수학통계전공을 처음부터 자신의 전공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수학과 통계를 만나 즐거움 속에 성장하여 현재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원과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교시절에 배운 수학은 산수 또는 계산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 주는 즐거움과 고교시절 수학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학적 주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 과정에서 깊은 몰입의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이 수학을 전공해도 될지 고민된다면 '실해석학개론' 과목을 들어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 과목의 증명과 연습문제로 성실하게 한 학기 동안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명료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자신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과 통계를 배워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속에서 오래전 발전된 수학을 배우라니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기술과 현상은 수학과 통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은 그 책에 쓰여 있는 언어를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 그 언어는 수학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표현처럼 수를 통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정확히 표현하기란 어렵습니다. 수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분야를 막론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새로운 것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학을 배우기 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시하는 근거는 나의 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트레이닝을 받은 뒤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시하는 근거들이 적절한 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며, 항상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직 취업시에 두드러지게 됩니다. 수학적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고 trial and error 방식으로만 성장한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깊이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가 드물며, 이들과 함께 논의를 할 때는 자주 모호한 표현과 논의의 핵심을 벗어나는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을 경험하고 공부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은 일이 곧 휴식이라, 따로 휴식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직장인과 자신의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수학이 주는 몰입감은 상당히 강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학통계를 2전공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께 여러 방면에서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전공과 연계되어 그 전문성을 높여주며, 졸업 후 커리어의 깊이를 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 1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2전공으로 수학통계전공을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재학생 이야기 ※



이지성 (20)

수학은 자연을, 통계는 사회를 이해하는 언어인 만큼 수학과 통계 전공은 다른 학문을 배울 때 깊은 이해와 탐구를 가능케 합니다. 경영, 경제, 심리, 전산, ICT, 기계, 공시, 생명 등을 주력 전공으로 하고 수학과 통계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넘치는 정보의 시대에서 우리학교 여러 전공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경제학부는 Data Science Certificate for Management and Economics 트랙을, 생명과학부는 Bio-IT Certificate 트랙을 갖고 있는 등 여러 학문에서 수학과 통계적 지식은 필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학과 통계 전공을 선택하시려는 분께는 더 신중하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세심히 고민하고 수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학과 통계 전공에서는 크게 순수수학, 응용수학, 통계학을 배웁니다.

순수수학 수업을 대표하는 실해석학, 위상수학, 추상대수학, 응용수학 수업을 대표하는 선형대수학, 수치해석학, 미분방정식, 통계학을 대표하는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통계계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진로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해석학에서 처음 배우는 엄밀한 수학, 수리통계학에서 배우는 통계학의 작동 원리, 회귀분석에서 배우는 통계적 방법론 등 낯선 지식들을 배울 것을 생각하면 막연히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수학과 통계 전공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배움에서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에 수리통계학, 실해석학, 회귀분석 오버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수학과 통계 전공캠프에서 졸업생 선배들과 만나면서 진로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 TEP 기독교사 특화 프로그램은 기독교대안학교와 해외 선교지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참 교육의 회복과 변혁을 주도하는 기독교사와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창의융합교육원 내 특화 트랙입니다. TEP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육에서의 소명 확인, 교육의 회복과 변혁을 추구하는 태도와 인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 TEP 기독교사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 총 7개 과목 18학점을 이수요건으로 하며 교육학개론, 기독교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 공학 및 방법, 교육현장세미나, 교육현장실습 과목이 운영됩니다.
- 한동대학교는 2015년에 미국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협력 대학 인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TEP 이수자들은 졸업 시 ACSI 기독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표 강의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교육과 학생 및 교육현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교육 대상의 특성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갖춰야할 역량과 태도를 함양합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학교라는 현장 속에서 이 배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통합적 안목을 키우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관점과 철학, 학교 교육의 역사, 교육의 사회적 이해, 학습자 이해, 교육 과정 및 교육방법 등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향후 세부 교육영역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기독교교육철학

기독교교육철학이란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한다는 것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Pazmino가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교육자의 과제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기독교철학의 기본적 요소를 검토하고 이러한 요소들과 기독교 신앙이 교육이론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교육심리

교육심리는 학습자의 발달 및 학습이 발생하는 원리를 배우며, 구체적으로 인지와 기억, 학습기술, 정신발달, 개인차, 학습동기, 교육환경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교육심리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과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며,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이나 교육과정개발, 교육행정 및 학생상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과정 및 평가 교과목은 교육의 계획된 내용이 학습 경험이 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중등학교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시각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합니다. 교육평가 분야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교육평가의 유형과 평가모형, 수행평가, 문항 제작과 분석, 검사도구 개발 및 해설, 그리고 교육현장의 평가 문제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과목에서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교육공학을 이용해 교육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업의 계획과 방법을 분석하고, 현장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수업 매체의 원리, 절차, 활용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현장세미나

교육현장세미나 수업은 기독교대안학교와 개발도상국 선교지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며 교육현장실습을 위한 선수 교과목입니다. 기독교대안학교와 선교지 학교 리더들을 초청하여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조직과 행정, 비교과활동 등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학교교육의 철학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독교학교 교장들의 특강, 학교교육현장 탐방, 선교지학교 연구조사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 교과활동으로 포함됩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ACSI 교사 자격증 취득

TEP 교사프로그램은 미국 ACSI(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인증을 받았으며 본 프로그램 이수자는 ACSI에서 제공하는 중등(중고등학교에 해당) 기독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컴퓨터교사, 미술교사의 경우는 초중등 All level 교사자격증 취득) TEP 교사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ACSI 자격증 취득 및 국내외 기독교학교(대안학교, TEP 협력 학교 등)에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학회 소개

한동교육학회

한동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학을 함께 공부하며 학문적인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육으로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사랑, 겸손, 봉사를 계승하는 한동최초의 교육학회입니다.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교육현장실습 및 실습 발표회

TEP 교사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졸업 전, 국내 및 해외 현장 학교에서 교육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습 후에는 실습 발표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실습 경험 및 TEP 담당 교수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졸업생 선배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탐방

매년 10~11월, TEP 교사프로그램 협력 학교로의 대안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담당 교수 및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함께하는 대안학교 탐방을 통해 학생은 현재 활발히 운영되는 교육 현장을 견학할 수 있고, 기존에 학습한 것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 및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향후 진로 개발에 있어 폭넓은 경험을 쌓고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참관 및 해당 학교에 종사하는 졸업생 선배와의 만남 또한 가능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 TEP 프로그램 이수자는 전공과 관련된 중등 교과목의 기독교사로서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해외 선교지 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TEP 교과목을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아 대학원의 수학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TEP 프로그램 이수자는 교육컨설팅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벤처의 아이디어 개발과 진로 개척에 용이합니다.

졸업생 취업



일반기업 현대자동차, (주)이든, 우간다 대사관, NGO단체 등

교육분야(행정직)

한신대학교 교육개발센터,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한동대학교 국제처 등

교육분야(교사)

수원중앙기독교학교, 러브릿지크리스천스쿨, 높은뜻씨앗스쿨, 용인CSIS국제학교, 베일러 국제학교, 소명중고등학교, 우리기독교학교, 꿈의학교, KLAS국제학교, 글로벌선진학교, 뉴턴스쿨k Fayston International School, Kingdon School International, 순천 힘스기독교 국제학교, 별무리학교, 중국, 늘사랑기독교학교, 중국 하나 International School, 한동 글로벌학교, 꿈의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샘물중고등학교, 예수향남기독교학교, 부산CSIS 국제학교 등

졸업생 진학



대학원

벨기에 Leuven Univ education studies,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Wheaton College 대학원, 한동국제법률대학원,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졸업생 이야기 ✧



송다원(12) - 꿈의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TEOP 1기 졸업생, 12학년 송다원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봉사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의 꿈을 품었습니다. 당시 한동대에는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TEOP과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졸업을 1년 미루고 TEOP을 이수하였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교육 관련 과목들은 너무나도 흥미로웠고 교육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생각하며 졸업을 하자마자 꿈의학교에 지원했고 현재 2년차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TEOP 수업을 통해 실제 경험한 다양한 수업 방식과 TEOP과정 속에서 읽은 책들,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일 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TEOP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얻는 것도 교육 전공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모든 과정에 임하시면 분명 졸업하고 많은 열매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교생실습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동대의 전례 없는 첫 교생이었고 준비된 것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실수투성이었기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후회 없이 모든 열정을 쏟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교제하며 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아이들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다른 어느 직장에서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낭만이 있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한동대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맞춰지는 시간이었고, 현재 저에게 가장 편안한 초등학교 교사라는 옷을 입고 하루 하루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경영, 상담심리 및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한 후, 현재 페이스튼 국제학교에서 초등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야식을 먹던 중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새벽을 꼴딱 새며 전공 팀 프로젝트, 목사님 및 교수님과의 성경공부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하신 교육의 은사와 다음 세대 및 북한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연수(13) - 페이스튼국제학교 교사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낭만이 있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한동대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맞춰지는 시간이었고, 현재 저에게 가장 편안한 초등학교 교사라는 옷을 입고 하루 하루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경영, 상담심리 및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한 후, 현재 페이스튼 국제학교에서 초등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야식을 먹던 중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새벽을 꼴딱 새며 전공 팀 프로젝트, 목사님 및 교수님과의 성경공부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하신 교육의 은사와 다음 세대 및 북한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기에 많은 역량을 요구합니다.まずは 한동대에서 영어로 진행되었던 전공 및 교양 수업들로 인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모든 과목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데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학 전공을 통해 학급 경영을 넘어 학교 전반의 경영 및 동료들과의 협업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담심리학과 기독교교육학 수업 중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Significant One'(한 영혼의 거름남에 집중하는 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와 진심이 통하고 모든 수업 계획, 과정,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섬김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후배들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기에 많은 역량을 요구합니다.まずは 한동대에서 영어로 진행되었던 전공 및 교양 수업들로 인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모든 과목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데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학 전공을 통해 학급 경영을 넘어 학교 전반의 경영 및 동료들과의 협업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담심리학과 기독교교육학 수업 중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Significant One'(한 영혼의 거름남에 집중하는 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와 진심이 통하고 모든 수업 계획, 과정,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섬김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후배들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반하영(16)

“한동대학교에 교육학자가 있다면?” 교내에 붙어있는 여러 포스터

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저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교육학’을 꼭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터를 보고 TEP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학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TEP과정은 단순히 ‘교육학’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TEP과정은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평가’, ‘기독교교육철학’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 즉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차별화된 강의들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수업과정 구성 및 평가까지 여러 영역을 고민하게 만들며,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전공강의와는 다른 스타일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때로는 학생이, 때로는 교사가 되어 강의에 참여하며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과 토론, 수업 시연, QT 나눔 진행 등을 통한 배움의 과정은 다양하고 즐거운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실습’을 통해서 학생교사로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EP과정을 하며 여러 학과의 학우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더 행복한 한동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신다면, TEP과정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을 공부하시면서 기독교 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효진(17)

TEP 기독교사양성 특화프로그램은 어릴 적부터 교육에 관심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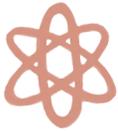
던 저에게 대안학교 교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는 교육전공이 따로 없지만, 교육에 대해, 특히 기독교 교육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만큼 훌륭한 교수님들과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TEP의 장점은 1전공, 2전공에 대해 ACSI 기독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자격증은 전 세계의 기독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TEP 교과목들을 통해 기독교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교사에 대한 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TEP 교과목은 대부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개설되어 있어서 듣고 싶은 언어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어 분반에는 신학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수강하게 됩니다. TEP수업에서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비전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소통하고 함께 공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생김을 경험했습니다.

TEP의 또 다른 장점은 이론 교과목을 이수한 다음에는 교육 현장 교과목을 통해 현장 속에서 더욱더 훌륭한 교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TEP수업을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동대학교 교수님들의 전문성과 식지 않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학문과 신앙을 통합시킨 교육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교수님 덕분에 교수님처럼 멋진 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TEP 기독교사양성 특화프로그램에 도전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 GPS 프로그램은 기독교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결합하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세계지도자인 GPS(Global Problem Solver)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와 민족 간의 문화,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의 벽을 넘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전공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 목적을 스스로 찾아내어 인생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우 간의 경쟁을 지양하며, '어제의 나'를 유일한 경쟁자로 여기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Peer to Peer Learning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 실제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Learning by doing' 접근 방식을 강조하여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문제 해결 전문가(GPS: Global Problem Solver)로서의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인증받으며 글로벌 문제 해결 분야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글로벌문제해결 기초

글로벌문제해결 특화프로그램의 기초과목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Life Purpose)을 찾아내고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Life Roadmap)을 그려 내도록 도와주는 강좌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통해 안내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남을 돕는 데에 있다'는 원칙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를 대규모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 전문가(GPS)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학생들에게 더 큰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글로벌 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길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강좌의 주요 목표입니다.

글로벌문제해결 Lab

글로벌문제해결 특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중심 과정의 코너스톤 과목으로써 자신이 해결해 내겠다고 선택한 세상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는 과목입니다. 즉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Preparation 과정으로서 학생 연구를 위한 교과목으로 개발되어 있어 White Paper를 작성하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수업을 마치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선택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자세한 계획인 4-Dimensional Project Plan을 갖게 됩니다. Lab 수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차 수출국 중 하나인 케냐에서 찾았을 따는 여성들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차칸차’가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주도하여 한국어로 외국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업 Momma, 한국 청소년들의 인생 목적을 찾아주는 기업 WAH 등의 다양한 기업들 또한 세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문제해결 Simulation

글로벌문제해결 특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중심 과정의 키스톤 과목으로써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밀을 찾아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개발한 후에 어떻게 많은 사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Coaching을 받으면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문제의 해결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Viable Business Plan을 만들어내는 미션을 5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실제로 도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배움을 얻게 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위하여 자신이 갖고 닦은 전공 지식과 기술을 실전에 적용해보기를 원하는 학생이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프로젝트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실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한 Capstone 과목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문제해결 Capstone

GPS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인 캡스톤 과목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목은 융복합적인 디자인 원칙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Business Model로 발전시켜 Purpose-driven Company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지식을 결합하여 협력하여 글로벌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코칭과 멘토링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제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이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창업의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실제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겪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 능력과 창업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동인의 전공 자랑



Global Problem Solver Certificate 취득

글로벌문제해결 프로그램 참여 및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아래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 Certificate Level 1: GPS 관련 교과 중 필수과목 3과목(9학점) 수강, 해당 교과 평점 평균 3.0 이상
- Certificate Level 2: GPS Capstone 과정을 통하여 창업에 도전
- Certificate Level 3: GPS Capstone 과정을 통하여 창업에 성공

전공별 특별 프로그램



GPS Demoday

학기 말에 GPS 기초 수강생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 앞으로의 목표를, GPS 시뮬레이션 수강생들은 자신이 속한 창업 팀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Demoday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GPS 시뮬레이션 수강생의 경우 창업 팀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GPS Lab

GPS 학회로써,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며 앞으로의 GPS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 졸업 후 진로 ※

- GPS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중의 하나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졸업 후의 진로를 잘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GPS 프로그램 이수자 중의 일부는 목적이 이끄는 기업(Purpose-driven Company) 창업에 성공하게 되어 자신의 직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자리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 글로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기르게 되어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길도 쉽게 찾게 될 것입니다.
- 졸업하기 전에 창업이나 창직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글로벌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과 GPS 프로그램 이수과정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게 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단체나 글로벌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 특히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GPS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 및 교수 요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재학생 이야기 ※



박예람 (19)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지역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는 박예람입니다. GPS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가치를 믿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GPS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가장 기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한 노력을 통해 더 큰 행복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문제해결 기초 수업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영향에 휘말려 눈 앞의 현실에만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비전을 향해 꿈꿔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심과 선호를 파악하며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 나가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것입니다. 저는 GPS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차칸차'라는 기업을 창업하여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칸차'는 차있을 따는 노동자들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랑의 선순환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아나갈 시간은 없지만 그들에게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전을 찾아 실현시킬 때까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실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꿈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 기쁨으로 1분 1초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GPS 프로그램에서는 마음 아픈 문제에 대한 무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며 그 문제를 해결할 도구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뛰게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한동대의 GPS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실천하고 실현하려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인생 목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봅시다!

Love in Action!



※ 재학생 이야기 ※



김세한 (18)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18학번 김세한입니다. 제 목표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능숙한 분야인 한국어 교육과 선교를 결합하여 특별한 선교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GPS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한국어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자'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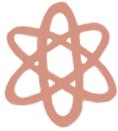
GPS 프로그램을 통해 제 전공인 한국어 교육과는 무관한 창업 과정을 체험하며, 전공과 창업을 융합하여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GPS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에 기반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저 또한 이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Momma'라는 기업을 준비 중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오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GPS 수업에서는 창업 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101, Prep, Simulation, Capstone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문제 도출과 구체화, 실제 아이템 개발, 검증 및 창업 완료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도교수님 이신 박대혁 교수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할 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매칭을 통해 학생들의 방향성을 도와주십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불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따라가며 진로를 결정하면 자신감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GPS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 전인적 세계시민 특화프로그램(HGCP) 국제사회에서 우리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식의 영역을 넘어 영성과 인성의 기초 위에 지성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전인적 세계시민 특화프로그램 (HGCP)은 전공, 학년 구분없이 한동대학교 재학생 모두가 수강할 수 있으며 모든 교과목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H.U.M.A.N.) 교과목 총 5개 과목(15 학점, 베이스 과목 3개 포함)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심사 후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되어 국제사회의 전문인력으로서 포트폴리오 및 역량을 구축하여 향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Ethical Foundations: Honesty,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본 수업은 정직, 성실, 책임감의 윤리적인 기초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의사 결정에 대한 윤리적인 관점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지역과 세계의 이슈를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법을 학습하며,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사고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Understanding the Global Times

본 수업은 삶의 목적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세계관과 이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각 세계관의 가치, 신념, 사고방식의 차이를 바로 학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진리에 기초하여 자연의 초월적인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Practice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 개발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번영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강점을 파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학제적이고 다양한 접근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동안, 자원 경쟁을 통한 각국의 경제성장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권력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모두를 위한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 필요한 협력과 노력에 대한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Capacity Building as Global Citizen

본 수업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미래지향적 역량(4C - Critical Thinking, Compassion, Creativity, Collaboration)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지역과 세계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각 전공 분야를 통하여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사례를 연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Our Future Survival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본 수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모든 국가와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 할 때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사례를 통하여 학습하며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인식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융합을 위한 현장 역량과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

-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특화 프로그램(HGCP)을 이수한 학생은 범지구적 이슈를 다양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중심 글로벌 전문가로서 세상을 바꾸는 핵심인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인적 세계시민교육 특화 프로그램(HGCP) 커리큘럼 교과목 중 5과목(평점 3.0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전인적 세계 시민교육(HGCP) 이수 인증서가 발급되어 국제사회의 전문인력으로서 포트폴리오 및 역량을 구축하여 향후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교육 NGO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졸업생 이야기 ※



설하연 (19) -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김영길 GRACE 스쿨의 전인적 세계시민 인증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을 찾아 언덕을 오르며 잘한 선택인가? 잠시 고민했는데, 김영길 GRACE 스쿨 건물을 보자마자 너무 멋져서 감탄하며 이것이 바로 캠퍼스 로망이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3학기동안 김영길 GRACE 스쿨은 저의 아지트이자 보물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인적 세계시민 인증 프로그램 커리큘럼인 H.U.M.A.N.은 글로벌 리더를 위한 다섯가지 역량을 Basic, Intermediate 단계와 Practicum 과정으로 배우게 되는데, 각 영역을 담당하는 교수님들께서 기본 개념 이해부터 실전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하여 저의 비전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었는데, 전인적 세계시민 교육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어 이후의 저의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인적 세계시민리더의 역량인 4C(Compass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and Collaboration)입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고 선한 가치를 전하는 저의 소망이 더욱 더 확고해졌고, 고민했던 통번역 대학원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길 GRACE 스쿨에서 배운 가치들과 역량을 삶에서 살아내어, 세상을 보다 선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Changer가 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비전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김영길 GRACE 스쿨의 전인적 세계시민 인증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우성은 (20)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모였지만 가끔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한동대학교에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공만으로는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복잡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전공 새내기 시절, 세계 곳곳에서는 전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복잡하고 다방면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공뿐 아니라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길 GRACE 스쿨의 'H.U.M.A.N.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김영길 GRACE 스쿨의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시민의 더 큰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H.U.M.A.N. 교육과정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 과정에서는 정직, 성실, 책임감 같은 기본 소양을 키웁니다. U 과정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M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고, A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역량을 키워줍니다. 마지막 N에서는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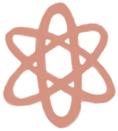
이 5단계가 모두 끝나면, 머리속으로만 상상하던 지역, 세계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볼 수 있는 Practicum 과목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까지 함께 키워나갑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명확한 관점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과정들을 한동이라는 작은 사회부터 크게는 포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당장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없더라도,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해야 할 영역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여러나라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만 들어도 주어지는 장학금 자격과, 인턴십 기회 또한 이 과정의 큰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고 김영길 그레이스스쿨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받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능력과 시야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바로 김영길 그레이스스쿨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실제로 실천까지 하는 날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의융합"



학생설계융합 전공 / 글로벌융합 전공 / 글로벌한국학 전공 /
수학통계 전공 / TEP(Teacher Education Program) /
GPS프로그램 / 전인적세계시민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은 통일 교육을 통하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지니고 통일 시민으로 준비시켜 통일 이후의 북한 개발과 남북한 사회통합 등을 이루어낼 통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창의융합교육원 내 특화 트랙입니다.
- 문제해결 중심의 학생 주도적 통일교육을 실시하며, 일방적·수동적·강의식의 정형화된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상호적·능동적·토론식 자기주도형 문제 해결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합니다.
- 무전공 입학과 전공 선택이 자유로운 한동대학교의 특성상,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교양교육과 특정 전공뿐 아니라 전 학부와 전체 전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통일교육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통일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전교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제융합적 통일교육의 길을 제공합니다.

대표 강의



통일한반도재건 마스터플랜

- 본 강의는 남북한의 도시/지역 개발과정을 이해하고 통일한반도의 국토 마스터플랜과 북한의 도시/지역 개발 로드맵을 연구해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남북한은 이념으로 분리된 채 소통 없이 제각각 도시/지역의 성장과 쇠퇴를 경험해왔습니다. 남한은 자본의 논리가 주도했고 북한은 정치적 헤게모니가 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학생들이 통일 한반도의 도시 및 지역개발의 로드맵을 미리 그려보고 통일이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한반도 통일과 이데올로기

-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을 위해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알아보고,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한 이질성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권리와 자유의 역사, 통일

- 해방 직후 남북한이 각각 받아들인 가치체계가 각 분단국의 발전과 퇴보를 결정 지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력분립 원칙 등 보편적인 인류문명사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사와 근현대사를 조망하면서 통일된 국가의 가치 지향점을 고찰해 봅니다. 특히 일방적 강의보다는 개별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교수가 제시하는 책, 논문 등을 발제하고 참여하는 발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국제인권법과 북한

북한은 유엔회원국이자 주요 인권조약의 당사국입니다. 본 과목은 국제법 관점에서 북한 내의 인권과 정의를 탐구합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 인권 및 지속가능 개발 표준을 적용한 법과 정책이 성경적 원리와 일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북한과 같은 인권 및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접하게 됩니다.

다문화 상담과 통일

본 과목은 북한이탈 주민들을 비롯한 한국의 다문화 상황을 이해하고 문화가 한 개인의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과 다문화상담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익힙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통일한국의 주역인 북한이탈 주민들을 비롯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심리 사회적 이해와 상담 지식 및 기술을 익히고자 합니다.

사업단 소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사업(단)

통일부 주관의 정부프로젝트로, 대학사회의 활발한 통일교육 참여를 통해 통일의식을 높이고 대학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며 대학생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진행하는 사업(단)

※ 졸업 후 진로 ※

-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내실있는 통일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통일 시민으로 준비될 뿐 아니라, 향후 졸업생의 10%는 실제 통일의 문이 열릴 때 북한에 정착하여 통일 이후의 북한 개발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통일 인재가 될 것입니다.
- 학교의 모든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이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 지역 발전과 통일 후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각 분야 통일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는 통일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기타 북한관련 NGO 단체 및 연구소 등에서 자신의 전문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 재학생 이야기 ※



**강주아 (21) - 공간환경
시스템공학부**

저는 고등학생 때 북한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학교를 다니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동대 입학 후, 통일아카데미라는 동아리를 통해 작게나마 가지고 있던 북한을 향한 관심을 유지하던 중에 통일한반도 재건 마스터플랜을 알게 되었고, 도시환경전공을 마음에 두고 있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계획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사회주의 건축부터 시작해서 미시적으로는 북한과 그린시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진정 '마스터플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통일 한반도의 수도 설정, 아시안하이웨이, 그린시티 등 생각지 못한 통일 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접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북한에 관심이 있었다했지만 제가 북한을 얼마나 몰랐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옆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에는 막연히 통일 후 제가 도시전문가가 되어 북한이 효율주의가 아닌 옛것을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풍경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수업을 통해 통일 후 공원에서 남과 북의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게 되었으며 조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통일한반도 재건 마스터플랜'은 전공과 무관하게 한동의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인 통일에 대해서 한국사람으로서 삶으로 와닿을 실제적인 문제들을 접하고,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전공자들에게는 평소 잘 고려되지 않는 지역인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에 대해서 전공자로서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이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장예원 (21) - 법학부

저는 입학 이전에는 통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1학기 한동에 있는 통일공동체들 중 통일법학회에 지원하여 북한인권과 통일에 관련하여 공부하고 연구소논문을 작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 "통일법제론" 수업을 수강하며 통일에 대한 법적 관점을 전공 지식과 함께 배웠고, 3학기째에는 "권리와 자유의 역사, 통일" 교양수업으로 통일에 대한 역사적·법적·기독교적 배경 지식을 다양한 도서를 읽으며 쌓아갈 수 있었으며 4학기째에는 "국제인권법과 북한" 수업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논문을 직접 주제를 잡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거쳐 작성해보며 북한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에 관심이 없던 저는 북한인권과 통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었고, 현재는 그리스도인 법률가로서 어떻게 통일을 예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그려가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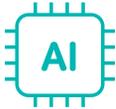
한동대학교의 통일한국특화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북한연구에 조예가 깊은 각 학부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가르침에 따라 역사적 배경 지식부터 전공 지식과의 융합, 실제 연구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까지 경험하며 북한연구에 입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동 학우님들께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들을 꼭 수강해 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AI융합 교육원

AI융합전공 /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인공지능 어깨
위에 올라 새로운
세상을 열라!"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인공지능기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동영상추천, 검색추천, 인공지능비서, 소비유형분석, 추천경로제시 등의 서비스에 이미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활용은 비즈니스, 인문사회, 과학기술 및 생산제조 등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일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AI융합교육원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그리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기술을 구체적인 분야에 활용하는 융합적인 교육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생명과학, 경영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전공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제 1전공 분야의 전공에 더하여 해당 전공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생명-AI융합 트랙

생명과학의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능력을 겸비한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경영경제-AI 융합 트랙

경영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AI 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대표 강의



생물정보학

생명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비교 분석하는 방법과 내용을 이해하는 강의입니다.

바이오데이터분석

생명체의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생명현상의 이해, 조절 및 개선을 위한 핵심 지식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비즈니스애널리틱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데이터주도 마케팅

상품 매매와 서비스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강의입니다.

* 졸업 후 진로 *

인공지능융합전공을 마치면, 자신의 주전공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대학원을 진학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경우 따로 전산학이나 통계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경우에도 업무의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 신입직원들과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과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차별화된 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전공분야별 빅데이터의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 석박사 과정

공공/정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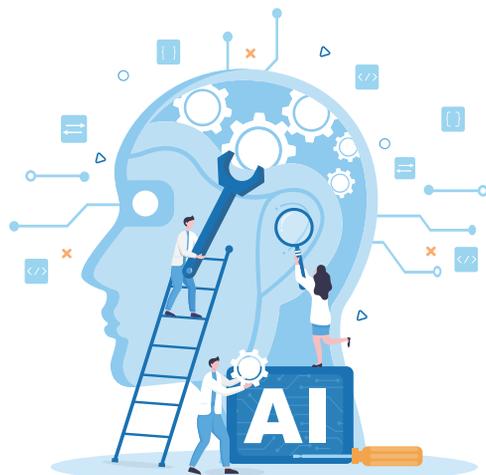
정부 지자체의 7/9급 공무원, 공사,공단 및 공공단체

금융기관

국책 및 민간은행, 투자기관, 보험증권 업체

산업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및 공공기업



✧ 교수님 이야기 ✧



김정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동대학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사용합교육원에 김정현 교수입니다. 한동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최적화, 고급설계기법, 그리고 전산유체역학의 전문지식 및 기술들을 융합하여 다양한 기관들과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Boeing, American Airlines,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CJ대한통운, CD-adapco)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당시 가장 관심있었던 유체역학 및 수치해석 관련 학문들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자 서울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진학을 결심하였고 전산유체역학을 저의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University of Alberta) 기계공학과 전산유체역학 연구실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순간입니다.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들을 바탕으로 압축성 유동 해석 코드 개발을 수행하였고 검증결과를 석사 졸업논문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연구를 했던 대학원 생활의 기쁨도 잠시, 당시의 가정형편으로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석사 졸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그리고 배움에 대한 그리움은 당시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곧 생각을 바꾸어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실무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배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연구소 및 기업들의 취업을 준비하였고 수 많은 고민 끝에 결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재직하는 가운데 가슴 한편에는 학업에 대한 그리움과 배움의 갈망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랑3호 개발 및 발사를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독일의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력의 한계를 몸소 경험하고 나니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단연코 선진국인 미국에서 관련 기술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머리 속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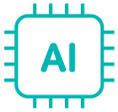
이러한 갈망은 저로 하여금 스스로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유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 유학이라는 든든한 지원과 함께 박사과정 진학이라는 꿈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위치한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계산과학 및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보내는 동안에는 Aerospace Systems Design Laboratory (ASDL) 연구소에서 연구 조교로 활동하며 미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과 Boeing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식 및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여름방학 동안에는 대한민국 4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현대자동차 인공지능연구소, CJ대한통운, 지멘스와 인턴십 혹은 공동연구의 형태로 다양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지도교수님의 (Prof. Dimitri Mavris) 수업 조교로도 활동하며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다양한 수업들에 참여함에 따라 수업 설계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American Airlines 본사의 Operations Planning and Performance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공항 모델링/시뮬레이션 및 항공교통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학부 과정 중에 만났던 교수님들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수라는 직업을 원하는 것을 넘어 가르침을 통해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고, 그러한 비전과 함께 교수 임용지원서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5,000인분을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융합 교육원

"인공지능 어깨
위에 올라 새로운
세상을 열라!"



AI융합전공 /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교육목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전공소개

오래 전부터 데이터는 특정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한 단순 기록이라는 측면보다 현실을 이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를 통해 창출 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여러 관련 지식을 총칭하며, 더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처리 및 가공, 이를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원리를 도출하는 해석을 다룹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 속에서 그 안에 내제된 참된 의미를 찾아 내고 분별해내어 올바른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지식은 크게 통계학과 프로그래밍으로 구분되며 서로 상호 보완적인 두 분야에 대해 배움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통찰력 있는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들의 1전공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고급 분석 및 응용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공 더 깊이 알기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제1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강의



빅데이터 모델링과 플랫폼

본 수업에서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기술적 개념들을 배우고 이를 실제로 활용 해보는 수업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전통적 방식인 Relational Database의 개념과 SQL과 같은 질의언어와 NoSQL(Key-Value Store, Document Store, Graph DB, Columnar DB)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및 저장/검색 방식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및 파일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마치면, 자신의 주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특정 분야 혹은 문/이공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만큼, 본인이 진출한 분야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취업



대학원

전공불문 데이터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 석박사 과정

공공/정부기관

정부 지자체의 7/9급 공무원, 공사,공단 및 공공단체

금융기관

국책 및 민간은행, 투자기관, 보험증권 업체

산업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및 공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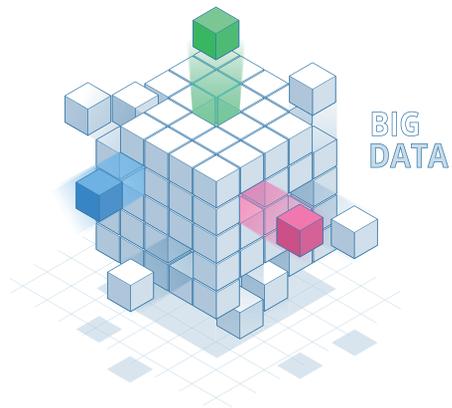
※ 재학생 이야기 ※



조은비 (20)

시용합교육원은 1전공 (경영/경제/생명)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데이터에 AI/데이터 지식과 수학/통계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법을 배우는 전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차별화된 시각으로 앞으로의 시대를 이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3학년에 시용합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전공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의 빅데이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대학과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강의를 자유롭게 설계하고 수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의 1전공에 맞춰 트랙을 설정할 수 있고, 관심 분야에 맞는 마이크로디그리(MD) 또는 나노 디그리(ND)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초 과목 외에 코딩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교수님들이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덕분에 데이터 분석의 이론과 기초부터 산학연계 연구와 프로젝트를 하기까지 전공역량을 쌓을 수 있었고 학부에서 주최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 자격증 지원, 공모전 및 학술 캠프에 참여하며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학부 생활을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탐구하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미래를 선도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시용합전공을 적극 추천합니다. 시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동의 문화가 궁금하다면?

G-IMPACT 체험활동

한동대학교 특성과 프로그램, 전공 특강, 한동 문화 등을 미리 체험하고 한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

- 대상** 고등학교 1~3학년
- 일시** 7월 중 2회 예정
- 장소**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네이버 카페 'G-IMPACT 체험활동'에서 세부 내용 공지)

캠퍼스 방문 대입전형 상담

한동대학교 특성화 교육 및 입학안내, 캠퍼스 투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일시** 대학 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까지 진행
- 장소**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한동의 전공이 궁금하다면?

HGU전공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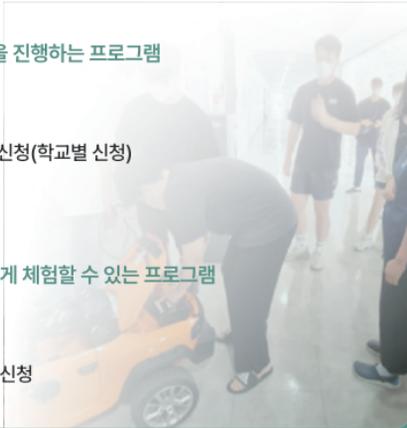
한동대학교 교수진 및 동문 등 전문가가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전공 및 진로 관련 특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대상** 고등학교 1~3학년
- 일시** 5~12월 예정
- 장소** 해당 고등학교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학교별 신청)

전공체험활동

본교 인재상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소개, 학부별 전공 소개 및 관심있는 전공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대상** 고등학교 1~2학년
- 일시** 5월 예정
- 장소**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ON-LINE 으로, 한동과 언제나 만남 가능!

우리, 친구해요!

카카오톡 채널 "입학한동"

한동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입학시부터 전공과 학교 생활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동의 빠른 입학소식!

입학한동

한동대학교 입학한동

1. 유튜브에 한동대학교 입학한동을 검색한다.
2. 다양한 입시 정보와 홍보 영상 시청!
3.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한동의 입학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찾아가는 입학상담

입학사정관이 전국 주요도시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여 한동대학교 특성화 교육 및 입학전형에 대한 안내,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 일시** 6~9월 예정 (입학홈페이지 공지)
- 장소** 전국 주요도시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입학사정관 고교방문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한동대학교 특성화 교육 및 대입전형에 대해 안내하는 프로그램

- 대상** 고등학교 1~3학년
- 일시** 4~12월 예정
- 장소** 해당 고등학교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학교별 신청)

방문, 전화 입학상담

한동대학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평일 근무시간 동안 상시 입학상담 제공

- 일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한동대학교 현동홀 105호 입학사정관팀
- 참여방법**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054-260-1084~6)

모의면접

고등학생들이 본교 수시 면접고사를 미리 체험하여 모의면접 및 피드백, 대학생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 일시** 6월 예정
- 장소** 한동대학교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면접 시뮬레이션 운영: 유튜브 '입학한동' 채널

진로진학박람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대입전형 안내 및 1:1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 일시** 5~12월 예정
- 장소** 박람회를 주최하는 각 시·도에서 장소지정
- 참여방법** 입학홈페이지에서 일자 및 장소 확인 후 별도신청없이 참여



* 각 프로그램의 일시와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추후 입학홈페이지(<https://admissions.handong.edu>)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의 주요 소식을
한 눈에 보고 싶다면?

#입학한동에서 확인!

Instagram

QR코드 스캔 or
인스타그램에
@nanumi_hgu를
검색해보세요!



한동대 입학홈페이지

모집요강, 한동 체험하기,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곳!



이름에 바는 영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 : 7)



B/D Index

- 101 효암관
- 102 GLC (글로벌랭귀지센터)
- 103 IFH9
- 104 믿음관
- 105 IFH7
- 106 IFH6
- 107 사랑관
- 108 IFH5
- 109 IFH4
- 110 IFH1
- 111 비전홀
- 112 미션홀
- 113 감사관
- 114 창업보육센터
- 115 GGDC (글로벌그린디벨로퍼먼트센터)
- 201 현동홀
- 202 느헤미야홀
- 203 뉴턴홀
- 204 올네이션스홀
- 205 오석관
- 206 코너스톤홀
- 301 제2행복 기숙사
- 302 김영길그레이스스쿨
- 501 산학협력관
- 502 에벤에셀관
- 503 비전관
- 504 창조관
- 505 뽀얏관
- 506 로템관
- 507 SW Town
- 508 국제관
- 509 은혜관
- 510 포용관
- 511 복지동
- 512 하용조관
- 513 한동게스트하우스
- 514 학생회관

한동대학교 진로가이드북

발행일	2023년 10월 26일
펴낸곳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팀
주소	(375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입학상담	054-260-1084~6
팩스	054-260-1809
이메일	admissions@handong.edu
입학홈페이지	https://admissions.handong.edu



하나님의·방법으로
하나님의·인재를·양성하는
하나님의·대학

이사야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유튜브 입학한동



한동대학교 입학처